空軍

성숙한 시민(市民)이라면 법익(法益)의 수혜자(受惠者)는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이며, 또한 법(法)과 질서(秩序)가 문란해지면 그 피해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산업사회에서는 우리의 전통적 규범과 관습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問題)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근대적인 법치질서(法治秩序)를 수용하고 체질화하기 위한 노력(努力)을 각별히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조국(先進祖國)은 물질적(物質的) 풍요와 함께 불의(不義)와 무질서가 사라지고 정의(正義)와 질서의식(秩序意識)이 뿌리를 내린 정신(精神)의 선진화(先進化)가 아울러 이루어진 밝고 건전한 사회(社會)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법정신을 생활화(生活化)하여 법(法)의 이념(理念)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正義)를 구현해 나가는 일은 선진조국(先進祖國)의 창조와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전두환(全斗煥) 대통령(大統領), 법(法)의 날 치사(致辭) 중(中)에서

전두환(全斗煥) 대통령,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서 유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평화통일(平和統一)의 지름길

대결을 대화로, 갈등을 화합으로 이끌어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지난 6월 1일 상오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의 통일과 남북한 간의 현안문제는 남북한 당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을 재확인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의장인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헤치고 국력을 신장시켜 기어코 평화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 제일 큰 과제」라고 전제하고 「만일 이 같은 안정을 해치는 불안요인이 있다면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척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군주요지휘관회의(空軍主要指揮官會議) 개최(開催)〈4.12. 본부 제2회의실〉

김상태(金相台) 참모총장은 공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즉각 대응, 초속반격체제를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 기지방어종합(基地防禦綜合) 시범 훈련 실시〈5.2. 제3591부대〉

기지(基地) 내(內)에 투하된 무장 게릴라 특공대를 섬멸하고 있다.

○ 이웅평 소령 임관식 거행〈5.3. 본부 강당〉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선서하고 있는 이웅평 소령

○ 82년도 우수조종사 시상식 거행〈4.15. 본부 연병장〉

최우수 조종사로 뽑힌 김영조 소령 외 9명의 조종사들에게
참모총장 표창과 부상이 각각 수여됐다.

공군 제 2 사관학교(空軍第2士官學校) 졸업(卒業) 및 임관식(任官式) 〈4 · 11 동교강당(同校講堂)〉

고 려 자 기

▲ 청자상감개부수주(靑瓷象嵌蓋付水注)
높이 21.5cm. 밑면 지름 7.7cm 2세기 말

청자상감 포도동자문진사채(葡萄童子文辰砂彩)
주전자 높이 34.2cm 받침 접시 지름 17.9cm

◀ 청자상감모란문항(牡丹文缸)
높이 20·1 cm 구경 20·7 cm 12세기 후반

목 차(目 次)

권두언(卷頭言) ····· 정훈감(政訓監) 김희중(金熙中) (12)

선진조국창조(先進祖國創造)의 실천과제(實踐課題) ···· 윤상철(尹相哲) (14)

경제교육홍보(經濟教育弘報)의 중요성(重要性) ····· 권오규(權五奎) (19)

특집(特輯)

6·25의 교훈(教訓)과 우리의 각오 ····· 문중섭(文重燮) (26)

전후 세대(戰後世代)에게 바란다 ····· 김종권(金鍾權) (35)

자아발견(自我發見)을 위한 자기 암시법(暗示法) ····· 전문호 (40)

연설문(演說文) 자유중국(自由中國)에 고(告)함 ····· 편집실 (59)

항공(航空)·군사(軍事)·과학(科學)

팀 스피리트 '83 참가 항공기 소개(航空機 紹介) ··· 윤용현(尹龍鉉) (66)

우주기지 레이저무기의 전략적 가치(戰略的 價値) ····· 손태용 (76)

소련(蘇聯)의 화학전 능력(化學戰 能力) ····· 최양수(崔良洙) (94)

미국(美國)의 미사일 개발(開發) ····· 강신일 (102)

보라매 일기(日記) ····· 〈만화(漫畵)〉 ····· 정운섭(鄭雲燮) (109)

수필(隨筆) 인간(人間)의 존엄성 ····· 장병림(張秉琳) (110)

나의 공군(空軍) 시절 ····· 전재수(田在洙) (112)

시(詩) 조국(祖國)이여 ····· 문상명(文相明) (114)

산중고발(山中告發) ····· 〈단편(短篇)〉 ····· 하근찬(河瑾燦) (116)

空軍

통권 제185호

1983년 제 3 호

제호를 빛내주신 김정렬 장군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 및 제3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으로 계시는 김정렬 장군님께서 공군지의 발전을 위해 친히 제호를 써 주셨습니다.

공군본부
(空軍本部)

안보의식 고취 (安保意識 鼓吹)

정훈감(政訓監) 공군준장(空軍准將)
김 희 중 (金熙中)

지난 5월(月) 중공(中共) 여객기 납치 사건으로, 그의 타결을 위한 중공(中共) 대표단이 입국(入國)을 하였고, 우리는 인도주의적(人道主義的)인 견지와 헤이그 협약(協約)준수의 원칙하에 피랍승객과 대표단(代表團)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접하였다.

자본가(資本家)와 노동자(勞動者) 사이의 계급모순이 발생하여 노동자(勞動者)들의 계급혁명이 성공(成功)할 수밖에 없어서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체제는 필히 멸망한다는 "제국주의" 이론으로 철저히 무장된 그들에게 우리는 자유로운 경쟁(競爭)과 원만한 노(勞)·사협조(社協助)로 눈부시게 발전된 우리의 경제현실(經濟現實)과 풍요롭고 자유스러운 생활(生活)환경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채근담(菜根譚)에 이런 말이 있다.

「處世而欲人感恩 便爲斂怨之道, 遇事而爲人除害 卽是導利之機」

「즉,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남으로 하여금 나의 은혜에 감동하게 하는 것은 곧 원망을 없애는 길이오, 일을 당해서 남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는 것은 곧 자기의 이로움을 가져오는 기회가 된다.」 라는 뜻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어렴풋하게나마 죽의 장막 속의 중공주민(中共住民) 생활(生活)을 들여다보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군(空軍)의 영공방위태세(領空防衛態勢)와 초계 능력이 입증되었으나, 반대로 휴전선을 넘으면 바로 우리 땅이라는 가까운 전선을 우리는 늘 의식(意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얻었다.

항상 이맘때 녹음기면 북괴(北傀)는 다방면으로 도발을 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그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괴(北傀)는 최근 김일성 부자(父子)의 세습 체제 강행에 따른 정치적(政治的) 갈등과 무리한 군비증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등으로 대내적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86아시안게임 및 88년 올림픽의 유치와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의 서울 개최로 우리의 국제적(國際的) 지위가 향상되자 역으로 그들의 지위는 하락되어 커다란 충격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대내적인 갈등과 외교적(外交的) 패배 의식을 만회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한 것과 같은 유격 침략 전술과 "무혈혁명을 통한 적화통일"의 방안으로 내란 선동과 제3국을 통한 우회 침투 등의 전술을 써서 직·간접으로 침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北傀)는 이미 제3국에서 간첩 장비와 한(韓)·미군(美軍) 복장을 대량 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韓國)이 국제적인 행사(行事)의 개최지로 적합지 못함을 대내외적으로 시사하려는 북괴(北傀)의 책동 가능성이 단순한 기우만은 아님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6·25전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나 다시 그러한 희생과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군(軍)은 필승(必勝)의 신념과 유비무환의 준비를 하는 전사(戰士)로서의 자아를 정립하여 빈틈없는 안보태세(安保態勢)로 북괴(北傀)의 엉뚱한 불장난을 근본적(根本的)으로 분쇄하여야 하겠다.

선진조국창조(先進祖國創造)의 실천과제(實踐課題)

우리 세대에 국가발전의 추진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남다른 창조능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윤 상 철 (尹相哲)
〈경향신문(京鄕新聞) 주필(主筆)〉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은 금년도의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선진조국 창조」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와 같은 슬로건이 이 시기에 제시된 것은 매우 적절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70년대에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서 「한강의 기적」을 창출했던 사실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단순히 맥을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화에서 선진화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작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슬로건을 내놓을 때는 목적하는 바가 있는 법이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 전체가 국가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그와 같이 공통된 인식하에 공통된 목표를 설정해서 단결된 힘을 발휘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그 시대상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르거나, 해석이 엇갈리고, 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란다면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속담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이 가장 상징적으로 그러한 국론분열의 상태를 말해 준다. 뚜렷한 지도자도 없이 너도나도 한자리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정치단체는 사분오열되고 여기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적 대립까지 겹쳐,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 한국 땅에 진주했던 미국 군인들이 승전국 편에 서 있는 한국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패전국인 일본 관리와 일본 군인을 상대로 치안을 부탁하고 전·후 처리를 서둘렀겠는가.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다.

그때 만일 우리 국민들이 독립국이 건설이라는 순수한 단일목표를 내걸고 그 기치 밑에 단결된 힘을 보였더라면 우리가 직접 진주군을 상대로 협상을 벌일 수 있었을 것이고, 치안권을 인계받아 통일된 독립 국가를 건설했을 것이다.

그와 비슷한 현상은 4·19 이후에도 나타났다. 그때도 해방 직후와 마찬가지로 권력에 굶주린 사람들이 제멋대로 정당을 만들어 난립했고, 신문들이 우후죽순처럼 발행되어 국론분열이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10·26사태 이후 5.17에 이르기까지 소위 3K의 등장, 학생데모의 빈발, 광주사태 등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되었던 것은 우리 기억에 너무나도 생생한 일이다.

그러한 혼란들이 결국 우리 역사의 맥을 끊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되며,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번거로움과 부담을 지게 되고, 발전 속도가 지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假定)은 금물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단절을 겪지 않고 해방 이후 30여 년을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 오늘의 판도는 크게 달라져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80년도의 중반에도 「새 시대 새 역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과거를 청산해 가면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난 30여 년간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만큼 우리는 한가하지 않다.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새 시대 새 역사」 창조의 과업에 이어 이제는 「선진조국 창조」 과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는 다행히 80년도 전반기의 어려운 고비를 짧은 기간에 현명하게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훌륭한 지도자의 출현과 모든 국민이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그 위기를 고비로 우리나라의 국운은 일어나는 상승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독일의 역사학자로 유명한 스팽글러는 세계 제1차 대전 후에 「서양의 몰락」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유럽 사상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진 일이 있다. 스팽글러는 이 책에서 인류의 역사를 전체로서의 발전 과정으로 보지 않고 각각 완성해 가는 몇 개 문화의 집합으로 보았으며, 각자의 문화는 자연현상과 같이 춘하추동의 경과를 거쳐 사멸해가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서양문명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몰락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운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당사 그와 같은 비관론이 받아들여진 것은 독일의 패전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파급으로 유럽 전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스팽글러의 그와 같은 역사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역사의 생성과 소멸을 춘하추동에 비유한 부분만을 인용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봄을 맞이한 시대적 상승기에 처해 있다고 확신한다.

10·26 사태로 국가 원수가 저격당하고 한동안 걷잡을 수 없는 무정부상태가 계속되는 악몽 같은 시기를 참으로 용하게도 극복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보다 덜한 혼란을 겪고도 국운이 기울었던 예를 많이 보아 왔다.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 이외에도 80년도에는

G.N.P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메가톤급의 치명상을 입고도 그 이듬해부터는 6~7%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의 회복력이 얼마나 강했던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재기하는 데 아마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치유와 회복이 엄청나게 빨라, 정상으로 돌아가 발전의 궤도에 들어가 70년대와 다름없는 가속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일은 모두 스팽글러가 말하는 "역사의 봄"을 맞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해석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의 연개소문, 을지문덕 장군이 용맹을 떨쳐 수·당군을 물리쳤고, 광개토대왕이 만주 지방으로 영토를 넓혔을 때. 신라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을 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등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 모두가 우리의 국운이 불같이 일어나는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한때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으로 「해가 질 때가 없다」라고 자랑하면서 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로 군림했다. 세계 각지에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영국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국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영국은 19세기 중엽에 세계 에너지 3분의 2를 생산했고, 철과 면의 2분의 1을 생산했으니 세계의 경제권도 한 손에 장악하고 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영국이 지난 1백 년 사이에 급속도로 쇠약해져서 이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말할 것 없고. 외교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맥을 추지 못하게 되었으니 역사의 순환법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을 대신해서 세계 1등 국가로 등장하여 세계의 경찰관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세계 문제 해결에 독보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역사의 순환법칙에 예외가 없음을 실감하게 된다.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의 꿈은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때 이미 미국의 꿈은 퇴조해 가고 있었다. 미국은 2백 년의 합중국 역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항상 그들의 양친들보다 풍요한 생활을 누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저조한 생산성과 인플레,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합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어린이들은 그들의 양친들보다 못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면서 카터는 「미국의 꿈의 재생」을 제창하고 나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카터 집권 4년 동안에 현실 문제를 도외시하고 이상주의에 치우쳤던 그의 정치, 경제, 사회정책은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맹목적인 평화주의를 내세웠던 그는 군비경쟁에 있어서도 소련에 추월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그와 같은 약체정부의 이미지 때문에 카터는 미국 역사상 드물게 1기 대통령으로 끝나고 강경노선, 힘의 정치를 표방하는 레이건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앤드류 핫카'라는 사람은 「아메리카 시대의 종언」이라는 책에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미국을 지탱했던 오랜 가치관은 고향에 그대로 남아 있다. 모든 사람이 사회적, 심리적 쾌락을 추구한 결과 개척정신으로 상징되던 미국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세계 1등국이 된 것은 자원이 넘쳐흐르는 풍요한 땅, 합리주의적인 기독교 정신, 근엄하고 엄격한 청교도 정신, 그리고 왕성하고 진취적인 개척정신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어떠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 교인이 있는 미국에서 요즘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신자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보다 못하다고 한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기껏해야 흑인 여자들이나 어린이들이 태반이다.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발달해 있고 지난날의 청교도 정신은 소비와 향락주의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개척정신도 퇴색하고 있다. 지난날의 몬로주의가 재생되고 있는 듯한 감이 들 정도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이민 정책 면에서 신고립주의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까지는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시대, 13세기에서 20세기까지는 대서양 문명의 시대였으나, 앞으로 21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태평양 문명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상당히 거시적으로 예언했다.

태평양지역은 현실적으로 자유무역 체제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ASEAN 5개국 등 12개국을 지칭하는 게 보통이다. 문제는 아시아·태평양권의 국가들이 유럽과는 달리 인종, 종교, 문화, 언어가 다르고, 경제발전 속도가 다르다는 데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성이 오히려 무한한 저력과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그러한 갭은 메꿀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세계은행은 8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활기 있게 발전하게 될 곳으로 태평양 경제권을 꼽고 있다. 이 은행이 예측한 것을 보면 80년대의 10년 동안 동아시아와 대양주 지역의 연평균 G.N.P. 성장률은 낮은 경우 6.4%. 높은 경우 8.1%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태평양 시대의 도래는 바로 역사적 봄을 맞이한 우리나라가 발전과 번영과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장래에는 희망적인 청신호가 켜져 있는 셈이다. 그 기회를 적기에 포착하여 유효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국가발전에 무서운 추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역사적인 호기(好機)를 잡아 국가발전의 추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절대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그 하나는 우리 세대에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일이요, 그 둘은 남다른 창조능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그러면 자신감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자아를 확립하는 일이다. 자주, 자립, 자율, 자조하는 인간을 주체 의식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발전시킬 의사가 분명할 때 자아는 확립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의미도 발견되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의 능력과 가치를 신뢰하는 일이 중요하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셋째는 매사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자신에 대한 신뢰의 바탕 위에 스스로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고와 행동이 가능해진다.

우리 민족은 확실히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한 자질과 뛰어난 저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심하고 자만해 있을 수는 없다. 그러한 자질과 저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외부의 변화를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과 그러한 변화에 기민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순발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내외로부터의 도전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응전만 해나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측에서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물어 나가는 용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창조능력이란 무엇인가. 흔히 창조라 하면 무엇인가를 발견, 발명하고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좁은 의미의 창조에 불과하다. 그러한 발명, 발견, 창작을 가능케 하는 전제 요건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창조는 미래 지향적이며, 매사를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창조적인 인간은 확실히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기상으로 충만해 있다. 창조의 정신과 행동은 남의 발이 닿지 않는 곳, 남의 눈이 가지 않는 분야, 남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에 뛰어드는 용기를 말한다.

우리가 88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을 유치했고, 금년에는 세계의 국회의원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는 I.P.U 총회를 서울에서 열게 된 것이라든지, 금년 초에는 이웅평 대위가 귀순해 왔고, 일본에서는 조치훈 군이 바둑계의 천하통일을 이룩한 일 등은 모두가 선진조국 창조에 나서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징조로 비춰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심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어떤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서울에서 대규모의 국제회의나 국제경기가 열려 남한의 국위가 결정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어떠한 적의 침략도 초동단계에 격멸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충만해 있는 한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 80년 현재 G.N.P가 4.3배에 달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10배 정도로 벌여 놓으면 북괴가 제아무리 군사력 증강에 광분한다고 하더라도 꼼짝 못 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주장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면 아마도 상대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 점에서라도 우리는 「선진조국 창조」에 더욱 노력해서 선진권에 진입함으로써 선량한 북한 동포들을 우리 품으로 안아 들일 수 있을 정도로까지 물심양면으로 성장해 나가야겠다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경제교육홍보(經濟敎育弘報)의 중요성(重要性)

권오규(權五奎)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 경제교육담당관(經濟敎育擔當官)〉

> 국민(國民) 모두가 경제(經濟)를 잘 알아야 하며 정책내용(政策內容)을 비판(批判)할 수 있는 눈과 또 옳다고 생각되면 적극(積極) 협조(協調)할 수 있는 자세(姿勢)를 갖추어야 하겠다.

1982년(年)은 우리 경제발전(經濟發展) 과정(過程)에 있어서 경제교육홍보(經濟敎育弘報)가 처음 본격적(本格的)으로 실시(實施)된 해였다. 언론기관(言論機關)은 국내(國內)·외(外) 경제현실(經濟現實)에 대(對)한 특별취재(特別取材)나 특집제작(特輯製作) 등(等)에 많은 지면(紙面)과 시간(時間)을 할애(割愛)하였고 공직자(公職者), 군인(軍人) 등(等) 피교육자(被敎育者) 동원(動員)이 가능(可能)한 조직(組織)에서는 집체교육(集體敎育)을 적극(積極) 실시(實施)하였으며 경제교육(經濟敎育) 홍보추진체계(弘報推進體系)를 정비(整備)하고 슬라이드, 책자(冊子), 영화(映畵), 강의(講義) 등(等) 다양(多樣)한 매체(媒體)를 개발(開發) 활용(活用)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政府)가 경제교육홍보(經濟敎育弘報)에 집중(集中) 노력(努力)하는 이유(理由)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要約)될 수 있다.

첫째, 우리 경제(經濟)는 경제구조(經濟構造)의 고도화(高度化)가 아직 충분(充分)히 이룩되지 못한 소위(所謂) "얕은 경제(經濟)"이기 때문에 각(各)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이 경제현실(經濟現實)을 잘 이해(理解)하고 협조(協調)하는 것이 긴요(緊要)하다. 일부(一部) 학자(學者)들은 우리 경제(經濟)를 "냄비 경제(經濟)"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조금만 가열(加熱)해도 부글부글 끓는 냄비와 같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例)를 들어 서울의 강남지역(江南地域)에 땅값이 올라갈 기미(機微)가 보인다는 소문이 나면 너도나도 몰려들어 금방 부동산투기(不動産投機)로 번지고 연탄(煉炭)값이 오른다는 소문이 나면 너도나도 사재기를 해서 연탄파동(煉炭波動)이 일어나는 경험(經驗)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狀況)을 빗대어 "냄비 경제(經濟)"라고 불렀다. 이렇게 각(各)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이 눈앞의 자기이익(自己利益)에만 눈이 어두워 행동(行動)을 하게 되면 나라 전체(全體)

로 볼 때 어려움을 가중(加重)시키게 되고 그 결과(結果) 각(各) 경제주체(經濟主體)에게도 불이익(不利益)이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백(明白)히 알아야 한다.

즉(卽)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이 경제현실(經濟現實)을 이해(理解)함으로써 눈앞의 이익(利益)만을 추구(追求)하기보다는 장기적(長期的)인 관점(觀点)에서 모두에게 이득(利得) 되도록 협조(協調)해 나가자는데 경제교육홍보(經濟敎育弘報)의 첫 번째 중요성(重要性)이 있다.

둘째로, 어려운 80년대(年代)의 대내외(對內外) 경제여건(經濟與件)을 극복(克服)하고 계속적(繼續的)인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려면 각 경제주체(經濟主體)의 기대수준(期待水準)을 잘 관리(管理)해서 이를 낮추어 나가야 한다. 사실(事實) 지난 70년대(年代) 후반(後半)에는 우리 경제(經濟)가 과도(過度)한 의욕(意慾)을 부려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과도(過度)한 기대(期待)나 의욕(意慾)은 금물(禁物)이 될 것이다. 지난 20여(餘) 년간(年間) 인플레하(下)에서 고도성장(高度成長)을 해오는 과정(過程)에서 기업가(企業家)들이 어느 정도(程度) 잘못 투자(投資)하더라도 인플레 덕분에 큰 손실(損失)을 입지 않았고 그것이 과감(果敢)한 기업활동(企業活動)을 보장(保障)해 주었다는 점을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경제(先進經濟)가 되기 위(爲)해서는 물가(物價)가 안정(安定)되어야 하고, 역(逆)으로 물가(物價)가 안정(安定)되지 않고는 선진경제(先進經濟)가 될 수도 없을 것임이 자명(自明)하다. 물가(物價)가 안정(安定)된 사회(社會)에서의 생활양식(生活樣式), 그것이 기대수준(期待水準)이 낮은 상태(狀態)를 의미(意味)한다.

근로자(勤勞者)는 70년대(年代) 후반(後半)처럼 연평균(年平均) 30% 이상(以上)씩 봉급(俸給)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期待)해서는 안 되며, 예금자(預金者)는 이자소득(利子所得)이 연평균(年平均) 20% 이상(以上)이 되는 것을 기대(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투자자(投資者)는 배당(配當)을 20% 이상(以上)씩 해주던 관행(慣行)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농민(農民)도 정부(政府)가 쌀 수매가(收買價)를 크게 올려 주기를 바라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며 농민(農民)뿐만이 아니라 민간(民間) 부문(部門)이 정부지원(政府支援)에 의존(依存)하거나 보호(保護)를 기대(期待)해서는 곤란하게 된다.

물가(物價)가 5% 이내(以內)로 크게 안정(安定)된 지금의 시점(時点)에서는 근로자(勤勞者)의 봉급(俸給)이나 이자(利子), 배당(配當), 수매가(收買價) 등(等) 각계각층(各界各層)의 요구(要求)를 자제(自制)하여 국내요인(國內要因)에 의한 물가상승율(物價上昇率)보다 다소(多少) 상회(上廻)하는 수준(水準)에서 안정(安定)되도록 합심(合心) 노력(努力)함으로써 물가안정(物價安定) 기반(基盤)이 확고(確固)하게 정착(定着)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特)히 "국내요인(國內要因)에 의한 물가상승율(物價上昇率)"이란 말에 주목(注目)할 필요(必要)가 있다. 물가(物價)가 오르는 이유(理由)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원유(原油)값이 오른다거나 해외(海外) 원자재(原資材)값이 오르는 등(等) 해외요인(海外要因)이 있는가 하면 돈을 많이 찍어 낸다거나, 임금(賃金), 금융비용(金融費用)이 오르는 것과 같은 국내요인(國內要因)의 두 가지로 구분(區分)할 수 있다. 이 중 해외요인(海外要因)은 우리 힘으로는 제어(制御)가 불가능(不可能)하다.

예(例)를 들어 비슷한 물량(物量)의 원유(原油)를 도입(導入)하는데 1978년(年)에 217억 불(億 弗)이 소요(所要)되었고 1981년(年)에는 638억 불(億 弗)이 들었는데 그 차액(差額) 421억 불(億 弗)은 우리 경제(經濟)가 추가(追加)로 부담(負擔)해야 하는 부분(部分)이 되며 이는 곧 우리 국민(國民)의 실질(實質) 소득(所得) 감소(減少)라는 형태(形態)로 나타나게 된다. 즉(卽) 우리 경제(經濟)의 각층(各層)이 자기(自己) 몫을 늘리려고 임금(賃金)도 올리고 배당(配當)도 많이 하고 이자율(利子率)도 올리고 하면 일응(一應) 자기(自己) 몫이 늘어난 듯 보이지만 결국(結局) 물가(物價)는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게 되어 실질 소득(實質所得)이 오히려 줄게 되고, 실질 소득(實質所得)이 줄어서 소비(消費)가 줄어든 부분(部分)만큼 해외(海外)에 해당부분(該當部分)을 지불(支拂)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어(制御) 불가능(不可能)한 해외요인(海外要因)에 의한 물가상승(物價上昇)을 보상(補償)받기 위(爲)해 임금(賃金)이나 배당(配當), 이자(利子)를 올리면 결코 실질적(實質的)인 보상(補償)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物價)가 올라 우리 상품(商品)의 경쟁력(競爭力)에 나쁜 영향(影響)을 미치게 되므로 지양(止揚)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국내요인(國內要因)에 의(依)한 물가상승(物價上昇)을 다소(多少) 상회(上廻)하는 수준(水準)에서 임금(賃金), 배당(配當), 이자율(利子率), 수매가(收買價) 등(等)이 안정(安定)되도록 다 같이 노력(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자연자원(自然資源)이 빈곤(貧困)한 우리 경제(經濟)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가려면 경제구성원(經濟構成員)의 질적수준(質的水準)이 높아져야 한다. 경제발전(經濟發展)이란 결국(結局) 생산성(生産性)을 늘려서 국민생활(國民生活)을 풍부(豊富)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산(生産)을 하기 위(爲)해서는 공장(工場)을 짓고 기계(機械)를 사들이는 데 필요(必要)한 돈, 곧 자본(資本)이 있어야 하고, 생산(生産)의 원료(原料)가 되는 자원(資源)도 있어야 하며, 이들 기계(機械)와 원료(原料)를 사용(使用)하여 물건(物件)을 만들어 내는 인력(人力)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이 부족(不足)하여 외국(外國)에서 돈을 일부(一部) 빌려 쓰고 있으며 자원(資源)도 부족(不足)해서 거의 대부분(大部分)의 원자재(原資材)를 외국(外國)에서 수입(輸入)해 쓰고 있다. 철광석(鐵鑛石)은 75%, 유연탄(有煉炭)은 100%, 원면(原綿) 98%, 원모(原毛) 98%, 화학섬유원료(化學纖維原料) 100%, 가죽 100%, 우지(牛脂) 100%, 생고무 100%, 원당(原糖) 100%, 밀 97%, 원목(原木) 84%. 펄프 75% 등(等) 주요(主要) 원자재(原資材)의 거의 대부분(大部分)과 석유(石油) 등(等) 주요(主要) 에너지 자원(資源)을 모두 수입(輸入)에 의존(依存)하고 있는 것이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인구(人口)가 많고 교육수준(敎育水準)이 높은 편이어서 인력(人力)은 풍부(豊富)한 셈인데 이와 같이 자본(資本)과 자원(資源)이 부족(不足)한 반면(反面)에 인구(人口)가 많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려면 인력(人力)을 잘 활용(活用)하는 것이 중요(重要)하다. 따라서 우리

가 선진국(先進國)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선진국(先進國)보다 낮은 수준(水準)에 있는 일반국민(一般國民)의 경제인식(經濟認識) 수준(水準)을 시급(時急)히 제고(提高)해 나갈 필요(必要)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일상생활(日常生活)을 둘러보면 수많은 비합리적(非合理的) 요소(要素)가 잔존(殘存)하고 있다.

소주 한 병의 값은 전국(全國) 어디서나 똑같아야 한다는 사고방식(思考方式)이라든가 어느 상점(商店)에서 사더라도 항상 값싸고 질이 좋아야 한다는 것은 게으른 소비생활(消費生活)이 그 대표적(代表的)인 예(例)가 될 것이다. 소주 한 병의 값은 대도시(大都市)와 산간(山間) 벽촌에서 달라져야 함은 당연(當然)하다. 왜냐하면, 산간 벽촌까지의 수송비(輸送費)에다가 물건(物件)이 팔리는 정도, 자금(資金)의 회전율(回轉率)이 산간 벽촌이 훨씬 더디므로 그만큼 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생산자(生産者)나 소비자(消費者) 또는 정부(政府)의 공직자(公職者)가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을 결여(缺如)한 판단(判斷)과 행동(行動)을 할 때 우리 경제전체(經濟全體)의 효율(效率)이 떨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선진국(先進國)보다 큰 비용부담(費用負擔)을 발생(發生)시키게 된다.

미국(美國)의 시사주간지(時事週刊紙)인 뉴스위크의 1982. 3. 22 일자(日字)에는 「더로우」(Thurow) 교수(敎授)의 "장래를 위한 훈련(訓練)"이라는 제목(題目)의 기고(寄稿)가 있었는데 그는 "한 나라의 경제(經濟)를 구성(構成)하는 요소(要素)들이 저질(低質)일 때 어느 누구도 양질(良質)의 경제(經濟)를 이룩해 놓을 수 없다."라고 쓰고 있다.

이는 미국(美國) 레이건 행정부(行政府)의 교육훈련계획(敎育訓練計劃) 푸대접을 비판(批判)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를 "한 나라 국민(國民)의 경제인식수준(經濟認識水準)이 낮을 때는 누구도 경제도약(經濟跳躍)을 이룩할 수 없다."라는 교훈(敎訓)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경제교육홍보(經濟敎育弘報)의 프로세스를 통(通)하여 각계(各界) 지도층(指導層) 인사(人士)에게 가능(可能)한 한(限) 많은 경제정보(經濟情報)를 공급(供給)함으로써 경제상황 인식(經濟狀況認識)이나 정책수립(政策樹立)에 있어서 건전(健全)한 비판(批判)과 국민적(國民的) 합의(合議)를 유도(誘導)하는 데 기여(寄與)할 수 있다. 과거(過去)에 일부(一部) 학자(學者)들은 정부(政府)가 정보(情報)를 독점(獨占)한다는 비판(批判)을 해 왔고, 정부(政府)도 가급적(可及的) 자료(資料)를 외부(外部)에 알리지 않으려는 경향(傾向)이 있었으나 이를 과감(果敢)히 탈피(脫皮)하여 정부시책(政府施策)의 장단점(長短点)을 있는 그대로 노출(露出)하고 그 과정(過程)에서 국민적(國民的) 합의(合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努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外國)의 예(例)

그러면 이상(以上)과 같은 중요성(重要性)을 가진 경제교육홍보(經濟敎育弘報)를 우리나라만이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선진(先進) 각국(各國)들은 이미 오래전(前)부터 경제교육홍보(經濟敎育弘報)의 중요성(重要性)을 인식(認識)하고 노력(努力)해 왔다. 예(例)를 들어 일본(日本)의 NHK TV는 프로 제작(製作)의 기본방침(基本方針)을 국민의 식수준(國民意識水準) 향상(向上)에 두고 과거(過去) 10여 년(餘年) 이상(以上) 경제인식수준(經濟認識水準) 제고(提高)를 비롯한 의식수준(意識水準) 향상(向上)에 중점(重点) 노력(努力)함으로써 이제는 어느 정도(程度) 성과(成果)가 있었다고 보고 각(各) 분야별(分野別) 전문적(專門的)인 정보(情報)의 전달(傳達)에까지 그 활동영역(活動領域)을 넓혀가고 있다.

덴마크의 주요(主要) 일간지(日刊紙)들은 1면(面)에 매일(每日) 그들 현재(現在)의 국민(國民) 1인당(人當) 외채잔액기사(外債殘額記事)를 실음으로써 국민(國民)의 자제(自制)와 협조(協調)를 유도(誘導)하고 있으며 TV 방송국(放送局)에서는 오락(娛樂) 프로를 아주 적게 편성(編成)하는 반면(反面) 경제관료(經濟官僚)와의 대담(對談) 프로 등(等)을 대폭(大幅) 확대(擴大) 편성(編成)함으로써 국민의식(國民意識) 계도(啓導)에 앞장서고 있다. 물론 일부(一部) 국민(國民)들은 인근(隣近) 스웨덴 등(等)의 오락프로 시청(視聽)을 선호(選好)하는 등(等) 장단점(長短点)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경제인식수준(經濟認識水準) 향상(向上)에 그만큼 노력(努力)하고 있음은 주목(注目)할 만하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주변(周邊) 강대국(强大國)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처럼 자연자원(自然資源)도 별로 없으면서 1인당(人當) 국민소득(國民所得)이 1만(萬) 불(弗)을 넘는 선진국(先進國)으로 발전(發展)하였다. 이는 주위(周圍)의 최대(最大) 경제대국(經濟大國)인 독일(獨逸)을 좇아가려면 물가(物價)가 독일(獨逸)보다 낮아야 수출경쟁(輸出競爭)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의식(意識)이 일반화(一般化)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獨逸) 국영(國營) TV는 국민경제(國民經濟) 교육용(敎育用) 프로를 40편(編) 이상(以上) 제작(製作)하여 우리 방송회사(放送會社)에서도 이를 수입(輸入), 방영(放映)한 바 있으며 미국 상공회의소(美國商工會義所)에서는 국민경제교육용(國民經濟敎育用) 책자(冊子)를 계속(繼續) 발행(發行)하고 있다. 또한, 싱가폴의 생산성본부(生産性本部)는 정부기관(政府機關)인데 생산성(生産性) 향상(向上)에 관(關)한 만화(漫畵)를 계속(繼續) 제작(製作) 배포(配布)하고 있다.

선진국(先進國)이나 경쟁(競爭) 상대국(相對國)의 이러한 노력(努力)을 종합(綜合)해 볼 때, 그들은 정부(政府)나 언론기관(言論機關), 또는 민간단체(民間團體)를 막론(莫論)하고 일찍이 국민경제(國民經濟) 교육홍보(敎育弘報)에 노력(努力)하여 상당한 성과(成果)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評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도 1982년(年)부터 대국민경제(對國民經濟) 교육홍보(敎育弘報)를 본격적(本格的)으로 추진(推進)하여 상당한 성과(成果)를 거두었다고 본다. 즉(卽) 우리가 처(處)한 경제현실 인식(經濟現實認識)과 경제주체별(經濟主體別) 명확(明確)한 역할(役割) 제시(提示) 등(等)을 통(通)해 전국민(全國民)의 고통분담(苦痛分擔)을 호소(呼訴)함으로써 물가(物價) 오름세 심리(心理) 단절(斷切)에 크게 기여(寄與)한 것으로 평가(評價)된다.

물론(勿論)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추진(推進)하기 시작(始作)한 이래(以來) 작년(昨年)에 도

매 물가 상승률 2.4%, 소비자 물가상승률 4.8%로 가장 낮은 물가(物價) 상승율(上昇率)을 보였는데 그 요인(要因) 중(中)에는 해외(海外) 원자재(原資材)값이 안정(安定)되었거나 지난 수년간(數年間) 경제안정화(經濟安定化) 시책(施策)을 꾸준히 추진(推進)해 왔다든가 농산물(農産物)의 풍작(豊作) 등 여러 요인(要因)이 있겠지만 임금자제(賃金自制), 배당자제(配當自制) 등(等) 소위(所謂) 소득정책(所得政策)을 통(通)하여 기업(企業)의 비용(費用)을 절감(節減)시키는 데 성공(成功)한 점(点)도 중요(重要)한 요인(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정책(所得政策)이 성공(成功)하지 못해서 70년대(年代) 후반(後半)처럼 임금(賃金)이 크게 뛰고 추곡수매가(秋穀收買價)를 크게 올려 주고 이자율(利子率)도 높게 유지(維持)했다면 아무리 해외요인(海外要因)이 안정(安定)되었다 하더라도 작년(昨年)과 같은 성과(成果)를 거양(擧揚)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自明)하다.

국민(國民)들의 경제인식수준(經濟認識水準) 제고(提高)에도 그간 추진(推進)한 경제교육홍보(經濟敎育弘報)가 큰 성과(成果)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경제(經濟)가 전문가(專門家)의 소유물(所有物)이라는 과거(過去)의 인식(認識)을 불식(拂拭)하고 경제(經濟)를 일반인(一般人)의 관심권(關心圈)으로 끌어 내림으로써 누구나 경제문제(經濟問題)에 쉽게 접근(接近)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이다. 사실(事實) 경제(經濟)가 전문가(專門家)에 의(依)해 주도(主導)되는 시대(時代)는 지났다고 본다.

이게는 국민(國民) 모두가 경제(經濟)를 잘 알아야 하며 정책내용(政策內容)을 비판(批判)할 수 있는 눈과 또 옳다고 생각되면 적극(積極) 협조(協調)할 수 있는 자세(姿勢)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政府)가 경제교육홍보(經濟敎育弘報)를 한다고 해서 결코 국민(國民)의 자제(自制)나 고통분담(苦痛分擔)만을 강요(强要)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렇게 했다가는 설득력(說得力)을 잃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서울의 번화가인 종로(鍾路) 2가(街)의 버스 정류장(停留場)에서 줄을 서서 버스를 타자고 외쳐대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效果)밖에 없을 것이다. 버스 정류장(停留場)의 무질서(無秩序)를 해결(解決)하려면 근본적(根本的)인 인구집중문제(人口集中問題), 교통문제(交通問題)를 알아야 하며 경제교육홍보(經濟敎育弘報)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근본적(根本的)인 문제(問題)를 이해(理解)하는 힘을 기르자는 데 있다고 본다.

이제 경제교육홍보(經濟敎育弘報)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定着段階)에 들어서고 있다.

전국민(全國民)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교육홍보(經濟敎育弘報)에 적극 참여(參與)할 때 우리가 바라는 물가안정(物價安定)과 지속적(持續的)인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의미(意味)에서 경제교육홍보(經濟敎育弘報)는 선진국(先進國)으로 가는 고속도로(高速道路)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막상식

광선무기(光線武器)란 무엇인가?

8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광선무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전자, 중성자 등을 가속시켜 방출하는 입자 빔 무기이고 다른 하나는 고(高)에너지 레이저 광선(光線)무기이다.

입자 빔 무기는 입자가속기를 이용해 입자들을 광속에 가까운 초속 약 30만km로 가 목표물에 닿게 되면 입자가 갖고 있는 고(高)에너지가 표적에 옮겨가 녹거나 구멍이 뚫리면서 파괴된다.

한편 고(高)에너지 레이저는 순간적으로 목표물을 공격한다. 레이저 광선은 특히 그 자체가 레이다 전파를 갖고 있어 목표물을 탐지함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 별도의 발사 시스템이 없어도 된다.

반면 입자 빔 무기는 고도의 조준 및 발사 시스템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광선 무기들은 우주에서 핵폭발이 일어날 경우에는 모두 무기화되기 때문에 실제 입자 빔 및 레이저 무기를 이용하는 우주전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일부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이다.

6·25(六·二五)의 교훈(敎訓)과 우리의 각오(覺悟)

민영(民影) 문 중 섭 (文重燮)
〈(예)육군소장(陸軍少將), 시인(詩人)〉

세간(世間)에서 흔히 말하기를 「연륜(年輪)과 경험(經驗)은 진리(眞理)에 가깝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독사(毒蛇)에게 물려 본 사람만이 독사(毒蛇)의 무서움을 알 수 있고, 자유(自由)를 잃어 본 사람만이 자유(自由)의 고마움을 실감(實感)할 수가 있고, 전쟁(戰爭)을 체험(體驗)한 사람만이 전쟁(戰爭)의 공포(恐怖)와 전쟁(戰爭)의 참혹상(慘酷相)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전쟁(戰爭)의 참혹상(慘酷相)

1950년(年) 6월(月) 25일(日) 아침 여명(黎明)을 기(期)하여 소련제(蘇聯製) 전차(戰車) 300대(臺)를 앞세우고 노도(怒濤)와 같이 38선(線)을 넘어온 공산군(共産軍)의 침략 공격(侵略 攻擊)에 의(依)하여 우리 국군(國軍)의 방어선(防禦線)은 삽시간(霎時間)에 무너지고 수도(首都) 서울이 점령(占領)됨으로써 도시(都市)와 농촌(農村)은 적구(赤狗)들의 총검(銃劍)과 군화(軍靴) 밑에 짓밟히고 말았다.

6·25 당시(當時) 국군(國軍) 따라 남하(南下) 못 한 국민(國民)들은 적구(赤狗)들에 의(依)해 체포(逮浦)되어 인민재판(人民裁判)이라는 미명하(美名下)에 군경가족(軍警家族)들은 악질반동분자(惡質反動分子) 가족(家族)이라는 이름 아래 남녀노소(男女老少) 차별(差別) 없이 무참(無慘)하게 학살(虐殺)했다.

공산군(共産軍)의 공격(攻擊)에 의(依)해 국토(國土)는 초토화(焦土化)되고, 백만(百萬)의 사상자(死傷者)와 십만(拾萬)의 전쟁미망인(戰爭未亡人), 오만(五萬)의 전쟁고아(戰爭孤兒)들과 수천(數千) 명(名)의 학자(學者)와 예술인(藝術人)들이 북괴(北傀) 적구(赤狗)들에 납북(拉北)되었고, 남하(南下) 못 한 젊은이들은 의용군(義勇軍)이라는 미명하(美名下)에 강제(强制)로 제

일선(第一線)에 내보내 총(銃)받이로 삼았으니 훈련(訓練)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들은 무참(無慘)하게 죽어야만 했다.

전쟁발발(戰爭勃發) 3개월(個月) 만에 국토(國土)의 9할(割)이 적구(赤狗)들의 침략(侵略)에 의(依)해 적화(赤化)되고, 대구(大邱)와 부산(釜山)만이 겨우 남아 대한민국(大韓民國)의 국호(國號)와 함께 자유(自由)의 깃발이 간신히 나부끼던 6·25 전란(戰亂)의 그 참상(慘狀)!

패망(敗亡)한 월남(越南)처럼 우리의 조국(祖國)도 지구상(地球上)에서 영원(永遠)히 말살(抹殺) 당(當)할 뻔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역사(歷史)의 위기(危機)를 간신히 넘겼다고 하겠다.

그 당시(當時) 군(軍)·관(官)·민(民)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용감(勇敢)하게 싸웠다.

특(特)히 신명(身命)을 바쳐 용감(勇敢)히 싸운 국군장병(國軍將兵)들이 이룩한 업적(業績)은 구국(救國)에 이바지한 혁혁(赫赫)한 전공(戰功)이기에 조국(祖國)과 함께 영원(永遠)히 청사(靑史)에 빛나리라!

6·25 당시(當時) 우리 국군장병(國軍將兵)들은 불충분(不充分)한 장비(裝備)와 보급(補給)을 받으면서도 한 마디의 불평(不平) 없이 오직 구국(救國)에 앞장서 용감(勇敢)히 싸우다 장렬(壯烈)히 전사(戰死)한 전우(戰友)들의 명복(冥福)을 생존자(生存者)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恒常) 통회(痛悔)의 기도(祈禱)를 드린다.

이와 같이 군(軍)·관(官)·민(民)이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 국난(國難)의 위기(危機)를 신명(身命)을 바쳐 극복(克服)하였기 때문에 풍요(豊饒)로운 오늘의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발전(發展)하지 않았는가 ……

우리나라 반만년(半萬年) 역사(歷史) 속에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참혹(慘酷)한 전쟁(戰爭)의 비극(悲劇)은 일찍이 찾아볼 수가 없다.

역사(歷史)는 기록(記錄)을 남기고, 세월(歲月)은 인간(人間)에게 망각(忘却)이라는 순간(瞬間)을 가져다준다.

6·25 전란(戰亂)의 비극(悲劇)이 있은 지도 어언(於焉) 30여(餘) 년(年)의 세월(歲月)이 흘러갔다.

시간(時間)을 먹고 사는 무심(無心)한 세월(歲月) 속에 전란(戰亂)의 처절(悽絶)한 참상(慘狀)은 망각(忘却)되어 가지만 전상(戰傷) 당(當)한 그 흉터는 아직도 남아 있으니 궂은비 내리는 6월(月)이 오면 쓰리고 아린 아픔을 내 어이하리 ……

오늘에 사는 젊은이들은 6·25의 아픔을 모른다. 전후세대(戰後世代)들이기에 모르는 것이 당연(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40대(代)를 전후(前後)한 젊은이들은 6·25전란(戰亂)의 비극(悲劇)을 체험(體驗)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모(父母)나 선배(先輩)들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전부(全部)이므로 그저 관념적(觀念的)이고, 피상적(皮相的)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오늘에 사는 젊은이들은 공산주의사상(共産主義思想)과 공산주의사회(共産主義社會)의 생활실태(生活實態)를 모른다.

공산주의(共産主義) 사상(思想)은 이미 역사적(歷史的)인 실험(實驗)을 끝마친 낡은 사상(思想)이다.

공산주의(共産主義) 국가(國家)의 종주국(宗主國)인 소련국민(蘇聯國民)들의 생활상태(生活狀態)는 어떠한 실태(實態)에 놓였으며, 중공(中共)의 공산주의(共産主義)가 오늘에 와서 어떠한 노선(路線)으로 수정(修正)되어 가고 있는가?

더욱이 38년(年)의 역사(歷史)를 가진 북한동포(北韓同胞)들의 생활상태(生活狀態)는 어떠한가?

역사(歷史)의 시계(時計)바늘을 멈추고 뒤로 돌리려고 하는 북괴(北傀) 김일성(金日成) 독재자(獨裁者)는 세습왕조체제(世襲王朝體制)를 만들어 자기(自己)의 아들 김정일(金正日)에게 전권(全權)을 물려주었으니 자유세계(自由世界)는 물론(勿論) 공산주의국가(共産主義國家)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8.15해방(解放) 직후(直後)부터 그들은 노동자(勞動者), 농민(農民)을 위(爲)해 지상(地上)의 낙원(樂園)을 건설(建設)한다고 떠들었지만, 지상낙원(地上樂園)이 북한(北韓) 땅 어느 곳에 건설(建設)되었다는 말인가?

만일(萬一) 지상낙원(地上樂園)이 있다면 평양부근(平壤附近) 대성산(大成山) 밑에 세운 김일성(金日成)의 궁전(宮殿)만이 있을 뿐이다.

허울 좋은 지상낙원(地上樂園)

그들이 말한 것처럼 북한인민(北韓人民)들이 잘살 수 있는 지상(地上)의 낙원(樂園)이라면 무엇 때문에 오백만(五百萬)의 북한동포(北韓同胞)들이 부모처자(父母妻子)를 버리고 자유대한(自由大韓)을 찾아 월남(越南)해야 했던가?

최근(最近)에 월남(越南)한 북괴군(北傀軍) 공군(空軍) 조종사(操縱士) 이웅평 상위(上尉)의 증언(證言)을 들어보라!

그는 6·25를 모르는 전후세대(戰後世代)로서 북괴(北傀) 공군(空軍) 사관학교(士官學校)를 나온 공산주의(共産主義) 정수분자(精粹分子)가 아니었던가?

그들이 내세우는 지상(地上)의 낙원(樂園)이 건설(建設)되어 있다면 이 상위(李 上尉)는 왜 그 살기 좋은 낙원(樂園)을 버리고 월남(越南)해야 했던가?

그들이 말하는 북한(北韓) 땅은 지상(地上)의 낙원(樂園)이 아니라 오직 공산치하(共産治下)에서 신음(呻吟)하는 노동자(勞動者)·농민(農民)들의 피땀만 착취(搾取) 당(當)하는 생지옥(生地獄)이 있을 뿐이다.

공산주의(共産主義) 국가(國家)에서 외치는 구호(口號)는 어느 곳에서나 이구동성(異口同聲)의 구호(口號)뿐이다.

그들은 미국(美國)을 가리켜 미제국주의(美帝國主義) 침략자(侵略者)라고 적대시(敵對視)하고 있지만 이에 앞장섰던 소련(蘇聯)과 중공(中共)에서는 미국(美國)의 자본(資本)과 기술(技術), 그리고 양곡(糧穀)까지도 도입(導入)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말하는 인민(人民)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긴박(緊迫)한 식량난(食糧難)과 낙후(落後)한 산업시설(産業施設)을 자력(自力)으로 발전(發展)시킬 능력(能力)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젊은 세대(世代)들에게 공산주의(共産主義) 사상(思想)과 이론(理論)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必要)하지만 무엇보다 공산국가(共産國家) 인민(人民)들의 생활이면상(生活裏面相)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重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特)히 호전적(好戰的)인 북괴(北傀) 적구(赤狗)들과 대치(對峙)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立場)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경계(警戒)해야 할 일은 북괴군(北傀軍)의 도발행위(挑發行爲)를 즉각(卽刻) 저지(沮止)하고, 초전박살(初戰撲殺) 하는 전투태세확립(戰鬪態勢確立)이 필요(必要)하다.

전쟁억제(戰爭抑制)를 위(爲)해서는 항상(恒常) 상대편(相對便)보다 전투기술면(戰鬪技術面)에서나 정신전력면(精神戰力面)에서 월등(越等)한 우위(優位)에 놓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승산(勝算)의 전투(戰鬪)」를 수행(遂行)할 수 있는 강력(强力)한 전투력(戰鬪力)을 키워 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강력(强力)한 힘이 있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君主論)에서 「정치(政治)와 종교(宗敎)」 「정치(政治)와 도덕(道德)」의 분리(分離)를 주장(主張)한 것으로 유명(有名)하다.

그는 말하기를 「국가(國家)의 궁극적(窮極的)인 목표(目標)」는 국가권력(國家權力)의 증대(增大)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爲)한 정책(政策)을 수행(遂行)하는 데는 「수단(手段)과 방법(方法)」을 가리지 않고 잔인(殘忍)한 비인도적(非人道的)인 방법(方法)이라도 문제(問題)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이 「마키아벨리」의 주장(主張)이었다.

정치(政治)와 도덕(道德)의 분리(分離)를 내세운 「마키아벨리즘」은 곧 국제정치(國際政治)에 있어서 힘의 논리(論理)로 강조(强調)되고 말았다.

독일(獨逸)의 재상(宰相) 「비스마르크」는 「독일(獨逸)의 문제(問題)」는 「철(鐵)과 피로써 해결(解決)되어야 한다.」 고 주장(主張)한 바 있다.

「비스마르크」의 주장(主張)도 「마키아벨리」가 군주론(君主論)에서 주장(主張)한 것을 그대로 본떠 표현(表現)을 달리한 것에 불과(不過)하다.

그러기에 「비스마르크」에게 철혈재상(鐵血宰相)이라는 별명(別名)을 주었던 것이다.

제일차(第一次) 세계대전(世界大戰)을 전후(前後)하여 미국(美國)의 「윌슨 대통령(大統領)」은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를 제창(提唱)한 바 있다.

민족주의(民族主義) 이론(理論)은 약소국가(弱小國家) 민족(民族)들에게 큰 희망(希望)을

안겨 주었으나 헛된 기대(期待)만 가지게 하였고, 그 결과(結果)는 허망(虛妄)된 이상(理想)에 불과(不過)했다. 왜냐하면 국제정치(國際政治)에 있어서 「마키아벨리즘」을 몰아 내기에는 역부족(力不足)이었기 때문이다. 제2차(第2次) 세계대전(世界大戰) 이후(以後) 힘의 논리(論理)가 사라지는 것으로만 알았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失望)시키고 말았다.

냉혹(冷酷)한 국제정치(國際政治)에서는 자국(自國)의 이익(利益)만을 추구(追求)하는 것이 절대우선(絶對優先) 하는 지배요인(支配要因)이 되기 때문에 「영원(永遠)한 우방(友邦)」이나 「영원(永遠)한 적국(敵國)」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이와 같은 현실(現實)은 냉혹(冷酷)한 국제정치(國際政治)의 조류(潮流)이고, 우리가 당면(當面)하고 있는 문제(問題)는 북괴군(北傀軍) 남침도발(南侵挑發)을 억제(抑制)할 수 있는 전투력(戰鬪力)과 즉각(卽刻) 응징(膺懲)할 수 있는 실력배양(實力培養)이라고 할 수 있다.

6·25 남침(南侵)에 실패(失敗)한 북괴(北傀) 측(側)에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餘) 년(年)에 걸쳐 군사력(軍事力) 증강(增强)에만 역점(力点)을 두어 왔기 때문에 공군력(空軍力)과 해군(海軍)에 있어서 아군(我軍)에 비(比)해 수적(數的)인 면(面)에서 2배(倍) 이상(以上)의 전투력(戰鬪力)을 확보(確保)하였고 특(特)히 십만(拾萬)의 특수부대(特殊部隊)를 이미 양성(養成)해 놓고 있다는 사실(事實)에 대(對)하여 우리는 주목(注目)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욱이 북괴(北傀) 김일성(金日成)의 아들은 전쟁(戰爭)을 모르고 자란 포악무도(暴惡無道)한 성품(性品)의 소유자(所有者)로서 국내(國內)의 불안(不安)한 정치(政治) 속에 내부세력(內部勢力)에 강력(强力)한 저항(抵抗)을 받거나, 북한인민(北韓人民)들의 불만(不滿)이 동조세력(同調勢力)으로 확대(擴大)될 때 전쟁(戰爭)을 모르는 김정일(金正日)의 광적(狂的)인 만용(蠻勇)으로 언제 남침도발(南侵挑發)을 감행(敢行)할는지 그 누구도 예측(豫測)을 불허(不許)하는 일이다.

만일(萬一) 제(第)2의 6·25가 북괴(北傀)에 의(依)해 전쟁(戰爭)이 발발(勃發)하게 된다면 남(南)·북한(北韓)이 보유(保有)하고 있는 군사력(軍事力)으로 보아 국토(國土)는 초토화(焦土化)될 것이고, 우리 민족(民族)은 영영 재기불능(再起不能)하게 될 것이고, 세계사(世界史)에는 가장 낙후(落後)한 비극(悲劇)의 나라로 전락(轉落)하게 되고 말 것이다.

더욱이 30여(餘) 년간(年間)에 걸쳐 피땀으로 쌓아 올린 건설(建設)의 탑(塔)은 모두 무너지고 말 것이기에 정부(政府)와 국민(國民)들은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의 길을 추구(追求)하고 있지 않은가?

통일(統一)의 숙원사업(宿願事業)

그러나 북괴(北傀) 측(側)에서는 우리 측(側)과의 대화(對話)마저도 거부(拒否)하고 있으니 평화적(平和的)인 조국통일(祖國統一)의 길은 멀고도 어렵기만 하다. 통일(統一)의 길이 제아무리 멀다 해도 그 언제인가는 이루어져야 할 민족적(民族的)인 숙원사업(宿願事業)이기에 국민

(國民) 모두가 통일과업(統一課業)에 희망(希望)을 안고 슬기로운 인내(忍耐)로써 조국(祖國)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을 위해 묵묵(默默)히 맡은바 직분(職分)에 충실(充實)하여 국력배양(國力培養)에 힘써야 하겠다.

국력(國力)이란 경제력(經濟力)과 정신전력(精神戰力)을 말하는 것이기에 국제정치(國際政治)의 현실(現實)은 「힘과 힘의 대결(對決)」「사상(思想)과 사상(思想)이 대립(對立)」하는 냉혹(冷酷)한 국제정치(國際政治)의 비정(非情)한 조류(潮流) 속에 조국(祖國)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을 위(爲)한 노력(努力)은 계속(繼續)되어야만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생(犧牲)과 인내(忍耐) 속에 다소(多少)의 불편(不便)한 점(点)이 있더라도 참아가면서 꾸준히 통일(統一)을 위(爲)한 대화(對話)의 길을 열어 놓고 있지만, 북한(北韓) 측(側)은 응(應)해오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속셈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남침(南侵)의 기회(機會)만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事實)을 알고 우리는 대비(對備)하여야 하겠다.

역사(歷史)의 교훈(敎訓)

6·25의 전란(戰亂)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적(歷史的) 교훈(敎訓)을 주었는가?

한마디로 말해 우리 국군(國軍)은 북괴군(北傀軍)의 군사력(軍事力)에 비(比)해 지극(至極)히 열세(劣勢)한 상태하(狀態下)에서 6·25를 맞아 전투(戰鬪)에 임(臨)하였으나 오직 「정신전력(精神戰力)」만은 왕성(旺盛)하였기 때문에 적(敵)과 싸워 이겼다고 장담(壯談)할 수 있다.

이제 전란(戰亂)의 상처(傷處)는 아물어져 가지만 그 흉터만은 아직 남아 있다.

우리 인간(人間)은 역사(歷史)에서 도피(逃避)할 수가 없다.

지나간 역사(歷史)에서는 선조(先祖)들의 지혜(智慧)와 고난(苦難)을 극복(克服)한 교훈(敎訓)을 배워야 하고, 국력(國力)을 키워가는 데 인색(吝嗇)하지 말아야 한다.

인류(人類)의 역사(歷史)는 자유(自由)의 발전사(發展史)라고 말한다. 우리 민족(民族)의 반만년(半萬年) 역사(歷史) 속에 자유(自由)를 잃고 암흑(暗黑) 속에 방황(彷徨)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서대문(西大門)에 서 있는 독립문(獨立門)은 그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36년간(年間) 일제(日帝)의 식민지생활(植民地生活)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6·25 당시(當時) 남하(南下) 못 한 국민(國民)들은 본의(本意) 아니게 공산치하(共産治下)에서 죽지 못해 살아야만 했다.

남하(南下) 못 한 국민(國民)들은 공산치하(共産治下)에서 인간(人間) 이하(以下)의 생활(生活)을 체험(體驗)했고, 자유(自由)의 고마움을 몸소 체득(體得)하였다.

우리의 책임(責任)

인간(人間)의 자유(自由)는 소중(所重)하지만, 그 자유(自由)를 누리기 위(爲)하여서는 국민(國民) 모두가 자유(自由)를 수호(守護)할 책임(責任)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유(自由)를 수호(守護)할 줄 아는 국민(國民)만이 자유국민(自由國民)의 자격(資格)이 있다는 말이다.

자유(自由)를 지키기 위(爲)하여서는 용감(勇敢)한 국군(國軍) 장병(將兵)들이 있어야 하고, 국민(國民)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국력(國力)을 키워야만 한다.

옛날 「아테네」의 정치가(政治家) 「페라클레스」는 자유(自由)에 대(對)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복(幸福)은 자유(自由)에서 오고, 자유(自由)는 용기(勇氣)에서 온다.」라고 간파(看破)하였다.

바꾸어서 말하면, 자유(自由)란 결(決)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의 선조(先祖)들은 안일(安逸)한 생각에 젖어 태평성대(太平聖代)를 구가(謳歌)하면서도 국력(國力)을 키우는 데는 인색(吝嗇)하였기 때문에 청국(淸國)의 지배(支配)를 받아야 했고, 조정(朝廷)을 위주(義州)에까지 피난(避難)케 했던 임진란(壬辰亂)의 참화(慘禍) 속에 백성(百姓)들은 왜적(倭敵)[일인(日人)]의 총검(銃劍) 앞에 무참(無慘)히 죽어야 했으며, 기후(其後) 36년간(年間)의 식민지생활(植民地生活)을 해야만 했다.

더욱이 북괴(北傀)가 도발(挑發)한 6·25 전란(戰亂)도 결국(結局) 남한(南韓)의 국력(國力)과 전투능력(戰鬪能力)이 미약(微弱)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남침(南侵)의 기회(機會)를 주지 않았던가 ……

그러므로 힘이 없는 민족(民族)은 역사(歷史)의 노예(奴隸)로 전락(轉落)하게 마련이다. 고금(古今)을 통(通)하여 힘이 없고, 용기(勇氣)가 없는 국민(國民)은 망국(亡國)의 비극(非劇)을 겪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現實)이다. 그러기에 힘이 없는 곳에 자유(自由)가 있을 수 없고, 강력(强力)한 군사력(軍事力)이 없는 곳에 평화(平和)가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것은 인류사회(人類社會)의 비극(悲劇)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제정치(國際政治)의 가혹(苛酷)한 현실(現實)을 어이하랴!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理想)과 환상(幻想) 속에 안일(安逸)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관념론자(觀念論者)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냉혹(冷酷)한 국제정치사회(國際政治社會)에서 자국(自國)의 이익(利益)만을 추구(追求)해 가는 엄연(儼然)한 현실(現實)을 우리는 직시(直視)하고, 이에 대처(對處)해 나가는 냉철(冷徹)한 통찰력(洞察力)을 가져야 하겠다.

오늘날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는 부강(富强)한 국가(國家)만이 떳떳한 일등국민(一等國民)의 행세(行勢)를 할 수가 있고, 또 부강(富强)의 가치관(價値觀)만이 오늘의 현실(現實)을 지배(支配)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약소국가(弱小國家)의 국민(國民)들은 멸시(蔑視)와 천대(賤待)를 받아야 한다는 오늘의 냉혹(冷酷)한 현실(現實)을 똑똑히 알아야 하겠다.

우리도 이제는 떳떳하게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행세(行勢)할 수 있는 국민(國民)이 되기 위(爲)하여서는 자립(自立)하려고 하는 강인(强靭)한 의지(意志)가 왕성(旺盛)해야 하고, 자위능력(自衛能力)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限)하여 자유국민(自由國民)의 자격(資格)은 주어지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反對)로 힘과 용기(勇氣)가 없는 국민(國民)은 자유(自由)를 쟁취(爭取)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자유(自由)마저 지키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유국민(自由國民)이 된다는 것은 결(決)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유(自由)를 누리고 지키는 데는 자제력(自制力)이 필요(必要)하기에 자유(自由)에는 한계(限界)가 있다. 자유(自由)에 대(對)한 양식(良識)이 없는 사람은 자기(自己)의 행동(行動)을 무조건(無條件) 합리화(合理化)하려고 한다.

이들은 입버릇처럼 「나의 자유(自由)」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유(自由)를 누릴 자격(資格)마저 없는 사람이다. 이들의 행위(行爲) 그 자체(自體)는 자유(自由)겠지만 결과(結果)에 대(對)한 책임(責任)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만용(蠻勇)이다.

우리의 각오(覺悟)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各自)가 자아현실(自我現實)을 추구(追求)해 가지만 국가(國家)의 번영(繁榮)과 공동체(共同體)의 발전(發展)을 위(爲)하여 창조적(創造的)이고, 건설적(建設的)인 방향(方向)으로 옳게 자유(自由)를 누리면서 행사(行使)해야 하겠다.

그러나 인간(人間)의 자유(自由)에는 정치권력(政治權力)과 같이 부패(腐敗)하기가 쉬운 속성(屬性)을 지니고 있다. 자제력(自制力)이 없는 자유(自由)가 사회생활(社會生活)에 범람(氾濫)하게 되면 질서(秩序)가 무너져 무정부상태(無政府狀態)로 전락(轉落)하게 마련이다. 해방직후(解放直後)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난립(亂立)한 정당(政黨)과 사회단체(社會團體)가 그랬고, 이승만(李承晩) 정권(政權)이 무너지자 하루에 50여(餘) 개(個) 단체(團體)가 거리로 뛰쳐나와 시가지(市街地)를 누비는 「데모대(隊)의 추태(醜態)와 만용(蠻勇)」을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자유(自由)가 범람(氾濫)하게 되면 무정부상태(無政府狀態)가 되고, 자유(自由)가 자제력(自制力)을 잃고 방향(方向)을 상실(喪失)하게 되면 방종(放縱)과 만용(蠻勇)을 낳는다. 이와 같이 자유(自由)에 대(對)하여 올바른 지식(知識)과 절제(節制)가 없다면 주어진 자유(自由)도 타락(墮落)하게 된다는 사실(事實)을 똑똑히 알아야 하겠다.

책임(責任)이 없는 자유(自由), 자제력(自制力)이 없는 자유(自由)는 끝내 자기(自己) 자신(自身)마저 부정(否定)하는 타락(墮落)된 행동(行動)을 가져다주는 것이기에 결국(結局) 자유(自由)마저 자멸(自滅)시키는 결과(結果)를 초래(招來)하게 된다.

이 세상(世上)에서 자유(自由)를 남용(濫用)하여 자기(自己) 나라를 파멸(破滅)시킨 어리석

은 국민(國民)들도 있다. 예(例)로써 월남국민(越南國民)들의 난동(亂動)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다.

우리 인간(人間)에게 자유(自由)는 소중(所重)하지만, 결(決)코 만능(萬能)은 아니다. 자유(自由)에 대(對)한 구체적(具體的)인 표현(表現)은 공동체(共同體)의 이익(利益)을 추구(追求)하는 사랑 그 자체(自體)가 아니겠는가?

큰 뜻에서는 국가(國家)에 대(對)한 사랑이고, 작게는 부모형제(父母兄弟)와 처자식(妻子息)에 대(對)한 사랑이라고 생각해 본다. 바꾸어 말하면 풍요(豊饒)로운 복지국가(福祉國家)를 건설(建設)하여 국민(國民) 모두가 행복(幸福)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사랑이 넘쳐흐르는 복지국가(福祉國家) 건설(建設)을 위(爲)하여서는 국민(國民) 모두가 안심(安心)하고 산업(産業)에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국토(國土)를 수호(守護)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국군장병(國軍將兵)들은 몸과 마음을 바쳐 국토(國土)를 수호(守護)해야 하고, 국민(國民)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보호(保護)하기 위(爲)하여 밤낮없이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事實)을 국민(國民) 모두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전후 세대(戰後 世代)에게 바란다

김 종 권 (金鍾權)
〈보성고교 교사〉

나는 6·25 서른세 돌을 맞아 우리들이 체험한 뼈저린 전화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또 한 번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북한 공산집단의 만행을 우리 힘으로 분쇄할 것을 한 번 더 맹세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조국 통일의 큰 사명이 우리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음을 명심하며 이 글을 쓴다.

전후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체험한 한국 전란의 처참한 체험은 못 했지만, 그 역사적 사실과 교훈만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자라나는 국민학생에게 물어봐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0분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이 일어난 일, 유엔군이 창설되고, 그 16개국이 참전하여 양대진영의 대전으로 확인된 일. 용감한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공산군을 섬멸시킬 무렵에 중공군이 쳐들어와서 1·4후퇴를 한 일. 피어린 전쟁은 3년 동안 계속되어 국토를 피로 물들인 일. 1953년 7월 27일 아침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전쟁이 휴전상태로 마무리된 일쯤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싸움으로 150억 불의 전비를 썼고, 33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국토가 거의 초토화되고 귀중한 문화재가 수없이 잿더미가 되고. 60만 채의 집들이 파괴되고, 45%의 공업시설이 가동 불가능 상태가 되고, 20만 명의 전쟁미망인과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생겼다.

그뿐만 아니다. 정신적으로는 평화를 애호하는 평온한 심정에 동족상잔의 처참한 상처를 남기고, 물질적으로는 먹고 입고 살던 삶의 보금자리마저 허무한 가시밭으로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인륜 도덕의 값진 뿌리를 암흑 상태로 뒤흔들어 놓고, 문화적으로는 그 고귀한 보물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은 한편, 외래 문물이 분별없이 흘러들어 온갖 퇴폐풍조가 조성되고, 인간적으로는 윤리 면으로 세대 갈등이 조성되고 대인 면으로 불신 풍조가 만연되어 선과 악에 대한 사상적 가치관마저 혼란되는 극악한 실상에서 허덕이는 등 …… 이와 같은 현실에 나라와 겨레와 가정과 사회에 험악한 폐충이 팽배하여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할 슬픔과 절망의 도가니 속에서 헤매며 자신의 인생마저 저주하는 실체를 체험했다.

이 몸서리치는 전쟁은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맞붙어 피를 흘리는 싸움은 멎었으나 국토가 양단되고 민족이 분열된 비극인 상태는 38도선과 휴전선이라는 변동이 조성되었을 뿐 별로

다름없는 꼴로 굳어지고 북한에서 공산도배들이 민족적 참화를 조장하는 만행은 일층 강화되고 말았다.

아아, 슬픈 조국의 역사여, 어쩌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시련이 이다지도 가혹하단 말이냐. 우리는 이러한 처지에서 온갖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참고 견디며 일어섰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 한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과 끈질긴 의지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가다듬고 전화로 입은 뼈저린 상처를 씻으며 새 꿈을 길렀다.

겨레의 꿈은 굳건한 힘으로 다져가며 보다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여 다시는 북한 공산집단의 침해를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힘으로 북괴의 야망을 분쇄하자고 일어섰던 것이다. 전후 세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나고 자라고 배우고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른세 해가 흘렀다.

보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얼마나 발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세계적으로 어떤 처지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지난날 그 비참한 현실에서 그 어느 누가 오늘과 같은 빛나는 나라를 예상하였겠는가?

지금 우리는 어제가 옛날과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가끔 우리나라가 국토가 양단되고 민족이 분열된 비운 속에서 한국 동란과 같은 일대 시련을 체험하지 않고 살았다면 어떤 상태가 전개되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때 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차마 형언할 수도 없는 공포와 끔찍끔찍한 상념들이 골머리를 들볶는다. 그 핵심을 잡아 말한다면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현실에서 세계적으로 빛나는 이름을 떨치게 되기가 어렵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상 때문이다.

그럼 오늘을 맞아서 나 개인의 뜻이지만 전후 세대에게 바라는 말 몇 가지를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는 한국 사람임을 자랑삼자, 그리고 뜻한 일을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 왜냐하면, 긍지와 자부심은 인생의 값진 기쁨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자랑한다. 그런데 선조들이 살아온 과거를 살펴보면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보다는 잔인무도한 외적들의 침해를 막느라고 전란의 도가니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피와 살과 뼈와 눈물을 강토에 흩뿌리며 슬프고 괴롭게 살아왔다. 하기야 역사 오랜 민족으로서 그 발전 과정에 타민족들과 교섭 투쟁이 없이 살아온 민족이 있으랴만, 우리나라처럼 외적의 침해로 많은 국난을 겪은 민족은 실로 드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역사를 남겼을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륙의 육교, 해양의 간교적 구실을 하는 한반도와 만주를 삶의 터전으로 잡고 살아서 항상 대륙으로부터 밀려 내려오는 세력과 해양에서 밀려 올라오는 세력의 충돌 지점이 되어 그 세력들의 변동이 조정될 때마다 그 풍파에 휩싸여 국난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외적들은 우리나라의 강토가 살기 좋은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침략적 야욕을 일으키는 강적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국정이 문란하거나 국방이 미약한 틈만 있으면 침략군을 일으

켜서 수많은 국난을 겪게 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성품은 인자하고 온순하고 선량하여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일단 외적의 침해를 당할 땐 그 강인한 의지와 슬기로운 지혜와 굴하지 않는 정신과 과감한 용기를 발휘하여 외적을 물리치고 국토와 민족과 문화를 수호하여 우리들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나라의 국토와 민족과 문화를 잘 지켜 통일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룩하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국난을 극복한 올바른 기운을 체득하여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꼭 이겨내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안으로는 국력을 기르고 밖으로는 국방에 힘쓸 것이다.

"천하의 비수검을 한데 모아 비를 매어 남만북적을 다 쓸어버린 후에 그 쇠로 호미를 만들어 강상전을 매리라."

이 시조는 국난 극복에 시달린 우리 민족의 염원으로 그 뜻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름없을 것 같다. 선조들의 거룩한 피를 받은 우리들이 어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삼지 않으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를 우리들이 왜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시킬 자부심을 갖지 않으랴?

둘째, 큰 꿈을 가지고 참되게 살자. 그리고 참된 이상은 인생의 값진 보람을 가져옴을 명심하자.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다운 일을 하는데 온갖 정성을 쏟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이기 때문이다.

삶의 목표가 뚜렷한 인생은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같은 꽃이라도 가꾸는 사람의 꿈과 뜻과 정성과 노력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진다. 높은 산을 오르려는 사람이 큰 꿈과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중도에서 주저앉게 될 것이고, 넓은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이 큰 뜻과 온갖 준비와 참된 노력이 없으면 정처 없이 헤매게 될 것이고, 값진 인생을 살다 가려는 사람이 자신의 분수와 맡아 할 일을 제대로 이룩하지 못하면 제구실도 못 하는 꼴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꿈은 인생의 열쇠다. 젊은이들의 꿈이 크면 클수록 삶의 앞길이 훤하게 트이고, 그 뜻이 참되면 참될수록 밝은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실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보람이 값질 것이다.

셋째, 인생의 일생은 한정된 것임을 알고 살자. 그리고 사람의 수명은 시간으로서 계산됨을 명심하자. 왜냐하면, 분초의 시간도 인생의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저 자연은 영원한 데 비하여 인생의 일생은 실로 짧은 것이다. 이 짧은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와 남, 어버이와 가정, 사회와 나라, 그리고 세상에 살다 간 자취를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분일초를 다투어 학식면이나 도덕면이나 내 몸과 마음을 잘 갈고 닦는 데 힘써야 하고 옳은 일이면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꼭 해서 삶의 본보기가 되고,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믿어지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인생의

일생을 한 나무의 뿌리, 싹, 꽃, 열매, 씨앗으로 비유할 때 젊은이들은 그 꽃봉오리라 하겠다.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뿌릴 밝은 앞날이 약속되는 것이다.

여기 가장 소중한 것이 힘이다. 더구나 요즘처럼 시각을 다투어 변천, 발전하는 세태에는 이에 적응할 수 있는 큰 힘을 기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 힘을 기르는 데 특히 유념할 점은 학식을 연마하는 데 있어서는 뜻을 세우고 좋은 책을 가려 공부하되 올바른 진리를 널리 알고 의심되는 점은 꼭 묻고 삼가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고 착실하게 실천하도록 힘쓸 것이다.

또 덕행을 닦는 데 있어서는 사람답게 사는 소양을 기르는 데 힘쓰되, 가정적으로는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옛말에 세상에 죄악이 삼천 가치가 있어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가 크다고 하였는데, 이 윤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같은 미덕으로 전승될 것이다. 그리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애가 조성되고 친척 간에 화목한 기풍이 충만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그 나라의 힘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고 잘 살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옳은 일을 하는 데는 용감하고, 공사의 사리를 분별하여 처신하는 데는 지혜롭고 민첩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선과 악을 가려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은 나와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을 명심하고 사람답게 사는 예의범절을 존중하고 서로서로 참되고 미더움을 삶의 신조로 삼고서, 잘한 일은 권장하고 잘못한 일은 바로잡으며 보다 밝은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착한 일은 작아도 하도록 힘쓰고, 악한 일은 작아도 하지 말도록 힘써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어두운 그림자가 없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건강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인자한 사람, 근면한 사람, 검소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은 힘이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학업도 효도도 충성도 봉사도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정직은 삶의 미덕이다. 정직한 사람은 사리사욕에 물들지 않고 하는 일이 공명정대해서 누구에게서나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자는 착한 근본이다. 인자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 근면은 삶의 재보다. 근면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인생의 성공은 일차적으로 근면한 생활에서 이룩되는 것이다.

검소는 행복의 열쇠다. 검소한 사람은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 알고, 하는 일에 충실하여 행복도 아끼면서 값진 삶을 누린다.

성실은 행동의 근본이다. 성실한 사람은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거짓 없는 참된 마음가짐과 진실한 행동은 자신의 뜻한 일을 잘되게 할 뿐 아니라, 남의 마음도 진정으로 감동하게 하여 아름다운 보람을 맺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군에 복무하는 여러분은 과거를 현실에 결부시켜 미래를 건설하는 지혜로움과 착하고 바른 심성을 펴는 사람다움과 불의를 무찌르는 용맹과 나라를 지키는 충성과 참된 미더움으로 훌륭하게 살아갈 것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끝맺는다.

고사성어

이조 인조 때 호조판서 김신국(金藎國)은 어느 날 중국에 바칠 은(銀)을 직접 감독하면서 봉하고 있었다. 때마침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 사람의 눈이 그곳으로 쏠리는 틈을 타서 회계를 맡은 산원(算員) 한 사람이 은 한 뭉치를 얼른 집어 품속에 넣고 변소에 가는 체하고 밖으로 나가, 다른 곳에 감추고 돌아와 제자리에 앉았다.

이것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판서 김신국(金藎國)만은 보았으나 아무 말도 아니하고 은(銀)을 싸고 있다가 돌연히 말하기를, 「내 별안간 가려움증이 일어나 견딜 수가 없으니 오늘은 그만두고 내일 하자」 하고 은을 한 방에 다 모아 놓고 은을 도적질한 산원(算員)더러 「이 은은 자네가 좀 지키게」 하고 나갔다.

은을 도적질한 산원(算員)이 가만히 생각하니 내일 은을 계산해서 부족이 나면 꼼짝 못 하고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게 되었으니 도적질해 낸 은을 가져다가 수를 채워 놓지 아니할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는 수 없이 훔쳐낸 은을 가져다가 수를 채워 놓았다.

이튿날 은을 세어보니 한 푼도 축이 나지 않고 제 수에 들어맞았다. 판서 김신국(金藎國)은 종시 그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얼마 후에 다른 일로 해서 그를 해직시켰다. 은도 축나지 않고 산원(算員)을 죄인으로 만들지도 않았던 것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와 공직자(公職者)의 윤리(倫理)〉

자아발견(自我發見)을 위한 자기(自己) 암시법(暗示法)

전 문 호 (全文鎬)

1. 암시(暗示)의 체험(體驗)

모든 점에서 부족함이 이를 데 없는 나 자신이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자못 쑥스럽게 생각되지만 내가 10여 년 동안 하사관으로서 예하 부대 생활을 해오면서 평소 느껴 왔고 현재도 절실히 느끼는 사실이라 한 번쯤 냉철히 비평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여러 장병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해 나가면서 매일 똑같은 업무를 계속하다 보면 지루한 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압박감(STRESS)이 쌓이기 마련이다.

어느 직장에서나 거의 모든 일은 중·상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사들은 대부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있고 중사들도 결혼을 한 사람이 많지만 거의 대다수가 미혼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어쩌다 보면 상급자에게 꾸중이라도 듣고 찝찝한 기분으로 퇴근하여 반겨줄 사람 없는 냉랭한 하숙방에 들어가 보니 재미라곤 있을 턱이 없다.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 하고 옷만 갈아입고 나온다.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동기생 모임이다 한 잔, 뭐다 한 잔, 뭐다 한 잔하다 보면 매일 같이 술이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술 마실 건수 찾기에 급급하다.

그중에는 용돈을 줄여 알뜰히 모은 돈으로 야간대학에 다니는 사람, 학원(서예, 기술, ETC 등등)에 다니는 사람도 더러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자기 자제(Self-Control)를 해야 하는가? 내가 경험한 바로는 자기 충동(Self-Motivation)을 일으켜 자기최면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실제 나 자신이 여러 번 체험했고 내가 데리고 있던 처남(송정중학교 1~2학년 동안)에게서는 그게 바로 기적이 아닌가 싶게 오직 1주일 동안 공부 시작 전에,

일(一). 나는 이달에는 평균 5점을 맹세코 올리겠다.

일(一). 나는 5시까지는 기필코 일어나겠다.

일(一). 나는 오늘 단어 5개는 죽어도 외우겠다.

일(一). 나는 오늘 수학 문제 5개는 풀어야만 잠을 자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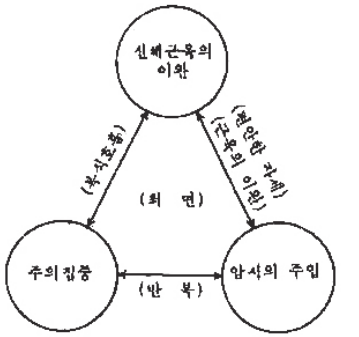
일(一). 나는 오늘 11시까지는 결단코 자지 않겠다. 라는 암시문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거울 속의 자기 눈을 응시하며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목소리)로 열 번씩 암송시켰다. 그랬더니 1학년 5월 말 중간고사 성적이 4월보다 총평균 23점이나 올라 진보상을 받아왔고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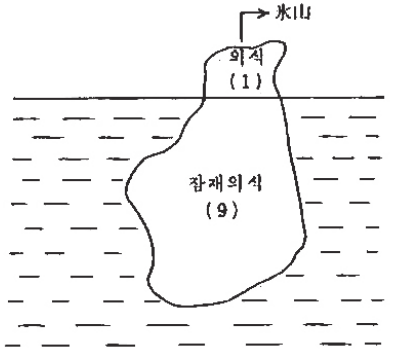
임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나오셨다. 그래서 지도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경험이 있다.

이 외에도 실제로 했던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한정된 지면으로는 전부 말씀드릴 수 없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자기 나름대로 암시 문구를 작성하여 큰 성과 있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다.

2. 자기최면이란?

전신의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한 가지 암시 문구를 계속 반복(Repeat) 주입하는 작용으로 다음 도표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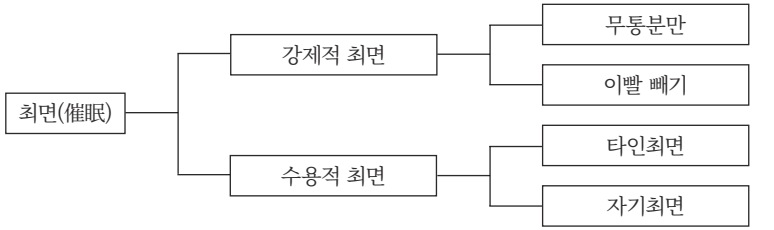


(1) 신체의 이완 : 온몸의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킨 편안한 자세로 한다. / 마치 물수건을 줄에 걸쳐 놓은 듯이 축 늘어진 상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쉬는 상태. / 잠들기 직전의 비몽사몽 간.

(2) 주의집중 :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한 가지만을 생각할 것.

(3) 암시주입 :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암시 문구를 반복하는 일. / 9라는 잠재의식 속에 반복적인 정신감응(Telepathy)을 주입한다. -테이프(Tape)에 녹음시키듯이 되어진다.

가. 최면(催眠)의 분류(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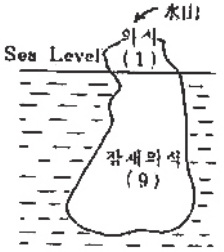
(자율훈련법) :본인의 의사 없이는 절대로 최면상태로 유도할 수 없는 최면.

자율훈련법 = 정신의학 + 심리학 + 생물학
(자기최면) 최 면 술

= 인체생리를 조종하는 초현대식 심리요법.

◎ 인생의 모든 것은 암시의 연속이다. 당신은 줄곧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고 있다. 만일 귀관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귀관의 정신은 그에 따라 행동하고 좋게 되거나 나쁘게 된다. 잘되거나 나쁘게 되는 것은. 그 체험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나. 의식과 잠재의식



: 수산(水山)이 움직이는 것은 수면상(水面上)에 나타난 부분(部分)이(의식(意識) 아니라 수면하(水面下)에 있는 잠재의식(潛在意識)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의식층
- ○ 이성적 행동
- ○ 의지적 행동
- ○ 논리적 사고

○ 의식층과 무의식층

무의식층
- ○ 감정적 행동
- ○ 충동적 행동
- ○ 직관적 행동

※ 이것이 바로 최면상태이다.

신체의 각 부분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긴장을 최대한 풀고 자율신경의 활동마저 억제하면 의식의 범위는 매우 좁아져 가며 기능도 거의 휴식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의식의 일부에 도사리고 있던 검열층도 별수 없이 이완된다. 그러면 암시가 무의식(잠재의식)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다. 우리가 행하면서도 못 느끼는 최면술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은 누구나 최면에 빠진다. 편안한 자세를 잡으며 신체의 긴장을 푼다. 그리고 정신도 푼다. 이렇게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이완되면 잠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잠에 들어가기 직전에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최면단계를 거쳐 가는 것이다. 「내일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 하고 걱정하면서 잔 것이 이튿날 깨어보니 시각이 4시였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잠들기 직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면상태로 잘 유도되었는데 마침 그때에 걱정한 것이 암시가 되어서 잠재의식에 주입되어서 이튿날 새벽 4시까지의 시간량을 계산하여 둔 잠재의식은 그만큼의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의식에 영향을 주어 잠을 깨우게 한 좋은 예인 것이다.

라. Telepathy의 효과

첫째로 귀관의 몸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완시키고 의식을 완전히 잠들게 한다. 그러고 나서 귀관의 의식을 천천히 수동상태(受動狀態)로 하고(모든 사고(思考)를 버린다) 귀관의 마음속을 보라. 말하자면 귀관의 물리적인 시선을 내부로 향하게 하고 마음의 영상을 스크린(Screen)의 초점에 집중한다. 이것은 의식의 심오한 내부에 펼쳐진 어떤 상상상(想像上)의 하얀 스크린으로 그 위에 텔레비전(TV)의 원리에 따라 외부로부터 와서 마음을 강하게 두들기는 영상의 섬광을 비추어 낸다. / 어느 완전한 조건 밑에 두고 감수성과 주의력을 집중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한, 장애에 방해됨이 없이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의 정신(精神)과 자유롭게 교신할 수 있다.

3. 자기암시(自己暗示)

가. 암시(暗示)의 종류(種類)

(1) 권위암시 : 약사(믿음)

(2) 다수파의 암시 : 매스컴(심리적 강제력)

(3) 집단암시 : 4·19혁명

(4) 전통적인 암시 : 미신

(5) 위광암시 : 지위, 명예, 풍채.

(6) 충격암시 : 충격(Shock)

◎ 광의암시(廣義暗示) : 유행 : 무의식적 암시.

선동
명령 } 유의식적 암시.
강의

◎ 협의암시(狹義暗示) : 음적암시(욕설, 저주) 무의식적 암시
양적암시(칭찬, 격려)

나. 암시(暗示)의 매체(媒體)

(1) 말(言語)
(2) 문자(文字)
(3) 도형, 형상, 회화
(4) 표정이나 동작
(5) 복장이나 장식
(6) 물품
(7) 환경
(8) 지위, 재력
(9) 평판, 명성
(10)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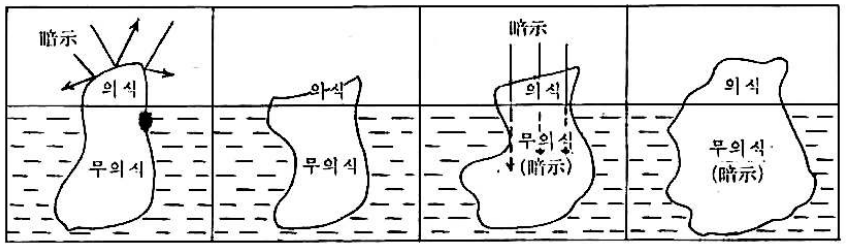
다. 암시(暗示)의 성질(性質)

(1) 암시는 Vector(방향과 강도를 가진 힘)이다.
(2) 암시는 강박선을 가지고 있다.
(3) 암시에는 저항이 수반한다.
(4) 피암시성 누진의 법칙.

의식적으로 Image를 만드는 것은 상상적이다. 선명한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위력은 자동적으로 목표에의 달성으로 돌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상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만들어 내는 위력을 갖고 있다. 즉 인간은 상상의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상상의 선택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상상력은 창조적 활동의 모든 분야에 그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즉 예전의 습관을 버린다거나 또한 무엇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할 때도 이 상상력을 발휘하면 효과가 크다.

필(必)히 성공(成功)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어떠한 방법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 암시는

라. 암시(暗示)에 의한 무의식(無意識)의 변화(變化)



1. 의식(意識)이 암시(暗示)에 저항하여 반발하고 있는 상태.
2. 자기최면에 의해 의식작용을 약화시키는 상태.
3. 암시를 주입하는 상태.
4. 각성(覺醒)상태로 돌아가도 암시가 잠재의식에 남아 있는 상태.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하나이다. 그것은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과의 두 방향으로 똑같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어서 이 힘을 어느 것에 향하게 하는가는 내 자신의 생각 하나로 결정된다.

마. 자기암시법(自己暗示法)(활용문구(活用文句)

(1) 오늘은 내 일생(一生)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2)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수행한다.
(3) 옳은 일이라면 남보다 앞서 나가라.
(4) 남의 좋은 점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5)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성공이 이루어진다.
(6) 자기 충동(Self-motivation)을 일으켜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멋이 있다 …… etc.」

바. 자기암시어(自己暗示語)를 만드는 법(法)

(1) 길어서는 안 된다 : 되풀이하는 말이므로 짧고 간결해야 한다.
(2)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 한 암시 문구에 한 가지씩만 정한다.
(3) 추상적인 것은 안 된다 : 추상이란 것은 의식의 작용이기 때문.
(4) 원대한 것은 좋지 않다 : 나는 50세까지는 내 집을 짓고 싶다. (X)나는 이달에도 3,000원을 저축하겠다. (○)

(5) 희망적인 표현은 좋지 않다. : 「~ 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은 힘이 약하다.
(6) 구구한 설명은 필요 없다.
(7) 약한 암시보다는 강한 표현이 좋다.
(8) 가능하면 동시에 영상이 눈에 보이는 듯한 것을.
(9) 감정을 수반한 무드(mood)가 있는 것을.
(10) 우월감을 가질 것.
(11) 좋은 연상이 나는 것을.
(12) 전혀 모르는 게 아닌 알고 있는 것. 경험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문구를 작성한다.

사. 자기암시를 실시할 때 주의점

(1) 끈기 있게 반복한다.
(2) 긍정적인 방법을 쓴다.

ex) ◎ 결점을 고친다. (X)
(-암시) (+암시)
◎ 8시까지 늦잠을 자지 않겠다. (X)
(-암시) (+암시)
◎ 6시 30분까지 맹세코 일어나겠다. (O)
(+암시) (+암시)
◉ (- 암시) + (+ 암시) = (X)
(+ 암시) + (+ 암시) = (○)

(3) 적극적인 암시를 활용한다.
(4) 지념(持念)을 갖는다. : 바람직한 관념을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해 나가는 것.반대의 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여지를 주지 않도록 빠른 말로 자기암시를 한다.
(5) 마음의 긴장을 물어야 한다. : 포근한 자세를 갖도록 한다.

아. 암시가 주입되었을 경우에 심리변화의 과정

제1단계 : 암시를 부정 비판한다(??, 그렇지 않다)
제2단계 : 암시에 의문과 동요를 보인다(?. 그럴까)
제3단계 : 암시에 심리적 접근을 한다(?. !. 그럴지 모른다)
제4단계 : 암시를 확신한다(!, 그렇다)

제5단계 :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공개한다(!, !, 틀림없다)
(1) 인간은 타성(惰性)의 동물(動物)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이 주입될 경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ex) 어떠한 세뇌공작(洗腦工作)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부정한다.
(2) 그러나, 그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가지고 그 공작을 반복하면 심리적(心理的)으로 다소의 동요가 생긴다.
(3) 이것을 다시 반복하면 점점 비판적 기분이 약화되어서 그 사람으로부터의 암시된 공작의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4) 그다음에도 계속 되풀이해서 암시가 반복되면 그것을 믿기 시작한다.
(5) 그 상태가 조금 지속되면 결국 하나의 행동(行動)이 형성됨으로써 그 공작을 믿고 호응하게 되는 것이다.

자. 자기암시(自己暗示) 시행십칙(施行十則)

(1) 정신(精神)의 집중(集中) : 최면상태(催眠狀態)이면 더욱 효과적(效果的)
(2) 끈기와 반복(反復) : 성과(成果)는 반복 횟수와 시간에 정비례한다.
(3) 된다는 신념(信念) : 절대로, -반드시, -꼭 -이라는 신념.
(4) 적극적인 사고력(思考力) : I Will, I Can
(5) 一시일사(一時一事)의 원칙(原則) :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념(執念)
(6) 일정(一定)한 시간(時間)의 지념(持念) :빠른 말의 자기 암시법
(7) 심신(心身)의 이완(弛緩) : 긴장을 푼다(슈베르트의 음악감상)..
(8) 긍정적(肯定的)인 방향(方向) : + 암시 문구를 연구
(9) 사고(思考)의 맥동(脈動) : 깊은 심호흡
(10) 실감(實感)과 실천(實踐) : 자기암시는 실감해야 한다.

차. 거울을 이용(利用)하는 자기암시법(自己暗示法)(Instant 선(禪))

(1) 거울 앞에 선다. 몸 전체가 다 보이면 매우 좋다 / 상반신이 보일 정도라도 좋다.
(2) 조신(調身) :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한다(차려 자세).
(3) 조식(調息) : 3~4회(回) 심호흡(深呼吸)을 한다.
(4) 조심(調心) : 마음을 굳게 먹는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기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힘과 결의가 용솟음치게 한다.
(5)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눈동자를 응시하면서 욕구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한다. 이때 욕구 사항을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좋다. 그

러면 자기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며 자기의 말이 귀에 남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어도 하루에 3~4회(回)씩 행(行)한다.

카. 취침(就寢) 시(時)의 암시(暗示)

내일 아침 충분한 휴식과 안면에서 상쾌하고 자신에 넘쳐 눈을 뜨리라.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쉽사리 자신을 갖고 해결할까 알리라. 그날의 각 한순간을 즐기리라. 매일 좋은 일이 올 것을 기대한다. 매 순간은 영겁(永劫) 속의 한순간으로써 매 순간은 영겁 속의 한순간보다는 선한 것이다. 나는 포근하고, 맑고, 평화스럽다. 자신을 가지고 더욱더 풍부한 영광의 생애를 누려 보자. 나는 나 자신에 약속한다.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속에 있는 신의 힘을 인정할 것을,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말할 것을, 인종과 신앙의 어떤 것을 묻지 않고 모든 사람들 속의 신성(神性)과 아름다움을 인정할 것을, 내일에 더 좋은 날을 기대하여 그것에 대비할 것을 ……

「나는 오늘 일을 마쳤다.

내일의 계획도 서 있다.

자! 이제부터 잔다.」

평화스럽게 자고 기쁨과 더불어 잠에서 깨도록 하자. 나는 언제나 풍요와 건강과 자유 안에서 산다. 다만, 오늘이 있을 뿐이다. 내일은 없다. 「지금」의 생활, 순간순간을 바르게 사는 「지금」, 「지금의 성(誠)」-인생의 참뜻은 실로 이것밖에 없다.

타. 마음의 창(窓)을 열라.

(1) 대체 자기는 무엇을, 왜? 고뇌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라.

(2)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 보아라.

(3) 무엇을 하여야 잘할 것인가를 결정하라.

(4) 결심한 대로 곧 실행에 옮겨라.

매일 모든 점에서 보다 낫게 되어 간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면 상상력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나는 자동적으로 보다 낫게, 그 위에 더욱더욱 보다 좋은 건강으로 되어 진다...

◎ 즐거운 분위기를 갖자 …… 대범한 마음을 갖자 ……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자 …… 진지한 비판을 자진하여 듣자 …… 타인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자 ……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사귀자.

파. "오늘만은"(내가 했던 암시어)

"오늘은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 안은 설명을 위한 설명).

(1) 오늘만은 행복하게 지내리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여 지리라고 결심한 만큼은 행복한 것이다. 사람의 행복은 그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 외부의 사항은 아닌 것이다.)

(2) 오늘만은 몸조심을 하리라(운동을 하고 몸을 아끼고 영양을 취하기로 하자, 혹사를 하거나 내 몸을 무시치 않으련다).

(3) 오늘만은 자신의 마음을 굳게 가지리라(무엇이든 유익한 것을 배우며 정신적으로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겠다. 어떤 노력, 사고 집중을 필요로 하는 책을 읽어 보자).

(4) 오늘만은 3가지 방법으로 내 영혼을 운동시키리라(① 남모르게 유익한 일을 하자. ② 수양을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보자).

(5) 오늘만은 유쾌하게 보내리라 (가급적 활발하며 조용히 얘기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남을 경멸하거나 비평치 않고 무슨 일이든 꾀부리지 않으며 항상 미소를 머금으리라).

(6) 오늘만은 오늘 하루로써 살아보리라(삶의 온갖 문제를 앞에 놓고 한꺼번에 덤벼들지 않겠다)

(7) 오늘만은 하루의 프로그램(Program)을 갖자(매시간 해야 할 일을 써 두기로 하자. 설령 그대로는 되지 않을지언정 해 보련다. 그런다면 「재촉」과 「주저」라는 해독을 제거할지도 모를 테니까).

(8) 오늘만은 반 시간이라도 혼자서 조용히 휴식할 시간을 가져 보리라(그동안에 때로는 석가를 생각해 보자).

(9) 오늘만은 두려워하지 않으련다(특히 행복해질 것, 아름다움을 즐길 것, 사랑 앞에 겁내지 않을 것이며 사랑하는 자들이 또한 나를 사랑해 주리라고 믿어 보리라).

(10) 오늘만은 나 자신을 사물에 적합 시키도록 하리라(사물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는 않겠다. 내 입속의 내 혀도 내가 깨물지 않았던가).

4. 긍정암시(肯定暗示)와 부정암시(否定暗示)

가. 긍정암시(肯定暗示)

'사막(沙漠)의 여우 롬멜 Killer 몽고메리('76년(年) 3월(月) 5일자(日字) 신문인용(新聞引用))'

1942년(年) 사령관에 취임한 그는 주요 작전 계획을 최전선에 배치된 트레일러(Trailer) 안에서 짜곤 했는데 북아프리카의 지도와 롬멜 사진을 안벽에 잔뜩 붙여놓곤 "롬멜을 쳐부숴야 한다."고 말끝마다 소리 질렀다는 말은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다.

◎ 할 수 없다는 의사는 역행하는 힘이다. 전진이거나 역행 어느 쪽도 정확히 귀관이 요구하는 대로의 결과를 가져온다.

각각 귀관이 말하는 대로 틀림없이 귀관에게 따른다. 그러나 할 수 없다는 마음은 귀관에게 아무런 수확도 안겨 주지 않으나 한다는 의사는 무엇이나 가져다준다. 그렇다면 …… 잘 생각해 보아라.

◎ 나는 한다!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바로 그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는 의사력(意思力)은 귀관의 보일러(Boiler)에 승기를 만들어 내고 타성의 뚜껑을 걷어차 내고 해이해진 뇌세포에 모션(Motion)을 갖추게 하고 몸과 마음에 새로운 생명력을 약동시킨다.

나. 부정암시(否定暗示)

인간의 잠재의식은 그 대부분이 유아기에 형성된 것이다. 유아는 매일매일 암시를 감수(感受)하고 그 암시에 반응하면서 생활한다. 즉 유아가 말을 조금씩 이해하면서부터 유아는 주위 사람들이 주고받는 자기에 대한 인상을 아무런 비판 없이 자기의 잠재의식에 받아들인다. 그래서 가령 주위 사람들이 그 유아에게 나쁜 놈, 미련한 놈, 졸렬한 놈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반복하여 피력했다면 무의식적으로 그 유아는 그런 과소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그 과소평가는 부정적인 암시로써 그 아이의 성년기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년기의 이 부정적 암시의 작용을 모르고 있으며 이 부정적 암시에 의한 파괴적인 힘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도 거의 없는 것이다.

다. 자문자답(自問自答)

일(一). 나는 장래를 걱정하거나 요원한 피안(彼岸)의 마법의 장미꽃밭을 동경한 나머지 현실을 도피하려 하지는 않는가?

일(一). 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함으로써 현재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일(一). 매일 아침 오늘을 파악하리라. 오늘이라는 24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리라고 결심하고 있는가?

일(一). 오늘에 산다는 결심으로 인생으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보람) 거둘 수가 있는가?

일(一).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할까? 내주? …… 내일? …… 오늘? …… 아니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라. 나의 욕구(欲求)를 정확(正確)히 알아라.

무엇을 달성하려 해도 그 초석이 되는 것은 그 인간에 의해서 강력히 소원 되는 욕구인 것이다. 이것은 우선 출발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생명 속에서도 자기표현 또는 자기 전개의 무한의 자극인 것이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함을 알고 있는 사람

은 거의 없고 자기가 생명에 의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려 깊이 명확하게 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우리들이 이 눈(目)으로 수 없을 만치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실패하고 실의의 밑바닥에 있는 것을 보게 됨에 따라 대개의 사람들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날그날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니 자기를 알라! 나의 욕구를 알라! "올바르게" 나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참으로 느끼고 있는가? 어떤가? 그것을 알라.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바르게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라.

마. 목적물(目的物)의 시각화(視覺化)

대체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궁극적인 힘이 되는 것은 목표에의 정열이다. 어떤 결과를 구하는 마음이 참으로 절실하다면 그 바라는 결과에 도달하기란 거의 확실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이란 목적하는바 이외에는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오직 강한 염원으로써 그 목적만을 진실로 염원할 일이다.

◎ 지금까지 내가 배운 최대의 교훈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의 중요함이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면 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알아맞힐 일이다. 왜냐하면, 각인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이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달리함에 따라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 우리네 지식의 85% 이상은 시각적인 인상을 통하여 받아들여지고 있다. 명쾌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 요점을 생생하게 눈에 보이도록 묘사하고 생각을 시각화(視覺化)할 일이다. 인간이 어떤 사물을 생각할 때는 언어(言語)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Picture)에 의존한다.

바. 반복암시(反復暗示)의 효과(效果)

ex 1) 신념(信念)은 산(山)이라도 움직인다.

미국에 Bill이라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경영부실 탓으로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게 된 그는 매일같이 술로 보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곤드레가 되어 공원 Bench에 앉아 담뱃불을 붙이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의 눈에는 American Salon의 Neon-Sign이 비쳤는데 공교롭게도 American의 끝 네 글자 ican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들어왔다. (일종의 충격 암시였다). 그래서 취중에도 ican, ican 하고 계속 중얼거리다 보니 I can 즉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었다. 그때부터 눈만 뜨면 앉으나 서나 I can! 을 중얼거렸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과 신념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이 곧 재기의 원동력이 되어 다시 세계적인 대사업가로 성장했다 한다.

ex 2) 국민학교(國民學校)에 처음 입학하면 같은 단어를 열 번 또는 스무 번씩 써 오라는 숙제를 받는다. 어린아이는 그 말의 뜻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무조건 되풀이해서 쓰는 동안에 어느덧 완전한 이해와 습득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반복의 효과이다. 귀관은 이제 국민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자부하는가? 그래서 그런 식의 반복은 무의미하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귀관은 인생에 대해서 만년 국민학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공의 길을 개척하고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훈련을 반복하여야 한다. 끊임없는 인내와 끈기로써 …… 반복의 힘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졌는가를 귀관은 알고 있는가?

ex 3)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처용가에서도 잘 나타낸다. 성질이 난폭하기 그지없는 처용이의 방에 "참아라"라는 암시어를 온 방에 붙여놓고 암시를 주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댓돌 위에 신발이 두 켤레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아내가 외간 남자와 동침하는 줄로 판단하고 칼을 휘둘렀다면 자기 아내와 처남은 즉사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평소에 "참아라"라는 반복적인 암시를 받았었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지 않고 이불을 들춰 보니 아내와 처남이 자고 있어서 살인을 면했던 것이다. 이것도 암시의 반복식 주입 효과라 아니 할 수 없다.

ex 4) 김일성의 세뇌 교육

북한에서는 어릴 적에 탁아소에 들어가면 김일성이한테 아버지라 부르라고 한단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사탕을 주고 부르지 않으면 사탕을 주지 않으니까 그 어린 것들은 사탕을 얻어먹기 위해서라도 친아버지가 아닌 김일성이한테 아버지라고 부른단다. 어릴 때부터 김일성이한테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면 그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김일성이가 자기 친아버지인 줄 아는 것과 같이 암시의 반복주입은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ex 5) 미국에 있는 어느 Juice 회사에서는 깡통에 예쁜 아가씨들의 눈(Eye)을 그려 넣었다 한다. 그것은 눈(Eye/발음상으로는 주격인 I와 동일)과 깡통(Can)이라는 단어가 모여 I(Eye) Can! 즉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할 수 있다, 라는 신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경이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회사 측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을 정도로 번창하였다고 한다.

-긍정적(肯定的) 암시예문(暗示例文)-

병을 생각하면 병은 자라나고.
건강을 생각하면 병은 사라진다.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은 자라나고,
부유를 생각하면 가난은 도망간다.
고난을 생각하면 고난은 자라나고,
융화를 생각하면 고난은 떠나간다.

ex 6) 일본의 K 시(市)에 Y라는 무남독녀 여대생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대학교수였다. Y

양은 미모에다 성격도 상냥하고 학교에서는 우등생이었다. 화창한 어느 봄날 APT, 베란다에서 화장을 하려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기의 코가 좌로 15° 정도 비뚤어지게 보였다. 햇빛에 반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거울 면이 고르지 못한 탓이었는지 하여튼 코가 비뚤어지게 보였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비뚤어지게 보이는 건 사실이었다. 그때부터 좌절감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코가 바르다고 이야기해 주고 다른 거울을 가져다 보여줘도 이 아가씨의 눈에는 코가 바르게 보일 턱이 없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 암시를 자기최면에 걸려 버렸던 것이다. 걱정이 된 그녀의 부모님들은 백방으로 용하다는 약은 다 써 보았지만 허사였다. 실제로는 그녀의 코가 정상이었으니까 약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봐도 안 되니까 그녀의 부모님들도 지쳐서 이제는 체념해 버린 상태였다. 그런데 하루는 동료 교수의 소개로 T 시(市)에 있는 H 병원의 Doctor K 씨를 찾아갔다. 사실을 듣고 난 K 씨는 내 눈에도 아가씨의 코가 약간 비뚤어지게 보이는군 하고 아가씨의 코가 비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조하였다. 그때까지 자기의 주장을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유명한 Doctor가 자기 편이 되어 주니 이제까지 답답했던 가슴이 탁 터지는 것 같고 구세주라도 만난 기분이었다. 그런데 아가씨! 아가씨의 그 비뚤어진 코는 내가 처방한 대로 일주일만 약을 복용하면 바로 잡혀질 터이니 마음 푹 놓고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우선 아가씨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때부터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K 씨는 그런 방면에는 권위자라고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K 씨의 처방대로 시간 맞춰 열심히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 복용하면서 거울을 보니 코는 서서히 바로 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일주일이 지나 그녀는 다시 거울을 보았다. 그녀의 코는 바르게 보였다. 바로 잡혔다기보다는 그런 기분이었으리라. 기쁨에 넘쳐 한 보따리의 선물을 사 들고 다시 K 씨를 찾아가서 고맙다고 백번 사례하니 K 씨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가씨! 그 약은 소화제였다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암시의 종류에서 밝힌 바 있는 충격 암시와 K 씨의 권위에 의해 코가 바르게 잡힐 수(기분학상) 있었다는 권위암시다.

이렇듯 암시의 위력은 큰 것이며 아울러 고도로 발달된 현대의학에서도 의사는 환자의 병 자체보다는 마음의 병을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진짜 명의인 것이다.

5. 신념(信念)

가. 끈질긴 근성을 기르는 법

(1)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달성에 불타오르는 욕망을 가질 것.
(2)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실행에 옮길 것.
(3) 소극적이고 의기소침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굳게 마음의 문을 닫고 돌보지 말 것(모든

부정적 충고도 포함).

(4) 계획이나 목표를 수행하는 데에 그것을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맹우(盟友) 관계를 가질 것.

(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나) 작은 재산이건 큰 재산이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 권력, 명성, 세계적 평가를 얻는 방법이다.

(라) 나에게 주어진 돌파구를 보증하는 것이다.

(마) 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바) 나는 공포, 실망,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다.

나. 반복의 위력을 올바르게 활용할 줄 알아라. 그때야말로 무엇이든 귀관의 것이 된다.

-목표 달성에 이르는 5단계-

(1) I Want it! :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 성취하고 싶은 어떤 목표.

(2) I imagine it! : 원하는 것에 대한 상상(연상).

(3) I think it! :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생각(구체적인 계획).

(4) I believe it! :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자신감).

(5) I live in it! :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동화된 생활(실질적인 행동단계).

다. 신념(信念)이 강화(强化)되는 조건(條件)

(1) 무엇보다도 나의 욕구를 결정한다. 나아가야 할 방향,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Start)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2) 목적이 결정되면 이미 정신적으로는 이미 그것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고 행동한다.

(3) 그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몰두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획수정이나 새로운 계획을 첨가할 경우엔 방향 전환의 영감(Inspiration)이 강화되도록 어떠한 주저, 회의, 의혹도 제거한다..

(4) 일반적인 실패에 봉착할 경우 자기의 신념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Test)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본다. 그리고 어떠한 실패는 시험 기간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로 간주한다. 즉 실패라는 것이 성공을 위한 당연한 전조(轉調 / Modulation)로써 받아들이는 것이다.

(5) 나의 신념이 부정적인 것에 유린당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될 경우란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나의 마음가짐에 의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부정적인 침략자의 도전

을 일소시키도록 노력하고 끈기 있는 투지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도전의 극복은 비싸게 얻어지는 것이라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신념의 힘이 발휘되도록 유효한 방법을 도입시킨다. 명확한 목표를 문장으로 써서 일상적으로 명상하고 읽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7) 가능한 한 명확한 나의 대 목표에 긍정적인 대상을 선택한다. 나에게 동조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신념이 행동으로 발전되지 못할 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매일 신념의 변화를 점검(Check)하여 본다.

6. 자아발견(自我發見)

가. 자아(自我)의 발견(發見)(유일성(唯一性)과 일회성(一回性))

자아(自我)란 무엇이냐?

"나"다.

"나"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것이요, 한 번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존재(存在)다. 유일성과 일회성은 자아의 첫째가는 속성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다. 일생일사(一生一死)는 생명(生命)의 철칙(鐵則)이다. 우리는 두 번 나서 두 번 죽을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생활한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한 번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한없이 소중하고 존귀하다. 우리는 여러 권의 책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벌의 양복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생명을 가질 수는 없다. 언제나 하나가 문제요, 각자의 자아가 문제다.「나」 하나를 바로 일으켜 세우는 데서부터 전체가 바로 일어날 수 있다. 유일성과 일회성을 가진 자아의 존재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나. 자기관리(自己管理)

(1) 자기 자신을 언제나 유쾌하게 해야 한다 :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유쾌해지는 생각을 해야 한다.

(2) 널리 교제를 해야 한다 : 자기보다 ↑ Level.

(3)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 매사에 동작 분석을 하라.

(4) 욕망을 가져야 한다 : 높이 겨누지 않으면 높게 맞출 수가 없다.

(5) 건강한 체력을 만들어야 한다 : 빠삐욘을 생각해 보라.

(6) 자기 계발을 해야 한다. :

○ 과거의 일은 잊어버린다.

○ 항상 웃음을 띤다.

○ 유모어가 있는 사람과 교제한다.

○ 마음을 크게 갖는다.

○ 작은 일에는 구애되지 않는다.

◎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무래도 불가능하다」라는 관념이 고착되는 경우와 「힘껏 하면 된다.」라는 관념이 고착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가 행동으로 나타낼 때는 큰 차이가 생겨 그 사람이 성공 가부를 결정짓게 된다.

다. 자신(自信)을 붙게 하는 공식(公式)

나에게는 인생의 최대목표를 달성시킬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참고 끈질기게 목표가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버틸 작정이다. 나는 약속한다. 절대로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목표 관철을 수행할 것을 맹세한다.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곧 외계(外界)를 통하여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매일 30분씩 정신 통일을 위하여 내가 바라는 인간상을 계속 생각한다. 그리고 그 착실한 모습을 내 마음속에 새겨둔다. 나는 자기암시의 원리를 통하여 내가 마음에 그리고 있는 목표가 어떠한 일을 하면 달성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10분씩 자신을 붙이는 일을 해 본다. 나는 내 일생의 주된 목표를 문장으로 분명히 적어 놓았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몸에 붙일 때까지 결코 중도에서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와 정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부(富)도 지위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작은 이익, 부당한 이익에 현혹되지 않는다.

라. 자기암시(自己暗示)를 위(爲)한 시(詩)

만일 귀관이 패한다고 생각하면 귀관은 패한다. 귀관이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귀관이 이기고 싶다고 마음먹더라도 귀관에게 승리는 오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귀관이 적당히 한다면 귀관은 적당히 패한다.

우리의 이 세계에서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되고 모든 인간의 정신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만일 귀관이 탈락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귀관은 그대로 된다. 귀관이 성공할 것을 생각하면 승리를 얻기 전에 반드시 된다고 하는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생의 싸움은 언제나 강한 사람 빠른 사람에게 승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만간에 승리를 획득하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념, 곧 굳은 신념 있는 사람인 것이다.

배우고, 알고, 일하라!

날카로운 통찰력을 길러라!

자동차의 속력을 높여라!

그것보다 제트(Zet) 항공기의 스피드(Speed)를 내라!

먼저 귀관부터 활력을 보여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간다. 귀관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신이 날 것이다. 귀관의 자력은 작용하고 귀관은 그 사람에게 호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누구 곁에 있으면 강한 자극을 받는다. 언제 만나도 떠받쳐 주는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그렇다! 귀관도 신념과 열을 갖고 몸 안에 있는 불 / 그것 / 을 태워라. 그러면 귀관의 주위에 진동이 일어난다. 그것이 모든 생명의 원리이며 창세 이래의 사실이다. 유(類)는 유(類)를 낳는다. 항상 호! 호! 호! 하고 되풀이하면 귀관은 잊지 않게 된다. 웃음은 웃음을 갖게 하고 선행은 선행을 부르고 돈은 돈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불러낸다. 이 사랑으로부터 귀관은 출발하면 된다. 그것은 틀림없이 활동을 나타낸다. 또 그것은 전파한다. 영겁의 인력의 법칙이 결코 어긋나는 일은 없다.

◎ 확대경으로 불을 일으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정확히 초점을 맞추어 태양광선을 한 위치에 집중시키면 거기 모이는 태양열로 대조물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 열이 높아지고 목적물이 타기 시작하기까지 확대경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그시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 계획하는 일, 말하자면 마음속에 그려진 영상(映像)도 그와 같이 지그시 그리고 힘 있게 잡고 있어야 한다.

7. 신념(信念) 있는 군생활(軍生活)

현대전(現代戰)은 고도(高度)로 발달(發達)된 과학전(科學戰)으로 속전속결(速戰速決)의 양상(樣相)을 띠고 있으므로 전쟁(戰爭)의 승패(勝敗)는 공군력(空軍力)에서 좌우(左右)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하히 제공권(制空權)을 장악(掌握)하느냐가 문제(問題)가 아니겠는가? 최신예전투기(最新銳戰鬪機)를 정비(整備)하고 최일선(最一線)에서 기장직책(機長職責)을 맡아 작전비행(作戰飛行)을 지원(支援)하는 나로서는 실(實)로 책임(責任)의 막중(莫重)함을 절감(切感)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군(軍)의 존재가치(存在價値)는 일단(一旦) 유사시(有事時)에 가장 신속(迅速)하고 정확(正確)하게 작전(作戰)에 투입(投入)되어 승리(勝利)를 거둘 때 비로소 진가(眞價)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조상(祖上)이 물려준 아름다운 내 조국(祖國), 내 부모형제(父母兄弟), 내 재산(財産), 그리고 나 자신(自身)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存在)하는 거니까. 그런데 매일(每日)같이 아무 생각 없이 시간(時間) 보내기 작전(作戰)으로 군(軍) 업무(業務)를 수행(遂行)한다면 결국(結局)에는 나 자신(自身)마저 지킬 수 없을 것이다.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자꾸나. 전우(戰友)야! 옛말에 평양감사(平壤

監司)도 제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강제(强制)로 시킨다고 하더라도 군대(軍隊)라서 별수 없이 하기야 하겠지만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일하는 사람도 못 할 노릇이지만 그 결과(結果)에 대(對)한 성과(成果)는 말하지 않아도 가(可)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오입(吾入)이란 말도 있다.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라는 말이다. 과연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겠다. 자기 분수를 알고 도리(道理)를 다하며 제 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남아(男兒)로서 국토방위(國土防衛)의 막중(莫重)한 임무(任務)와 책임(責任)을 짊어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나는 매일(每日) 아침 기상(起床)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整理)해 보곤 한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눈동자를 응시(凝視)하면서 이렇게 자문자답(自問自答)해 본다. 호(鎬)야! 나는 오늘 무엇을 계획(計劃)하였으며 마음의 준비(準備)는 되어 있느냐? 그래! 나는 오늘만은 완전무결(完全無缺)한 작전비행(作戰飛行)을 지원(支援)하겠으며 2건(件) 이상(以上)의 항공기(航空機) 결함내용(缺陷內容)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리고

(1) 순간(瞬間)순간에 충실(充實)하겠다.

(2) …… T. 0. 공부를 하겠다.

(3) 건강(健康)을 위(爲)해 담배 5대를 줄이겠다.

(4) …… etc.은 꼭 해내고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한다. 그렇다! 이렇게 개개인(個個人) 스스로가 자진(自進)해서 자기(自己)가 맡은 업무(業務)에 대(對)해서 좀 더 성실(誠實)히 계획(計劃)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實踐)하여 나가는 것이 곧 국가(國家)에 충성(忠誠)하는 길이요, 부모(父母)에 효도(孝道)하는 길이다. 그 길이 또한 나 자신(自身)을 실(實)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며 한반도(韓半島)의 통일(統一)은 우리에게 초음속(超音速)으로 달려들 것이다.

이 글은 망명(亡命) 반체제(反體制) 작가(作家)인 솔제니친이 82. 10. 23 대만(臺灣)의 타이베이 시립회관(市立會館)에서 "자유중국(自由中國)에 고(告)함"이라는 제목(題目)으로 연설(演說)한 내용(內容)의 전문(全文)으로서 자유중국(自由中國)의 월간잡지(月刊雜誌)인 "광화(光華)"(82.11월호(月號))에 게재(揭載)된 바 있다.

자유중국(自由中國)에 고(告)함

(솔제니친)

편 집 실

본인(本人)은 지난 33년(年) 동안 대만(臺灣)이 처(處)한 특이(特異)한 운명(運命)으로 인(因)해 전세계(全世界) 국민들의 관심(關心)을 끌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개국이 이미 공산주의(共産主義) 치하(治下)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국가(國家)들 중(中) 어느 한 국가도 자국(自國)의 주권(主權)을 계속(繼續) 유지(維持)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소련치하(蘇聯治下)의 크리미아는 외부(外部)의 지원(支援)이 없었고 신뢰(信賴)할 수 있는 전동맹국(全同盟國)들에 의(依)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곧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에 의(依)해 붕괴(崩壞)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中國)에서는 넓은 해협(海峽)이 가로놓인 덕택에 대만(臺灣)이 중화민국(中華民國)으로서 성립(成立)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여 년(餘年) 동안 대만(臺灣)은 전세계(全世界)에 대(對)해 끊임없이 "만일(萬一) 중국대륙(中國大陸)이 공산당(共産黨)의 손에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면 중공(中共)은 대만(臺灣)과 같이 고도(高度)의 발전(發展)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点)을 입증(立證)해 주었습니다. 현재(現在) 자유중국(自由中國)은 건설공업(建設工業) 및 국민복지(國民福祉) 등(等) 각(各) 방면(方面)에서 모두 괄목(刮目)할 만한 성과(成果)를 거둠으로써 "만일(萬一) 중국대륙(中國大陸)이 공산당(共産黨)의 손에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면 국가(國家)의 영향력(影響力)이 한 층 더 증대(增大)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点)을 입증(立證)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국민(世界國民)들로 하여금 이 같은 교훈(教訓)에 포함(包含)된 의미(意味)를 명백(明白)히 비교(比較) 인식(認識)함과 아울러 공산주의(共産主義)를 모면(謀免)한 사람들은 상당(相當)한 번영을 누리게 되지만, 공산국(共産國)의 치하(治下)에 놓인 사람은 오히려 수백만 명이 참사(慘事)를 당(當)하게 된다는 사실(事實)을 명백(明白)히 인식(認識)시켜야만 합니다. 소련(蘇聯), 폴란드 및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이 잔학(殘虐)한 행위(行爲)를 저질렀다는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은 이미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입니다. 중공

(中共), 월남(越南) 혹(或)은 북한(北韓)에 있어서도 수백만 명이 참사(慘事)를 당(當)한 기록(記錄)이 있습니다.

대만(臺灣)은 지금까지 다른 국가(國家)들에 의(依)한 최악(最惡)의 불공평(不公平)과 불평등(不平等)한 대우(待遇)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유엔이 회원국(會員國)의 지위(地位)를 박탈(剝奪)함으로써 치욕(恥辱)을 안겨 주었지만, 이를 참고 견뎌왔으며, 반면(反面)에 유엔은 이로 인(因)해 무책임(無責任)하고도 비(非) 효율적(效率的)인 국제기구(機構)로 전락(轉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現在) 제(第)3 세계국가(世界國家)들의 대부분(大部分)은 자유(自由)의 진가(眞價)를 모르는 미치광이와 같이 행동(行動)함으로써 압박(壓迫)의 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 세기(數世紀) 동안 서방세계(西方世界) 국가(國家)들은 자유(自由)의 진가(眞價)를 매우 잘 인식(認識)해 왔지만, 시간(時間)이 흐름에 따라 국민(國民)의 복지(福祉)가 향상(向上)되자 점점 더 자유(自由)를 소홀(疏忽)히 취급(取扱)하는 경향(傾向)이 있습니다.

또한 서방측(西方側) 국민(國民)들은 그들의 국가체제(國家體制)를 중시(重視)하고 있지만 이를 수호(守護)하기 위(爲)해 커다란 노력(努力)을 기울이는 데에는 등한시(等閑視)하는 경향(傾向)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방측(西方側) 국가(國家)들은 동구국가(東毆國家)들을 단지 자신(自身)들의 복지(福祉)만을 위(爲)해 거리낌 없이 내동댕이쳐 버렸습니다. 그 실례(實例)로 동맹국(同盟國)인 장개석(蔣介石) 정부(政府)에 대(對)한 지지철회(支持撤回) 등(等)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向後) 한 국가(國家)가 단지 목전(目前)의 이익(利益)만을 위(爲)해 다른 국가(國家)를 배신(背信)하게 될 것이라는 점(点)을 인식(認識)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特)히 공산당(共産黨)의 위협(威脅)을 느끼고 있는 서방측(西方側) 국가(國家)들의 대부분(大部分)은 현재(現在) "중공(中共)을 격분(激奮)시킬 가능성(可能性)이 있다"라는 우려(憂慮)로 인(因)해 대대만(對臺灣) 무기판매(武器販賣)를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事實)입니다.

현재(現在) 서방측(西方側)으로서는 대만(臺灣)의 입장(立場)을 이해(理解)해야 하는 것이 당연(當然)하지만 대대만(對臺灣) 무기판매(武器販賣)에 대(對)한 우려(憂慮)를 표명(表明)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중국(自由中國) 및 기타(其他) 아세아(亞細亞) 국가(國家)들이 위협(威脅)에 처(處)해 있다는 사실(事實)을 인식(認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實情)입니다. 실례(實例)로 최근(最近) 일본(日本)의 전수상(前首相)이 "대대만(對 臺灣) 무기판매(武器販賣)는 극동(極東)의 불안(不安)을 초래(招來)할 가능성(可能性)이 있다"라고 주장(主張)한 사실(事實)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보존(自己保存)"을 추구(追求)하려는 관념(觀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편의상(便宜上) "악의(惡意)의 공산주의(共産主義)와 선의(善意)의 공산주의(共産主義)가 존재(存在)한다."라는 신화(神話)를 창조(創造)해 냈으며, 중공(中共)을 "선의(善意)의 기질(氣質)을 지닌 평화수립자(平和樹立者)"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산주의(共産主義) 침략(侵略)에 대항(對抗)하여 생존(生存)할 수 있었던 한국(韓國)에서는 "사실상(事實上) 소련(蘇聯)은 북괴(北傀)와는 달리 한국(韓國)에 대(對)해 직접적(直接的)인 적대심(敵對心)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신화(神話)가 존재(存在)하고 있는데 이는 놀라운 사실(事實)입니다. 최근(最近) 한국민(韓國民)들은 중공(中共)과의 우호관계(友好關係)를 수립(樹立)하기 위(爲)해 최선(最善)의 노력(努力)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現在) 한국(韓國)에 망명(亡命)한 중공군(中共軍) 조종사(操縱士)를 대만(臺灣)에 인도(引渡)할 것인지의 여부(與否)를 놓고 고심(苦心)하고 있습니다.

대만(臺灣)에 대(對)해 특별(特別)한 관계(關係)를 맺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美國)입니다. 현재(現在)까지도 미국(美國)은 중공(中共)의 대대만(對 臺灣) 침공(侵攻)을 저지(沮止)하고 있는 유일(唯一)한 우방(友邦)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美國)이 대만(臺灣)에 대(對)해 신뢰(信賴)할 수 있는 우방(友邦)으로 계속(繼續) 남아 있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미 대만(臺灣)의 대미(對美) 신뢰(信賴)가 상실(喪失)되고 있는 것이 사실(事實)입니다. 미국인(美國人)들은 또한, 대만(臺灣)을 위험(危險)에 처(處)하도록 방치(放置)해 두거나 그것이 처(處)한 운명(運命)대로 놔두려는 세계(世界)의 일반적(一般的)인 추세(趨勢)를 따라가는 경향(傾向)이 있었습니다. 특(特)히 미국(美國)이 대만(臺灣)과의 외교관계(外交關係)를 단절(斷絶)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단지 중공(中共)이라는 공산주류국가(共産主流國家)를 동맹국(同盟國)으로 확보(確保)하려는 서방측(西方側)의 무모(無謀)한 기대(期待)를 그대로 답습(踏襲)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美國)은 최근(最近) 대만(臺灣)과의 관계(關係)를 축소(縮小)해가고 있으며 군사(軍事) 지원(支援)을 줄이는 한편(便) 대만(臺灣)이 필요(必要)로 하고 있는 원조(援助)를 거부(拒否)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美國) 내(內)에서는 역대(歷代) 미대통령(美大統領)에 대(對)해 대만(臺灣)을 포기(抛棄)할 것을 촉구(促求)하는 상당(相當)한 압력(壓力)이 가(加)해져 왔습니다. 어느 한 미대통령(美大統領)은 중공방문(中共訪問) 동안 중공측(中共側) 관리(官吏)들과 담소(談笑)하는 자리에서 "강력(强力)한 힘을 보유(保有)한 중공(中共)은 평화(平和)를 보장(保障)한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지금도 미국(美國)은 "강력(强力)한 중공(中共)"에 관심(關心)을 표명(表明)하고 있습니다. 특(特)히 향후(向後) 레이건 대통령(大統領)의 뒤를 잇게 될 미대통령(美大統領)들이 이 같은 입장(立場)을 계속(繼續) 고수(固守)해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保障)은 없는 것입니다.

미국(美國)은 고도(高度)의 복합적(複合的)인 사회(社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共産主義)에 동조(同調)하는 영향력(影響力) 있는 집단(集團)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개중(個中)에는 전제주의국가(專制主義國家)와 우의(友誼)를 위(爲)해 자유진영(自由陣營)을 버리는 단체(團體)도 있습니다. 그들은 중공(中共)의 위선적(僞善的)인 "평화통일(平和統一)" 제의(提議)를 환영(歡迎)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美國) 저널리스트들을 북경측(北京側)이 그들의 평화통일(平和統一) 약속(約束)을 지키려는 노력(努力)을 보이고 있다고 세상(世上)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이 이미 얼마나 많이 속여 왔는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차대전후(2次大戰後)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과 제휴(提携)했던 동구라파(東歐羅巴) 국가(國家)들이 당(當)했던 경험(經驗)은 아무런 교훈(敎訓)도 주지 못했습니다. 전후(戰後) 동구국가(東歐國家)들이 당(當)했던 일이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신저가 월맹(越盟)과 휴전협정(休戰協定)을 맺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對)해 "미국(美國)이 아무런 실수(失手)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술(記述)하는 아주 멍청한 미국기자(美國記者)도 있습니다.

만일 중공(中共)이 평화적(平和的)인 방법(方法)에 의(依)하여 통일(統一)을 이루겠다고 약속(約束)을 파기(破棄)하고 무력(武力)으로 대만(臺灣)을 점령(占領)한 후(後)에 미국(美國)이 다시 대만(臺灣)에 무기(武器)를 제공(提供)하여 도우려 한들 무슨 소용(所用)이 있겠습니까?

중공(中共)이 약속(約束)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망상(妄想)이 미국(美國) 유력지(有力紙)에 기사화(記事化)되고 있고 그 기사(記事)를 쓴 기자(記者)들은 자신(自身)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美國)의 영향력(影響力) 있는 단체(團體)들은 대만(臺灣)에 그 저의(底意)를 받아들이도록 압력(壓力)을 넣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結果的)으로 대만(臺灣)이 자발적(自發的)으로 자유(自由)를 포기(抛棄)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공(中共)은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을 원(願)하고 있겠습니까? 확실(確實)히 그들은 대만(臺灣)의 번성(繁盛)한 경제(經濟)를 집어삼키려는 야욕(野慾)을 갖고 있습니다. 20세기(世紀)에 발생(發生)되었던 모든 사건(事件)으로 미루어 볼 때 단견(短見)만 갖고 있는 바보들이나 대만(臺灣)의 경제·사회제도(經濟·社會制度) 나아가서는 군대(軍隊)까지도 그대로 유지(維持) 시킨 채 통일(統一)을 하겠다는 중공(中共)의 제의(提議)를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重要)한 문제(問題)는 대만(臺灣) 국민(國民)들의 노력(努力)의 산물(産物)인 경제적(經濟的)인 부(富)를 빼앗아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共産主義) 체제(體制)가 그들 노선(路線)에서의 어떠한 이탈(離脫)도 용납(容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공(中共)은 대만(臺灣)의 경제·사회적(經濟·社會的) 우위(優位)에 대(對)해 시기(猜忌)하고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공산주의(共産主義) 이외(以外)의 사회(社會)에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事實)이 중공(中共) 국민(國民)에게 알려지는 것을 용납(容納)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산주의(共産主義)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자유(自由)도 용인(容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막강(莫强)한 무력(武力)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不拘)하고 대만(臺灣)의 무기구입(武器購入)을 단절(斷絶)시켜 방위력(防衛力)을 약화(弱化)시키고 서서히 무력침공(武力侵攻)의 시기(時期)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中共)은 미국(美國)의 대만(臺灣)에 대(對)한 관심(關心)을 줄이기 위(爲)하여 중·소(中·蘇) 화해(和解)를 위(爲)한 협상(協商)을 개시(開始)하고 있습니다. 현실적(現實的)인 관점(觀点)에서 그 화해(和解)의 움직임은 믿을 수 없습니다. 중·소(中·蘇) 양(兩) 정부(政府)는 오랫동안 같은 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1923년(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소련(蘇聯)의 앞잡이인 그루셈베르그(일명(一名) 보로딘)가 중공(中共)의 혁명(革命)을 계획(計劃)하였으며, 또한 모택동(毛澤東)과 주은래(周恩來)를 공산당(共産黨) 내(內)에서 높은 지위(地位)에 오를 수 있게 한 것도 그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위협(威脅)에 직면(直面)해 있는 여러분들로서는 전부(全部)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잘 이해(理解)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위협(威脅)은 한국(韓國)에서보다 대만(臺灣)에서 더 잘 이해(理解)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韓國)의 젊은 세대(世代), 특(特)히 학생(學生)들이 공산주의(共産主義) 침략(侵略)의 악몽(惡夢)을 완전(完全)히 망각(忘却)한 채 현재(現在) 누리고 있는 자유(自由)가 불충분(不充分)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韓國)의 젊은 세대(世代)들도 만약(萬若) 한반도(韓半島)가 적화(赤化)되어 그들이 집단수용소(集團收容所)에 들어가야 하는 사태(事態)가 발생(發生)한다면 현재(現在) 누리고 있는 "불충분(不充分)한 자유(自由)"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며 재평가(再評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現在) 서방국가(西方國家)들은 마치 유행(流行)처럼 최전선(最前線)에서 공산주의(共産主義)와 대처(對處)해 있는 대만(臺灣)과 같은 국가(國家)들에 대(對)하여 방종(放縱)과 국가반역(國家反逆) 및 국가파양(國家破壞)에 가까운 정도(程度)의 절대적(絶對的)이고 폭(幅)넓은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실시(實施)할 것을 요구(要求)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만(臺灣)이 이에 구애(拘碍)받지 않고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논리적(論理的) 한계(限界)를 인식(認識)하여 공산주의(共産主義)에 대(對)한 투쟁(鬪爭)을 계속(繼續)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대만(臺灣)은 또 하나의 위험성(危險性)을 내포(內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만(臺灣)의 경제성장(經濟成長)에 따라 생활수준(生活水準)의 향상(向上)이 여러분들의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위협(威脅)에 대(對)한 경각심(警覺心)을 약화(弱化)시키고 있다는 사실(事實)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대만(臺灣)의 청년(青年)들로 하여금 노예(奴隸)가 되어 나약(懦弱)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만(臺灣)이 지난 33년(年) 동안 평화(平和)를 누려왔다고 해서 앞으로 3년(年) 이내(以內)에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침략(侵略)이 없으리라는 보장(保障)은 못 합니다. 대만(臺灣)은 조용하고 근심 없는 나라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전쟁(戰爭)의 위협(威脅)에 직면(直面)해 있는 군대(軍隊)와 같습니다.

현재(現在) 세계(世界)에서는 약소국(弱小國)에 대(對)한 배신(背信)은 예사로운 일이며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신(自身)들의 "힘"에 의존(依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에 의(依)하여 노예 상태(奴隸 狀態)에 놓인 국민(國民)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지배자(支配者)에 항거(抗拒)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希望)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대만(臺灣)을 "본토회복(本土回復)의 보루(堡壘)"라고 칭(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중공(中共)의 위협(威脅)으로부터 방어(防禦)하려 하지만 말고 본토(本土)에서 고통(苦痛)받고 있는 여러분의 동포(同胞)를 해방(解放)시키기 위(爲)해 적극(積極) 노력(努力)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現在) 믿을만한 우방(友邦)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世界)

에서 가장 위력적(威力的)인 동맹(同盟)을 보유(保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공본토(中共本土)에 있는 여러분의 10억(億) 동포(同胞)입니다. 본토(本土)에 있는 10억(億) 동포(同胞)가 여러분과 한마음이라는 사실(事實)은 여러분께 정신적(精神的)으로 큰 지주(支柱)가 되어 줄 것입니다. 얼마 전(前)에 중공군(中共軍) 조종사(操縱士)가 대만(臺灣)으로 망명(亡命)해 온 사실(事實)은 바로 10억(億) 동포(同胞)의 마음을 대변(代辯)하고 있습니다.

소련(蘇聯) 국민(國民)을 비롯하여 모든 피압박(被壓迫) 민족(民族)은 외부(外部)의 도움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을 것은 오직 자기자신(自己自身)의 힘뿐입니다. 세계(世界)는 기껏해야 피압박(被壓迫) 민족(民族)에 대(對)한 무관심(無關心)을 표시(表示)하는 데 그칠 것이며, 중공(中共)과 소련간(蘇聯間)의 전쟁(戰爭)을 은근(慇懃)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중국민족(中國民族)과 소련인(蘇聯人) 사이에 전쟁(戰爭)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국민(中國民)들과 소련인(蘇聯人) 사이에 상호(相互) 우호(友好)와 신뢰(信賴)가 존재(存在)할 뿐 어떠한 충돌(衝突)도 존재(存在)하지 않는다고 증언(證言)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양국(兩國)의 억압(抑壓)받고 있는 동포(同胞)들이 합심(合心)하여 그들의 공산주의(共産主義) 압제자(壓制者)들에게 항거(抗拒)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중공(中共)과 소련(蘇聯)의 양(兩) 지도층(指導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양국(兩國) 국민(國民)들 사이에는 상호(相互) 이해(理解)와 동정(同情) 및 우정(友情)이 존속(存續)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一部) 지도자(指導者)들이 양국(兩國) 국민(國民) 사이에 무익(無益)한 민족적(民族的) 적개심(敵愾心)을 만연(蔓延)시켜 우리의 눈과 귀를 믿게 하게끔 내버려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역사적(歷史的)으로 볼 때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은 일부(一部) 이상주의자(理想主義者)들의 소집단(小集團)에서 출발(出發)하여 잔인(殘忍)함을 무기(武器)로 싸우려는 의지(意志)가 부족(不足)했던 자유세계(自由世界)를 침식(侵蝕)해 왔습니다.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위협(威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持續)될지 또 앞으로 세계역사(世界歷史)가 어떻게 변(變)할지는 모르지만,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중공(中共)과 소련(蘇聯)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全世界)로 퍼져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一部) 국가(國家)들은 현재(現在) 공산주의(共産主義)를 경험(經驗)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지경(地境)입니다.

사실(事實) 중국(中國)과 소련(蘇聯) 양국(兩國) 국민(國民)은 그동안 너무 많은 고통(苦痛)을 받아왔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양국(兩國) 국민(國民)들은 이미 자신(自身)들의 해방(解放)과 자유(自由)의 회복(回復)을 위(爲)해 나아가기 시작(始作)했으며 반드시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에게 승리(勝利)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불쾌지수(不快指數)

1959년의 여름 이래 미국의 약 300개 도시에서는 일기예보 때에 불쾌지수(discomfort index)라 부르는 새로운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더위뿐만 아니고 습도를 가미해서 무더움을 표시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로서 쾌·불쾌(快·不快)를 잘 나타낼 수가 있다는 데에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1961년 이래 불쾌지수라고 하는 말이 유행적으로 쓰이게 됐다.

기온과 습구온도로부터 불쾌지수를 찾아내는 데에는 불쾌지수=0.72(기온+습구온도)+40.6의 식을 써서 계산한다. 불쾌지수가 70 이상이면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75 이상이 되면 반수 이상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80 이상이 되면,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 미국의 상황이지만, 한국인의 감각은 이것과 다소 다를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냉·난방에 따라 상당히 자유로이 기상 조건이 변경되므로 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쾌지수에 따라서 환경 결정론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며, 이것은 또 불쾌지수를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이기도 하다.

팀·스피리트 '83 참가
항공기(航空機) 소개(紹介)

윤 용 현 (尹龍鉉)

머리말

팀·스피리트 '83 훈련(訓練)에 참가(參加)한 미국(美國)의 최신예(最新銳) 전술기(戰術機)들의 성능(性能)과 제반 특성(特性)에 관(關)하여 잘 이해한다는 것은 한미연합작전(韓美聯合作戰) 체제(體制)를 수행(遂行)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미공군(美空軍)의 최신예(最新銳) 항공기(航空機)와의 합동작전(合同作戰)의 실시(實施)는 극동(極東)의 평화(平和)를 유지(維持)하는 데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특(特)히 이번 훈련(訓練)은 시나리오 없이 실전(實戰)을 방불케 하는 각종(各種) 군(軍)의 전개(展開)와 화력(火力) 시범은 놀라운 한·미 연합 방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代表的)인 전투기(戰鬪機)인 F-14(TOMCAT), F-15(EAGLE), F-16(FALCON), F-111과 전자전(電子戰)을 수행(遂行)하는 E-3A(AWAGS), F-4G(WILD WEASEL)기(機), 그리고 CAS(근접항공지원작전(近接航空支援作戰) 임무 시(任務 時) Tank Killer로 알려진 A-10(THUNDERVOLT)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紹介)하기로 하겠다. 이러한 항공기(航空機)들은 우수한 항공공학적(航空工學的) 기술(技術)이 적용됐을 뿐 아니라 고도(高度)의 전자장비(電子裝備)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욕심껏 소개(紹介)하기에 지면(紙面)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개괄적인 내용(內容)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투기(戰鬪機)

가. F-14(TOMCAT)

미국(美國)의 GRUMMAN사(社)가 미해군용(美海軍用)의 다목적(多目的) 제공전투기(制空戰鬪機)로서 개발(開發)한 것으로 1970년 12월 21일 최초(最初) 비행(飛行)하였다. 주임무(主任務)는 전투기(戰鬪機) 소탕을 위한 요격기로 항공기(航空機) 및 함정 엄호와 CAP(공중전투초계) 임무(任務)를 수행(遂行)하며 부수적으로 대지공격(對地攻擊)도 할 수 있다.

특히 F-14는 F-111B 와 같이 PHOENIX(AIM-54A) 장거리 공대공(空對空) 미사일을 6기(基)나 탑재할 수 있는데 이 PHOENIX 미사일은 현재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사정(射程)거리가 긴 미사일로 유도방식(誘導方式)은 능동(能動) Radar Homing이다.

F-14의 외견상(外見上) 특징은 공기흡입구(空氣吸入口)가 사각형(四角型)이고 수직안정판이 2개 있는 것으로 보아 F-15(EAGLE)와 유사하나 형태상 큰 차이점은 가변익(可變翼)이라는 점(点)이다. F-14의 가변익(可變翼)은 20도(度)에서 68도(度)까지이며 속도영역(速度領域)에 따라 변(變)하게 된다. 또한, F-14는 마하 0.8에서 마하 1.8로 가속(加速)하는 데 1.27분이 소요(所要)된다. 주요제원(主要諸元) 및 성능(性能)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제원(諸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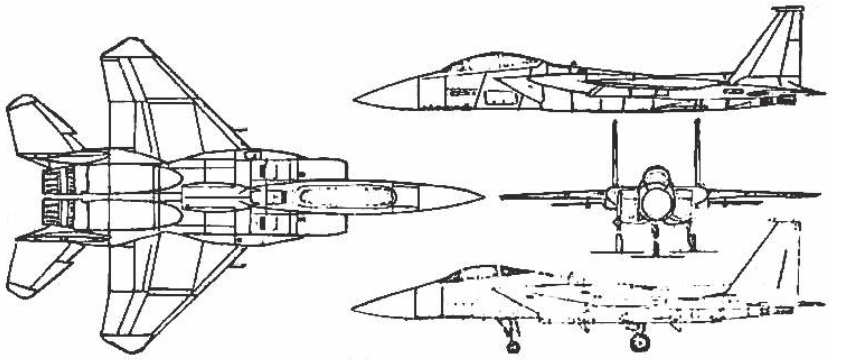
기폭(機幅) : 64/38(ft), 기고(機高) : 16(ft), 기장 : 62(ft), 엔진 종류(種類) 및 추력(推力) : 2개의 Pratt & Whitney TF30-P-412, 추력(推力)(41,800lb), 항공기(航空機) 자중(自重) : 38,930(lb), 승무원 : 2명(名), 후퇴각 : 20/68도(度).

◎ 성능(性能)

최대속도(最大速度) : M=2.4, 항속거리 : 1,000(N/M), 전투행동반경(戰鬪行動半徑) : 500(N/M), 실용 상승 한도 : 50,000(ft).

◎ 무장능력(武裝能力)

기총 : 20mm×1, 폭탄 : MK-82×14, MK-83×8, MK-84×4, 유도탄 : SPARROW×4, AIM-9×4, PHOENIX×6.



McDonnell Douglas F-15C Eagle single-seat air superiority fighter, with additional side view(top) of two-seat F-15B(pilot press)

나. F-15(EAGLE)

McDonnel Douglas사(社)가 제작(製作)한 미공군(美空軍)의 제공전투기(制空戰鬪機)로서 1972년 7월 27일 F-15A형이 최초(最初) 비행(飛行)하였고 73년 7월 7일 복좌기 F-15B형(型)이 출현(出現), 79년에 내부(內部) 연료 적재량을 증가한 F-15C, D형이 미 공군에 제공되었으며 80년 7월에 일본(日本)에 대당(臺當) 17,166,500만 불에 D형을 판매하였으며 82년부터 일본과 라이센스생산(生産)에 들어간 F-15J형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좌항공기로 기수(機首)는 뾰족한 편이며 사각형 공기흡입구가 기체(機體) 좌우 조종석 밑에 붙어 있다. 주익(主翼)은 델타형이지만 날개 끝이 절단되어 있고 수직안정판은 2개로써 엔진 Tailpipe 옆에 위치한다.

최대속도(最大速度)는 40,000ft에서 마하 2.3-2.5까지 가능하고 100ft의 저고도에서는 마하 1.2 속도로 비행 가능하다. 크기는 F-4(PHANTOM)보다 크지만, 중량(重量)은 가벼우며 음속순항속도(M=0.85～M=0.9)에서 M=1.5~1.6의 속도(速度) 영역(領域)까지 1분 이내에 가속(加速)된다(F-4는 1.5～2분 걸림).

특히 적의 저고도 침투기(500ft 정도)를 탐지하고 추적해야 하는 임무(任務)에 있어선 Look Down Radar를 가진 E-3A기(機)와 Shoot Down 능력(能力)이 우수한 F-15와의 합동작전(合同作戰)은 완벽한 제공태세(制空態勢)를 구축할 수 있다. F-15의 훌륭한 전자장비(電子裝備)로는 원거리에서 고속으로 나는 초저고도 소형 목표물도 탐지, 추적 가능한 Hughes사(社)의 APG-63 Pulse-Doppler 레이다, 그리고 AN/APX-76 적아식별기, 적의 레이다 신호를 자동적으로 전파방해하는 AN/ALQ-135 등의 성능은 놀랄만하다.

◎ 제원(諸元)

기폭(機幅) : 43(ft), 기장 : 64(ft), 기고(機高) 18.5(ft), 엔진 종류 및 추력(推力) : P&W F-100-PW-100, 推力 : 50,000(lb), 항공기(航空機) 자중(自重) : 28,000(lb), 승무원 수 : 1명(名), 후퇴각 : 45도.

◎ 성능(性能)

최대속도(最大速度) : 마하 2.5, 순항속도(巡航速度) : 마하 0.86, 항속거리 : 3,000(N/M), 실용 상승 한도 : 63,000(ft).

◎ 무장

기총 : 20m×1, 폭탄 : 17,000(lb), 유도탄 : AIM-9×4, AIM-7×4.

다. F-16(FALCON)

General Dynamic사(社)에서 제작(製作)한 제공(制空) 및 대지공격용(對地攻擊用) 경량전투기(輕量戰鬪機)이다. 단발 엔진을 채택한 이유는 훌륭한 기동성(機動性)을 발휘하도록 가볍

게 설계하였는가 하면 구조는 78%의 알루미늄 합금(合金) 외에 강철, 티타늄, 강력 플라스틱 등이 사용되었으며 Airframe의 최대 G 한계는 9G이다.

특히 Vortex Control, Variable Wing Camber, High-G Cockpit, Relaxed Longitudinal. Static Stability, Fly-By-Wire System 등 고도(高度)의 기술(技術)이 적용되었다.

Pratt & Whitney 회사(會社)의 Tubofan 단발 엔진으로 흡입구가 고정이다. 공기흡입구(空氣吸入口)가 동체 밑에 위치하므로 Gun Gas의 흡입을 피할 수 있고 전기동 영역을 통해서 Airflow의 교란을 가장 적게 받는다.

조종석 바로 뒤의 동체 중간에 공중 급유 장치가 되어있다. 그리고 좌석은 종래 13도에서 30도만큼 뒤로 젖혀졌다. 탑재 전자장비는 Westing-House사(社)가 제작한 4 mode 레이다로 Look Up, Look Down, Dog Fight, Auto의 Mode가 모든 상황(狀況)과 모든 고도(高度)를 Cover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INS, ILS, RHAW System 또한 갖추고 있다.

◎ 제원(諸元)

기폭(機幅) : 32(ft), 기장 : 48(ft), 기고(機高) : 16.5 (ft). 엔진 종류 및 추력(推力) : P & W F-100-PW-100, 추력(推力) : 25.000(lb), 항공기(航空機) 자중(自重) : 14,060(lb), 승무원 : 1명(名), 후퇴각 : 50도.

◎ 성능(性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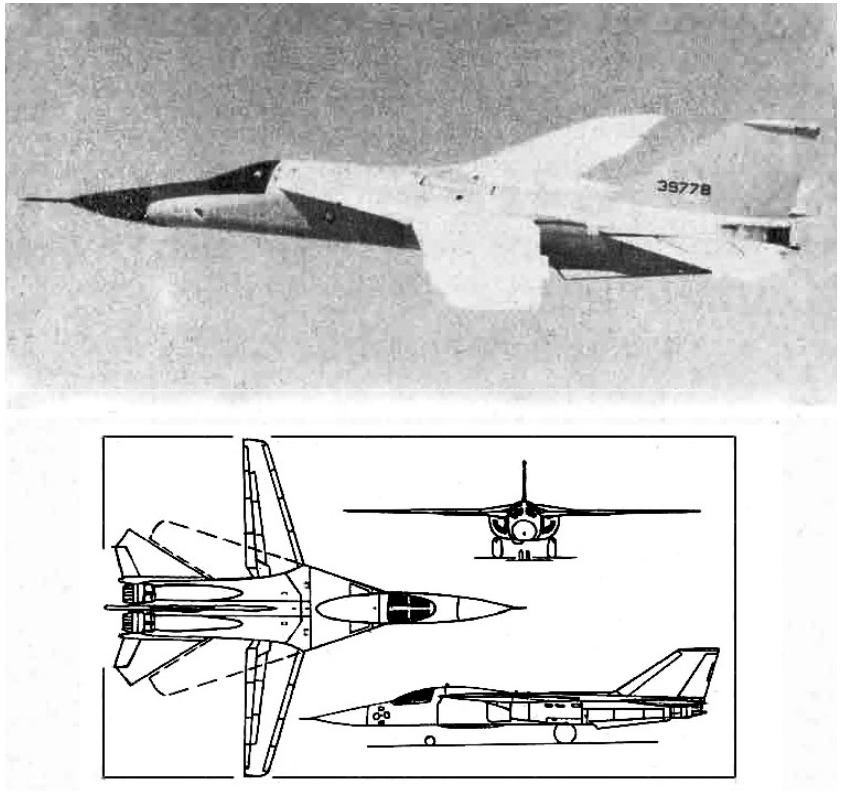
최대속도(最大速度) : 마하 2.02, 순항속도 : M=0.9, 항속거리 : 2,600(N/M), 전투행동반경 : 750(N/M), 실용 상승 한도 : 50,000(ft), 상승률 : 56,000(fpm).

◎ 무장능력

기총 : 20m×1(515발), 폭탄 : MK-82×12, 유도탄 : AIM-9×2.

라. F-111

General Dynamics사(社)에서 제작한 복좌가변익 전폭기(Fighter Bomber)다. 원형기 F-111 A형은 1964년 12년 24일 최초로 비행하였으며 이듬해 5월 18일,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해군용 F-111 B형이 AIM-54(PHOENIX), 미사일을 장착하고 출현하였다. 그리고 대지공격용으로 C형, 전자장비 MK-11로 개량한 D형, 공기흡입구를 개량하여 증속시킨 E형, 그리고 엔진 추력과 구조적 재질을 개량한 F형이 76년 11월에 선을 보였으며 B-1 폭격기 생산계획을 중지(中止)하고 순항미사일에 의존하는 전략개념으로 바뀌던 카터 대통령(大統領) 시절(時節)에 미 공군에서는 순항미사일에만 너무 크게 의존하는 데는 문제(問題)가 있다고 판단(判斷)하여 경제적으로 침투 능력을 구비한 기종(機種)을 검토(檢討)한 결과, 기존 F-111의 항속 능력을 연장하고 폭탄탑재량도 증가시킨 FB-111H 및 FB-111B/C를 개발, 미국의 전략공군사령부(SAC)에



General Dynamics F-111A variable-geometry fighter for USAF Tactical Air Command

배치하였고, F-111A 전투폭격기를 미국의 Grumman사(社)가 ALQ-99E Jamming 장치를 장착하여 EF-111 전술 Jamming기(機)로 개조하였다.

주익은 가변익이며 가변각은 16~72.5도까지이고 여압 Cabin이 장치되어 있어 Ejection 시(時) Capsule 채 낙하 된다. 또한, 자동 고도(高度)조절장치 및 자동폭격 조준장치가 되어있다.

◎ 제원(諸元)

기폭(機幅) : 70(ft), 기장 : 74(ft), 기고 : 17(ft) 엔진 종류 및 추력 : P&W, TF30-P-7, 추력(推力) : 42,000(lb), 항공기(航空機) 자중(自重) : 47,500(lb), 항공기(航空機) 자중(自重) : 47,500(lb), 승무원 : 2명(名).

◎ 성능(性能)

최대속도(最大速度) :마하 2.5, 순항속도 : 마하 1.2, 항속거리 : 3,300(N/M), 실용 상승 한도 : 60,000(ft), 전투반동반경 : 800(N/M)

◎ 무장

기총 : 20mm×1, 폭탄 : 750(lb)×4, NBOMB×6, 유도탄 : SRAM×6.

2. 전자전기(電子戰機)

가. E-3A(AWA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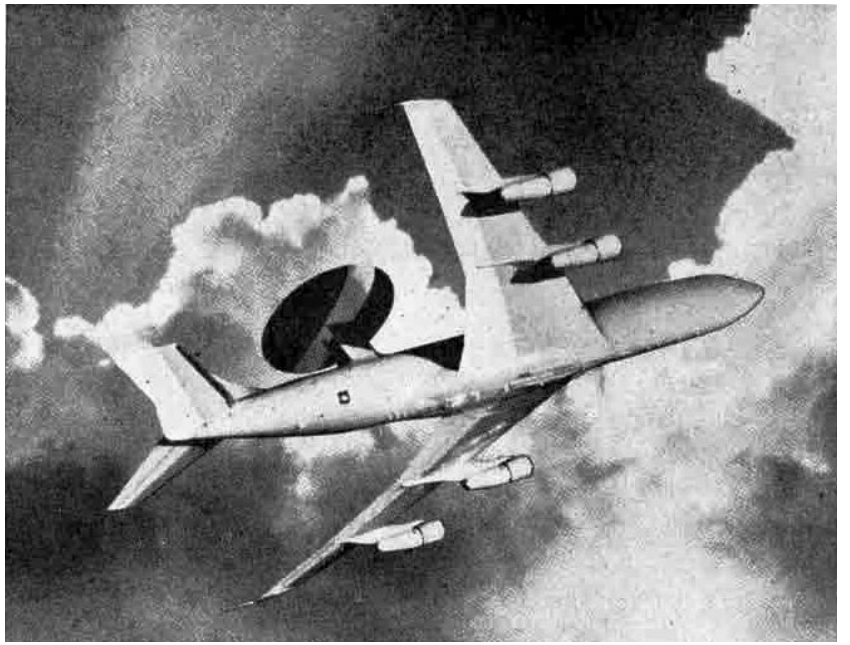
1976년 3월 23일에 양산형 1호기를 미공군(美空軍)에 인도하였다. 미(美) Boeing사(社)가 Boeing 707-320 수송기를 공중조기경보용 AWACS(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로 개조하였다. 동체에서 뻗은 2개의 큰 Strut로 지지된 대형 Rotodome(직경 : 30ft, 두께 : 6ft)이 있어 고도(高度) 27,000ft에서 마하 0.5~0.7로 비행하면서 120,000mile 범위를 경계 탐지하여 단일 지휘 가능하다. 600개 이상의 목표물(目標物)을 처리하고 IFF 능력(能力)은 일시에 200개 이상 식별해낸다. 레이다 및 통신장비는 전파방해에 강해 현존하는 어떠한 전파방해 수단으로도 이를 방해하기는 불가능하며 특히 Look Down 성능이 좋아 저고도 비행하는 어떠한 목표물(目標物)이든지 탐지 가능하여 적의 저고도 기습에 대비 F-15와 연합작전을 실시할 경우 완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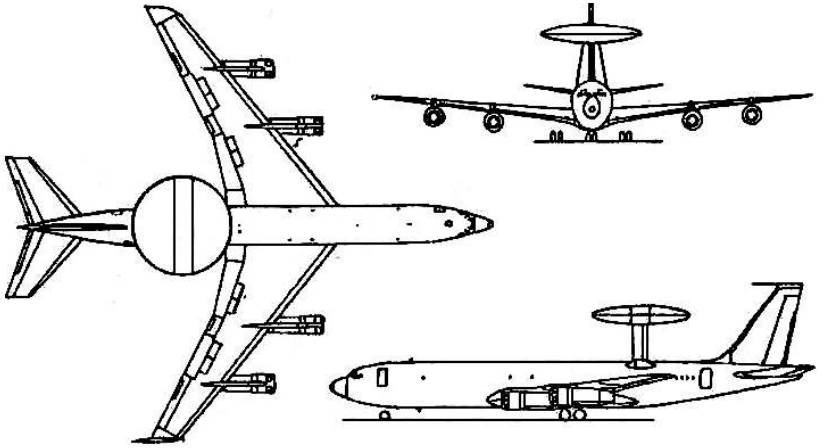
◎ 제원(諸元)

기폭(機幅): 146(ft), 기장 : 152(ft), 기고 : 42.5(ft), 엔진 종류 : P&W TF33-P-7, 엔진 추력(推力) : 21,000× 4, 승무원 수 : 4~13명(名), 후퇴각 : 35도, 항공기(航空機) 자중(自重) :172,000(lb)

© 성능(性能)

최대속도 : 마하 0.83, 순항속도 : 마하 0.5~0.7 실용 상승 한도 : 40,000(ft).





나. F-4G(Wild Weasel)

"Wild Weasel(들 족제비)" 부대(部隊)라는 조직은 월남전 당시 월맹군에 의해 전개(展開)시키고 있는 방공망(防空網)을 효과적(效果的)으로 다루기 위해 미공군(美空軍) 내(內)에 처음으로 조직 운영된 것으로 이것은 Anti-Radiation Missile을 발사하거나 기타(其他), 적(敵)의 SAM 미사일 망을 진압, 파괴하는 무기(武器)를 발사(發射) 또는 아측(我側)의 다른 공격항공기들로 하여금 그들의 임무(任務)를 효과적(效果的)으로 수행(遂行)할 수 있도록 돕는 복좌항공기 부대에 주어진 별명(別名)이다.

이 임무(任務)를 효과적(效果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Wild Weasel기(機)가 전투공역상(戰鬪空域上)에 제1착으로 날아감은 물론(勿論) 마지막 아군기(我軍機)가 그 공역(空域)을 떠날 때까지 그곳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조종사의 자질, 항공기의 성능 및 전투 기량이 적을 능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Wild Weasel기(機)의 조종사는 대지공격술(對地攻擊術)에서나 공중전(空中戰)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월남전과 중동전(中東戰)에서의 많은 교훈(敎訓)과 경험을 살려서 미공군(美空軍)은 적(敵) 방공망(防空網)을 제압(制壓)할 수 있는 F-4G를 주력기(主力機)로 적(敵)의 SAM 및 AAA 기지(基地)를 탐지(探知), 식별(識別) 및 진압(鎭壓) / 파괴에 따르는 작전능력(作戰能力)을 극대화(極大化)하고 있다.

F-4G기(機)라는 항공기(航空機)는 전혀 새롭게 제작된 항공기(航空機)가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임무 수행을 위한 비행기로 F-4E(PHANTOM)을 개조한 것에 불과하다. 이 항공기(航空機)가 1978년 4월 28일 미 공군에 처음 인도될 때 외견상(外見上) 뚜렷이 나타나는 차이점(差異点)은 발칸포 설치 장소에 Glassfiber제(製)의 턱같이 붙은 Pod와 뒤쪽의 수직안정판 위에 달린 Pod, 그리고 APR-38 Radar Homing and Warning System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안테나가 52개나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APR-38은 적의 위협정보에 따라 그때그때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Texas Instruments 사(社) 제품의 컴퓨터와 연결 작동되어 수시로 변하는 적 위협상황의 최신 자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무기(武器) 자동발사(自動發射) 및 맹목 폭격(Blind Bombing)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F-4G기(機)는 초기에 Wild Weasel기(機)들에 비해 무기 적재능력이 증가하였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Anti-Radiation 미사일의 AGM-45 Shrike, AGM-78 Standard, AGM-88 HARM 그리고 AGM-65 Maverick(Electro-Optical 유도탄), Cluster Bomb 같은 일반 F-4가 적재하는 폭탄 외에 자체방어용으로 Sparrow(AIM-7)나 Sidewinder(AIM-9)를 적재 가능하다. 또한 지상(地上) 위협목표물로부터 자체방어를 위해 ALQ-119ECM Pod와 적재한 무장을 발사하고 귀환 시 주로 살포하는 Chaff 살포기를 장착하고 있다.

3. 대지공격기(對地攻擊機)

가. A-10 (Thundervolt)

1972년 5월 10일, 최초로 비행한 미공군(美空軍)의 근접지원 항공기이다. 제작회사는 Fairchild Republic사(社)이다.

주익은 저익으로 직사각형이며 수직안정판이 2개이고 엔진이 동체 후미에 조종석과 같은 높이로 2개가 Pod 형식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 외형상의 특징이다.

◎ 제원(諸元)

기폭 : 58(ft), 기장 : 54(ft), 기고 : 15(ft), 엔진 종류 : General Electric TF34-GE-100, 추력(推力) : 9,065×2, 승무원 : 1명(名), 항공기 자중(自重) : 21,813(lb)

◎ 성능(性能)

최대속도 : 450(kts), 작전속도 : 385(kts), 순항속도 : 336(kts), 상승률 : 6,000fpm.

◎ 무장(武裝)

Head-Up-Display가 장착되어 있고 GE사(社)의 30mm 포가 항공기 중심선에서 약 2도쯤 밑으로 그리고 약간 좌측으로 비틀어 장착되어 있다. 한쪽 날개에 각각 4개의 Pylon과 동체에 3개의 파일론이 있어 28발의 500(lb) GP폭탄, 6발의 2,000(lb) GP폭탄, 8발의 BLU-1, 4개의 SUU-25 Flare 발 사통, 20발의 Rockeye II, 6발의 AGM-65Maverick, MK-82/84 Laser 유도폭탄, 2개의 SUU-23 Gun Pod, Chaff 혹은 기타 Jammer Pod 등을 장착할 수 있을 만큼의 매우 광범위한 무기 적재능력을 지닌다.

특히 A-10은 전투 피격에 대비해서 Flight Control System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갑보호조치가 중복적으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조종석도 방탄 구조로 되어있어 23mm 기관포에도 견딜 정도다.

고사・일화

허세(虛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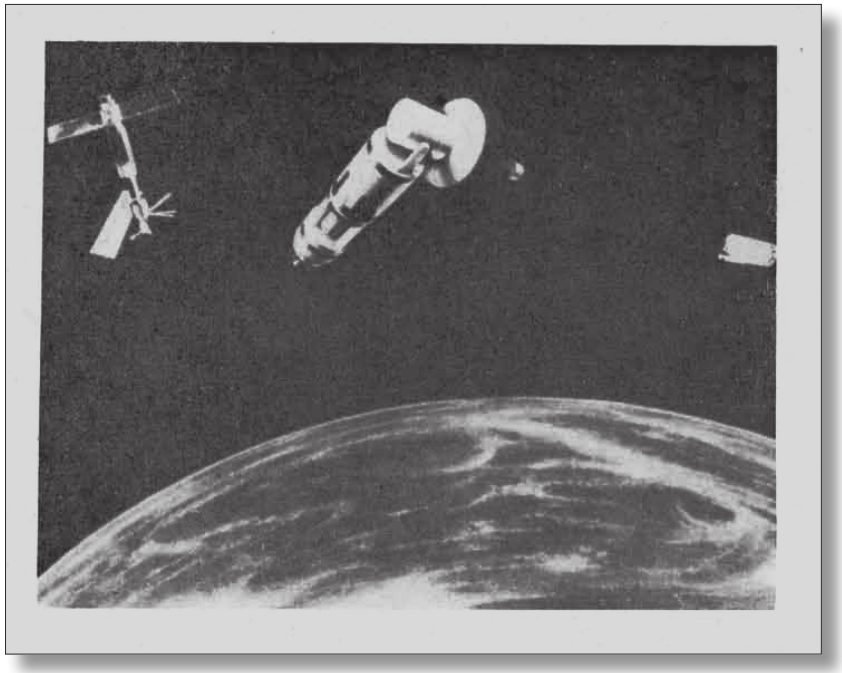
대원군 섭정 때의 이야기다. 백천(白川) 군수 자리가 비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 한창 세도를 부리던 조영하의 족속 간이 된다고 하는 자가 그 군수 자리를 얻고자 청을 넣었다. 조영하를 통해 들어온 청인지라 대원군도 거절하지 못하고 인품이나 한번 보고 결정하자고 본인을 운현궁으로 불렀다. 그 청을 넣었던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무겁고 당당한 풍채를 보여야 할 것이다고 생각하고 운현궁에 들어서자 우선 천천히 황소걸음으로 대원군 앞에 나아가 문후를 드린 다음에는 연신 게트림을 하였다. 한참 후 그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먼저 듣자오니 백천 군수 자리가 비었다 하온데, 소인을 시켜주시면 황감하겠나이다」. 그러자 아니꼽게 생각한 대원군이 천천히 대답했다.

「걸음이 그렇게 느려서야 어디 백천까지 가겠나? 그리고 트림을 자주 하는 걸 보니 백천 군수를 하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을 것 같으니 좀 더 기다려 보게나」.

우주기지
레이저 무기의 전략적 가치

손태용 역(譯)



사실상 1980년대의 국제적인 불안정에 대한 서방세계의 두려움은 더욱 진부하고 또 점점 더 특별한 것이 되어 갔다.

소련 군대는 무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고, 또 다른 소련 군대는 사유화 물결이 일던 폴란드에 개입하였다.

페르시아만에 대한 소련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기인하는 남하 정책은 미국과 그 산업 동맹국 즉, 자유주의 국가들의 원유 공급로에 차단 위험을 가하고 있다.

SALT 협상 연기에 따른 거친 외교적 언동과 대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예상하지 못한 미국과 중공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국과 소련 관계의 냉각을 초래했다.

초강대국끼리의 직접 대결 위협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대규모 핵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위협은 예견할 수 있는 짧은 미래를 극히 악화시킬 것이다.

증가하는 이들 우려에 대한 강도는 미 육군 Robert Schweitzer 소장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으로 재직할 때에 "전쟁을 향한 표류(Drift Toward War)"란 비공식적인 논평에 의해 단적으로 암시되었다.

"소련은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공격을 가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소련의 SS-20 미사일 운용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장거리 전장 핵 군사력을 현대화하려는 1979년의 NATO에 의한 두 가지 방향의 결정에 의해 조장된, 점점 고조되어 가는 유럽에서의 반핵운동은, 아마 핵전쟁에 대한 우려가 가벼워지기보다는 점점 더 깊어질 조짐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이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보다 바람직한 정치 군사적 미래를 바란다면 그러한 희망은 더 이상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없는 대량 파괴 핵무기로 세계를 둘러싸는 것이다.

공격 핵무기의 일시적인 우세는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를 시기하는 광범위한 황폐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년 동안의 외교적 전략적 억제 노력의 심각한 실패를 의미한다.

1981년 8월 13일 기자회견에서 Ronald Reagan 대통령은 전략적인 핵무기에 세계의 오늘날을 양도해 버리는 지금의 악몽을 떨쳐버리기 위한 합법적인 군비감축에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세계의 어느 곳에선가는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찾기 위한 탐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방어할 수 없었던 무기는 없었다."

이 성명이 발표되기 두 주일 전에 레이건 대통령은 전략적인 방위에 대한 장기간의 무관심에 종지부를 찍고, 세 가지 전략핵 군사력과 지휘·통신·통제 체계를 현대화하기로 한 그의 결정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미국의 관심사는 미 국민과 영토, 공공재산의 자연적인 안전이라는 명확한 발표가 있었다. 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이 중요한 미국 이익이 적절히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핵 억제력에 대한 신뢰도는 소련 군사력의 꾸준한 성장으로 힘의 전략적인 균형 상태에, 만약 최초의 미국의 열세가 아니라면 간신히 평형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부식되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확장된 억제 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신뢰도는 중요한 해외에서의 미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심에 대한 고민스러운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솔하다고 할 정도로 부정되었다.

미국에서 적극적인 개발에 의해 발달한 군사과학기술은 이들 전략적인 고려 사항들과 관련하

여 회의적인 사업(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들을 일상적인 개발 계획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전략적"이라는 말에 대한 서양의 전통적인 사용에는 핵, 지구, 국가의 생존에 결정적인, 혹은 장기적으로 중요함을 내포한다.

우주기지의 레이저(SBL : Space Based Laser) 무기의 전략적인 가치는 명백하게 핵을 제외한 모든 이러한 함축된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 원고의 주제이다.

1. SBL의 개념과 잠재성

우주에 기지를 둔 채로, 장거리 목표(인공위성, 항공기 그리고 미사일)를 공격하기 위하여, 어느 방향으로 든 출력을 발사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는 지난 수년간 점증하는 관심을 유발해 왔다.

일부 열광적인 개발 지지자는 그러한 무기가 미국의 도시와 산업 지역을 목표로 한 핵탄두를 운반하는 소련의 현대식 탄도탄(ICBM, SLUM)에 대한 미국의 방어능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마 SBL 개발은 가능하나, 집약적이고 비싼 연구 개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실용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로 전환시키는 데에 너무 비싸거나 또 간단하고도 값싼 대응책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지금의 태아 상태에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를 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첫 세대의 SBL 무기를 제작하기 위한, 인식된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미국 방위문제 담당자들만의 세계에서부터 사회 각 분야로 널리 퍼져 나가고 있으나, 잘 알려지기까지에는 어려움이 많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언제인가는 타당한 결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질적으로 새로운 무기는-일반적인 에너지 조종계통 무기의 응집성 있는 전자기 방사(레이저에서), 혹은 상대적인 소립자(입자, 빔 개념에서)는 파괴적인 메커니즘으로 활동한다.-전문가들에게 광범위한 흥미를 느끼게 하고,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과 전반적인 정치 군사적 타당성에 대한 중요한 의문이나 의견을 제시한다.

탱크나 전투기 같은 확립된 형태의 무기가 현대화를 위해 고려 중일 때에는 심각한 비용상승 가능성, 감수할 수 없는 기술상의 위험, 그리고 단순하고 값싼 대응책들은 통상 현대화 과정을 실천하려는 결정에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기 개발이 고려 중일 때는 이러한 종류의 조건들은 무기획득(생산, 구매) 절차의 착수를 위한 최초의 결정에 어떠한 이유로든 심각하게 방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균형 있는 정부 예산이 예외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는 내핍경제 기간 동안에는 종종 관료정치나 조직의 보수성에 반하여 결정 과정을 밀고 나갈 내부 영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950년대 전반기 동안 미국의 ICBM 개발은 아이젠하워 행정부 내에서 새로운 요원들에 의해 주창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방해를 받았고 그 후 소련의 Sputnik 1호의 충격이 있기 약 4년 전인 1953년과 1954년에 진정한 ICBM 개발 계획이 주도되었다.

우주 레이저 무기의 출현은 기술적 필요성 이외에도 앞으로 10여 년 동안 군사적,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성과 미 학계 내의 강력한 실력가들 사이에서 비록 SBL이 공학적인 면에서 우수하게 실현 가능성을 보일지라도, 그것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비싼 비용이 들고 그 때문에 쉽게 반발을 받을 것이며, 또 그 실현 가능성을 시범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이 절실함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미 의회와 업계의 지배 세력들은, SBL 무기가 미국의 반 군사적이고 지정학적인 위치와 가속된 발전에 대한 명백한 원숙함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기습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설전을 벌였다.

이 원고는 우주 레이저 무기가 1990년대나 그 이후에 미국의 안전보장을 장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군사적, 지정학적 위협에 대처하는데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높은 목적 달성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유형의 무기는 오늘날의 핵 공격의 세계로부터 가장 중요한 미국의 이익, 즉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물리적 생존이 시험 될 수 있는 총포류(화기나 무력) 대신에 핵의 억제력에 의한 단순한 심리적인 신뢰에 의해 보호되는, 또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제3의 장비에 의해 지원되는 보다 바람직한 미래로의 점차적인 전이를 조장한다.

이 원고에서는 우주 레이저 무기의 전략적인 잠재성이 세 가지 사고의 관련 기준에 의해 논의될 것이다.

먼저 SBL 기술의 일반적인 특성들은 실제의 세계(Rea-World)라는 한계선을 가지고 취급되어 진다.

두 번째로, 시험은 최근 이루어진 소련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용한 정치 군사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바뀌어 질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전략적 힘(Power)의 절박한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핵무기가 점차 대수롭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략적 미래-미국 사회의 대규모 취약성을 핵에다 맡겨 버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에 대한 긍정적인 상상은 표현되고 연구되어 진다.

이 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근본적인 결론은 미국의 외교정책 달성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군사력을 고안하고 만들기 위한 SBL 무기의 유일한 효용성이며, 핵 다음의 미래를 향한 이동의 촉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SBL의 높은 전략적 가치는 미국에서의 대담하고 먼 장래를 내다보는, 또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우주 레이저 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명확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며, 그 필요성은 적절한 기술의 혼합이나 정치적 교훈적인 효력이 드러날 때까지 충족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 있다.

2. 등장하는 HEL기술

매년 약 2억 달러 정도의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HEL(Higli Energy Laser) 계획은 지난 5년간 국방성의 지원을 받는 가장 큰 단일 기술 계획이 되었다.

이 사실은 광범위한 군사적 연구 개발 계획 내에서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그와 관련된 유망한 기대를 나타낸다.

1981년 말까지 국방성은 실제적인 무기로서의 HEL의 군사적 잠재력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보이기 위하여 3군과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를 포함한 전체 노력에 거의 20억 달러를 사용했다.

국무성은 레이저의 무기화가 실현 가능하고 또한 보다 큰 추가적 투자의 가치가 있음을 국무성 내와 다른 사람들(특히 매년 예산안에 관련된 권한을 가진 의회 내의)에게 설득시키기 위하여 치명적임을 보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1978년 3월에 해군은 대전차 미사일 TOW(Tube-lanched, Optically-tracked, Wire- guided)를 떨어뜨리기 위한 HEL 시험계획에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1981년에 공군은 Airborne Laser Laboratory(ALL)의 실전 시험을 시작했다.

소련은 미국보다 3배 내지 5배 더 큰 HEL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급격히 생겨난 군사기술에 대한 관심은 소련이 훨씬 강하다고 추측된다.

미국의 고위 방위 관리들은 소련이 "특수 레이저 무기체계"의 개발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기 전에 공학적 단계에서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국방성에 의하면, 소련 측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면 대인, 또는 전술 방공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중간 출력 레이저 무기의 운용은 1980년대 중반까지 실전 배치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80년대 후반에 소련이 지(地), 함(艦), 대기권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레이저 무기를 과시할 것이라는 사실은 가능한 이야기이다.

보도에 의하면 소련에서 개발 중인 Saturn 같은 매우 큰 우주 증속 로케트는 더 크고 더 강한 위력을 가진 레이저 무기를 포함해서 매우 무거운 화물을 궤도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소련은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HEL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전략적으로 미국과 동등한(혹은 더 높은) 수준에 이르는 명예에 만족하지 않는 소련 지도자들은 그들의 목적(세계 적화)과 관계되는 군비경쟁의 재편성에서 명확히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적당한 가정하에서 레이저 무기는 기술적인 신기루가 아님이 증명될 것이다.

미·소 관계가 위험스럽게 악화되고, 미국이 세계의 사건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또 쇠퇴해 가는 상태에 대한 근심에 차 있는 동안, 소련은 이 새로운 군사기술의 개발과 무기화를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다.

소련의 HEL 무기 개발에 대한 과중한 투자에 의해 강요된 도전은 실제적인 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공할 만하다고 연구 및 기술 담당 국방차관 James Wade는 1981년 3월 의회 증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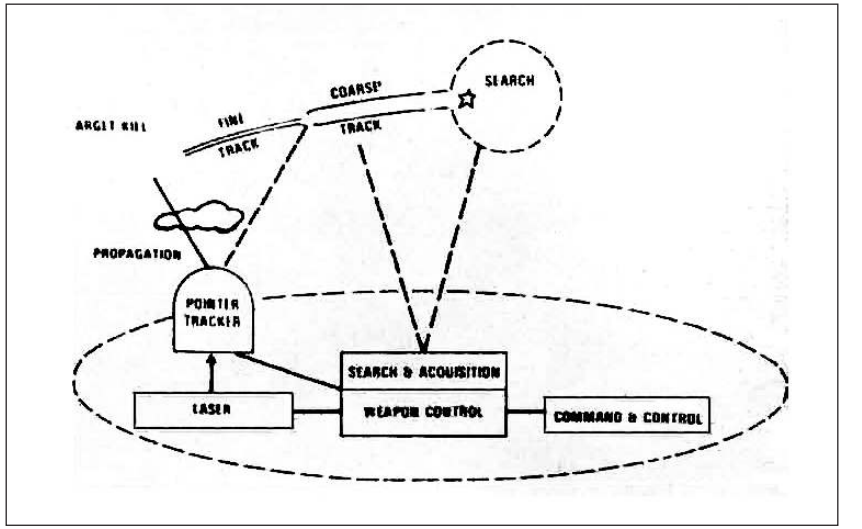
"효과적이고 생존 가능한 SBL 무기의 개발은 전쟁의 양상과 전략적인 힘의 균형에 결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1960년에 유도된 복사열의 방출을 이용한 빛의 증폭에 의한 레이저의 원리가 입증된 직후, 기술적인 발전이 잘 알려진 죽음의 광선을 역사적인 과학적 허구의 범위로부터 공학적인 실체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급격히 증대시켰다.

그러나 1960년대 말 가스 역학 레이저의 개발까지는 레이저의 무기화를 위한 기술적인 전망은 어두웠다.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는 동안 많은 양의 에너지 손실을 수반하는 고속 가스 흐름의 가스 역학 레이저는 아주 높은 에너지로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실제 레이저 무기의 연구를 위한 기술적인 문을 연 첫 번째 장비였다.

계속하여 더 작고 가벼운 반사경과 빔을 표적까지 더 잘 보낼 수 있는 훨씬 높은 효율과 짧은 파장을 가진 전자 방전 레이저나 화학 레이저도 개발되었다.



HEL의 중요 부분 및 작동 순서 요해도

Excimer(잠수함 통신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 중인 새로운 형태의 레이저)나 자유 전자 레이저 같은 짧은 파장을 가진 HEL의 새로운 형태는 보다 유망하게 보이고, 국방성과 에너지성에 의해 지원을 받는 큰 Program으로서 개발 중이며 에너지성은 레이저에 의한 핵융합과 동위원소의 분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레이저 무기체계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집중적이고 응집된 방사를 만들어 내는 레이저 장치와 목표의 취약 부분에 레이저빔을 조준하여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광학 반사경의 연속으로 구성된 빔 조종장치이다.

레이저 무기는 단순하며 이는 화력을 조종하기 위하여 반사경(가스 역학적 레이저에서의 푸른 연기가 아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유능한 기술자들에게 잘못 이해됐던 이 단순한 특성이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를 공격하는 다중 사격과 신속한 목표 재선정 능력을 갖추도록 해 준다.

다른 무기체계에서처럼 화력 통제 하부체계는 목표가 파괴되었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탐지하고 선정하게 한다. 만약 레이저 무기를 대기 중에서 사용한다면 대기의 빔 흡수와 초점을 흐리게 하는 현상 때문에 효과가 감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름이나 연기 같은 연무질이 있으면 대기권 내에서 사용되는 무기처럼 유효 사거리의 제한을 받는다.

우연히 레이저의 실현 가능성 입증에 성공한 국방성은 1980년대 중반에 하나나 또는 그 이상의 레이저 무기 시제품을 만들기로 계획했다.

공군 계획을 위한 시험은 ALL로서 DARPA의 SBL 계획이 최근에 확장되기 전까지는 가장 큰 HEL 계획이었다.

ALL은 고도의 장비를 갖춘 NKC-135 항공기로서, 동적인 공중 환경에서 HEL 장치의 통합과 작동 및 공중 목표에 대한 레이저 발사를 실시해 보았다.

1981년 ALL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HEL 기술에 대한 국민과 의회의 최고 수준의 관심은 인공위성이나 폭격기 및 다른 전략 비행체들처럼 전략 탄도탄을 그들의 가속 단계에서 요격하도록 구상된 SBL 무기의 흥미 있는 개념과 관계된 것이었다.

국방성은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식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SBL 무기 개발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분석한 비밀 보고서를 준비했다.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의 개발에 필요한 하부체계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난 수년간 DARPA의 예산을 급격히 증가(82회계연도에 1억 달러 이상으로)시켰고, 또 82회계연도 중에 2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우주 공군사령부에 SBL 사무실을 개설하여 전략적 균형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군비축소, 그리고 미·소 관계에 극히 중요한 관계를 지니는 미 우주 레이저 개발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레이저 무기는 전반적인 우주의 유리한 위치로부터 고도의 정확성과 민첩성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시간적으로 절박한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우주에서 외기권으로의 레이저 빔의 발사는 대기나 수중으로의 발사 시에 관련되는 흡수나 초점을 흐리게 되는 현상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 사용 중인 인공위성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장치와 구경이 큰 카메라로 탄도탄 공격의 조기경보와 선명도가 높은 영상을 우주에서부터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적당한 감지장치와 조준장치가 개발된다면 발전된 장거리 레이저 무기는 아주 멀리 떨어진 인공위성의 무리와 수백 개의 크고 먼 항공기 및 미사일 추진장치를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공격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의 레이저 무기는 비핵체제로 대 인공위성(ASAT : Anti Satellite)작전, 전략적으로 신속한 방공, 탄도탄 방어(BMD : Ballistic Missile Defense) 등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적의 선제공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ASAT와 BMD 임무에 대한 미 공군과 육군의 책임 있는 고위 관리는 우주 레이저 같은 큰 능력을 가진 에너지 통제 무기의 개발에 직면하여, 중요한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지만, 에너지 통제 무기체계의 장기적인 잠재성은 명확하고 개발과 운용을 위한 매력은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과학고문 George Keyworth가 의회에서 행한 증언에서 레이저는 "미래의 유일하게 신뢰성 있는 대 탄도탄 기술로 단언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시간상 절박하고 다양한 형태의 목표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신속한 화력의 발사를 위한 우주 레이저 무기의 독특한 잠재성은 격렬한 미·소 군비경쟁 상황하에서 새로이 생겨

나는 SBL 기술이 고도의 목적 달성 수단임을 시사한다.

1981년에 공군은 ALL 비행시험을 시작했으며 사진은 그 모양을 보여 주고 있다. 극도로 개조된 NKC-135 항공기는 비행 중에 레이저를 실험하는 공군의 무기실험실이다.

3. 기술적 상황

군사기술의 역사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가 구시대의 무기를 대치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태고로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느리고 드문 발달과 비교하여 2차 대전 후의 군사적 혁신의 속도와 범위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특히 생사 문제가 관련된 군대 조직과 관계있는 기술이 있을 때 그러한 기술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미국 방위 관계 층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새롭고 우수한 과학기술이 기존 기술의 역할과 임무를 위협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또 심지어는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Deborah Shaplev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유일한 "새로운" 전략무기인 순항미사일은 공군의 자발적인 노력 대신에 혁신적인 무기화의 정상적 발전 과정에 의회 지도자들이 개입한 후에야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졌다.

1953년에서 1954년 사이에 ICBM 개발 계획의 가속화를 위한 외부 영향력이 개입될 때까지 미국의 ICBM 개발 계획에 참여한 일부 관료주의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고질적인 불신과 부정 그리고 업무의 지연 등이 있었다.

1947년부터 1953년 사이에 목적 달성을 위한 예언들이 성행했으며 그 내용은, 미 공군은 기술적인 불가능성과 의회의 개발 비용 제공 거절 때문에 ICBM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순환가정으로 ICBM은 이 기간 중에 개발되지 않았으나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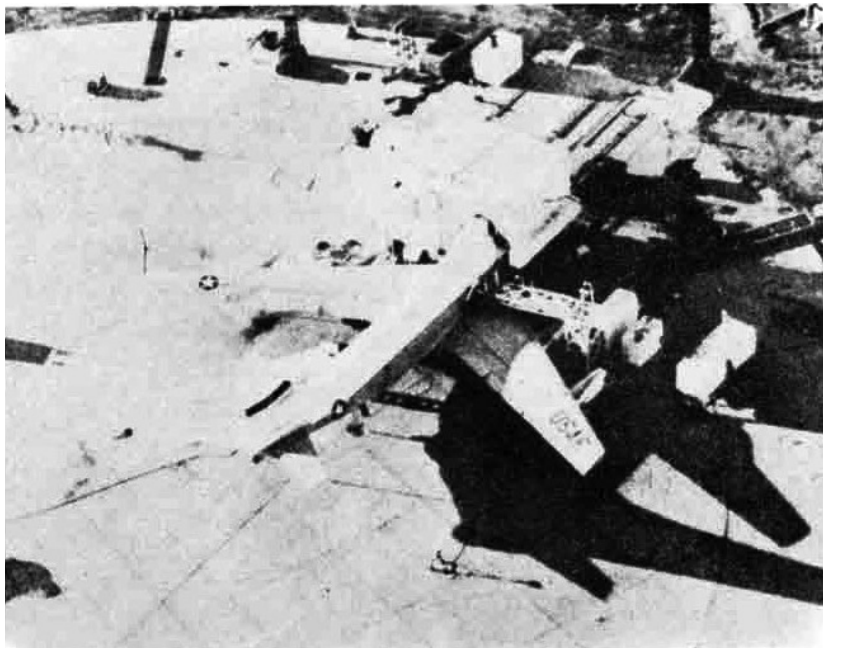
여러 가지 면에서 1980년대 동안 미국에서의 우주 레이저 무기 발전은 1950년대 동안의 ICBM 개발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

V-2 로케트에 의한 최초의 무서운 군사적, 심리적인 잠재력은 Dwight Eiesenhover 장군으로 하여금 1948년에 ICBM에 대한 기념할 만한 성명을 발표하도록 조장했다.

이와 비슷하게 우주기지의 레이저 무기가 실제로 개발되고 과시되기도 전에 간단하며 기습적인 우주 레이저 무기의 군사적 잠재성은 공군 내에서 잘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활발한 우주 레이저 개발의 억제라고 불릴 수 있는 징조는 명확하게 존재하고, 특히 고위층에서는 ICBM 개발 당시 정도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우주에 설치된 SBL을 시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관제로 설사 역사적으로 군사과학과 기술이 계속해서 우월하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더 이상 그 우위를 유지할 수 없고, 또 (만약에 발생한다면) 미래의 Sputnik와 같은 형태의 충격은



유류고(우측 상부)에 레이저 연료 저장 탱크가 있다. ALL의 우측 날개 앞부분과 동체가 레이저 연료 보급 시설과 연결되어 있다.

적절하고 적시성 있는 추격 과정으로 보상되어 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소련의 수적 우세를 상쇄하기 위해 발전된 미국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정책은, 기술적인 우월성으로 중요한 결과를 낳게 하려는 소련의 추구에 의해 퇴색되어 가고 있다.

선진 극소전자공학처럼, 한때 미국이 우위를 차지했던 분야를 일본의 산업발달로 인해 심각히 잠식당한 것처럼, 산업이 혁신적으로 발달된 중요 지역에서의 세계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은 점점 깨어지기 쉬운 상품이 되어 가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고액으로 유지되고 있는 소련의 군사 연구 개발비에 대한 투자는 한때 미국이 주도하고 있던 많은 중요 분야에서 거의 대등해지게 했고, 또한 전반적인 군사적 능력을 대신하던 과학기술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심각하게 부식되었다.

미국은 최신 군사기술 면에서 명확히 앞서 있고 컴퓨터와 극소전자공업 분야에서도 잘 발달되어 있다.

미국의 우주기술은 소련에 비하여 적어도 8~10년은 앞서 있으며 아마 이와 같은 분명한 기술적인 우위는 확대되고 있을 것이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은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보다 우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소련은 결코 "새턴" 급 대형 추진 로케트를 개발하지 못하였으며(알려진 바에 의하면 1960년대 후반에 실시한 시험에서 크게 실패하였다고 한다) 아직도 달 표면에 인간을 착륙시키지 못하고 있다.

소련이 재사용 가능한 미국의 우주왕복선 같은 운용상의 융통성을 지닌 동시에, 아주 큰 추진 능력을 보유한 로케트를 과시하기는 아직 요원하다.

그러나 현재 개발 중인 소련의 대형 우주 추진장치는 더 크고 성능이 우수한 레이저 무기를 궤도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며 그 출현은 1960년대 후반에 예상되었었고 이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12년 뒤진 것이다.

우주에서의 미국 군사 활동에 대한 82회계연도의 예산은 1960년 이후 최초로 NASA의 민간 계획에 할당된 기금을 초과했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우주군사기술의 우위는 가까운 장래에 확대될 것이다.

우주에서의 미·소 군사적 경쟁에 대한 장기적인 미래의 보다 중요한 가정은 소련의 조기경보 위성 개발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의 운용계획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며, 이로 미루어 미국이 SBL 분야에서 확실히 소련보다 우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의 제1세대 SBL 무기의 실험 가능성-1980년대 중반 이전에-에 대한 신문과 잡지류의 각종 평가는, 탄도 미사일이나 폭격기의 공격에 대하여 지구 전체에 신뢰성 있는 레이저, 방어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될 발전된 장거리 능력에 대한. 직접적이고 의미심장한 어떤 암시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우주 레이저 무기에 대한 발전된 기술적 기반의 점진적이고 신속한 성장으로 군 우주지원체제의 기존 우위를 새로운 형태의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외교적인 노력이나 전쟁 억제 정책이 실패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세한 군사력 즉, 능동적인 우주무기를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4. 전략적 힘의 새 시대 요구

국가 이익에 대한 인식의 커다란 변화와 새로운 각종 기술에 대한 신뢰 때문에 전략적 힘의 전통적 개념에 대한 재평가 및 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의 국민과 영토 및 민주제도를 보호하는 목적은 국가 안보상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의무이다. 또한, 서방이 수입하는 유류 공급원의 전략적 보호 및 유류 소비국과 페르시아만의 산유국을 연결하는 해상 병참선을 방어하는 것도 점차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다.

동시에 미·중공 간의 전략적 관계의 점진적 개선이 적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지정학적 기세를 봉쇄하기 위한 계획된 정치적 수단으로서 유도되고 있다.

미국의 ICBM, SLBM 및 장거리 폭격기 등의 세 가지 분야에 구체화된 전통적 전략 능력의 형태는 소련의 능력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재래식 병기를 장착할 수 있는 폭격기를 제외한 세 가지 핵력은 페르시아만의 유류나 유럽, 아시아 및 중동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비핵 전쟁을 억제하거나 수행하는 데에 거의 관계가 없다.

소련의 명백한 야심과 군사적 능력 때문에 나타난 새로운 위험과 대처 가능한 새로운 전략적 힘에 대한 각종 요건들이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신속 전개군(RDF) 개념은 1970년대 후반에 정립되었으며 서방에서 수입하는 유류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큰 유전의 정상 운영의 방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왔다.

RDF는 소련에서 그렇게 가까운 페르시아만에서의 적대행위(소련의)를 저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속하고 강력하며 운용 가능하지 못하다는 전망과 많은 비난들이 집중되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식견 있는 옵저버들은 비록 미국이 가까운 장래에 국방비를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선진 기술 개발을 위한 대담한 시도 없이는 소련의 세계적인 세력과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궁극적 성공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 기술적 우위를 추구하는 소련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상대적 우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변천하는 세계적인 세력균형의 현실에 대해 미국이 군사·정치적 영향력을 신속하게 행사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보다 적절한 새로운 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능력은 전반적으로 병력 지원이 부족했던 월남전과 같은 신퇴유곡의 곤경에 미국인이 대량으로 개입하게 되는 위험한 사태를 피하면서 미국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하여 소련과의 전쟁을 억제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비 핵전쟁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렛대의 역할을 미국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이건 행정부는 세계적인 소련의 각종 위험에 본질적으로 대처하고, 공해상에서의 힘의 균형을 통제하여 해양국가로서의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와 유사하게 우주도 대양처럼 미국이 작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저가 되고 있으며, 만약 가능하고 또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우주 공간에서 무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다.

Stealth 폭격기의 개발 계획 정도와 속도로 활발하고 신속하게 개발된다면 1990년대에는 연료를 재공급받을 수 있는 SBL 무기가 전략적 자원이나 소련의 팽창주의로 인한 정치적인 지배력을 억제하기(또는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화력을 전 세계에 걸쳐 많은, 동시에 시간적으로 절박한 목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크기의 제1세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 10~20개로 무리를 이룬 우주 정거장의 이용으로 소련은 지구상의 위험에서 위성과 항공기(예를 들면 대함용 공대지 미사일로 무장하고 공중

급유 및 AWACS 체제의 지원을 받는 Back Fire) 및 미사일(유럽을 겨냥한 SS-20과 제한된 숫자의 SLBM과 ICBM)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가능한 인공위성 공격무기의 위협에 대해 적절한 자체방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 과학자들은 전통적인 수단에 대한 대응의 상호 영향으로 그들의 우주 비행체를 레이저 방사에 대해 견고화를 도모할 것이며, 또 레이저 무기에 장착된 각종 감응 장치를 무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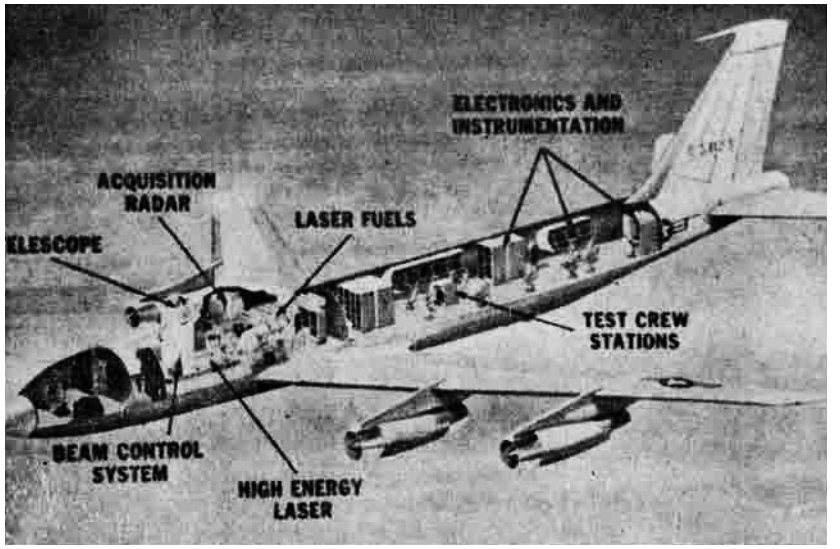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제1세대의 SBL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SBL 개발자들은 그들의 계획에 조심성 있는 위협이나 여유의 한계를 넘어서 SBL 무기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없이 그러한 견고화와 위성 공격무기의 위협을 감안해야 한다.

SBL 무기의 잠재적, 기습적인 군사상의 이용 외에도, 미국에서 제1세대의 우주 레이저를 개발하려는 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바 국가의 위신과 기술 습득이 그것이다.

1957년 스푸트니크호 발사의 큰 충격 이후 지구상의 강대국들 간에는 소위 "우주 경쟁"이 정치적인 상징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1985~90년 사이에 소련이 첫 SBL 무기의 시제형을 발사할 경우 소련은 일찍이 스푸트니크호와 같은 사건의 정치적, 심리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으나, 미국이 SBL 기술에 대한 기반이 깊고 폭이 넓기 때문에 그다음의 미국 무기 개발은 세계에 대한 미국의 위신보다 더 많이 기여할 것이며,



1981년 첫 ALL 시험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이 공중 실험실의 단면도는 그 중요 부분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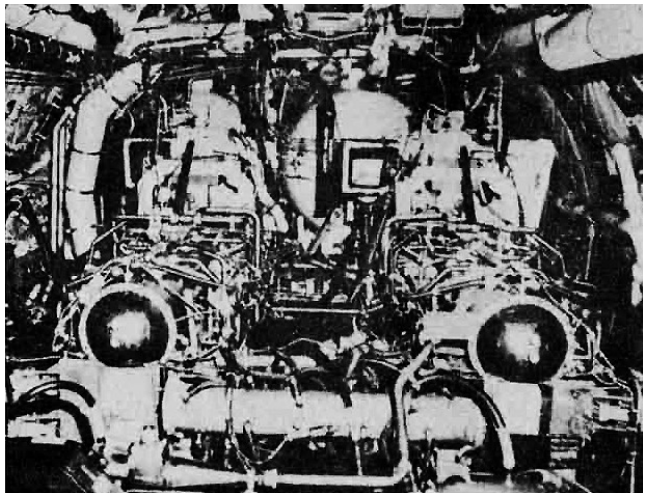
동시에 소련의 노력보다 더 많은 지구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방법은 1950년대 후반의 ICBM 개발 경쟁과 유사할 것이다.

ALL 항공기의 중요 구성 부분인 레이저 조준 망원경이 장착 직전의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명백한 미국의 SBL 기술의 우위를 제1세대의 군사 장비로 적시에 전환하여, 대규모의 BMD와 같은 중요한 임무를 위하여 필요하게 될 발전된 능력을 지닌 SBL 수준까지. 신속히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제1세대 우주 레이저군의 근본적인 전략적 중요성은, 미국의 대외 정책상 각종 중요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핵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소련의 모든 행동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확고한 억지력이다.

최후의 상황 이외에는 그 활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따라서 제한적인 정치적 신뢰성을 지닌 전략핵 군사력과는 달리 SBL 무기는 외교적인 노력과 전쟁 억제 노력이 실패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전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중요 부분인 Laser 장비 부품들로서 항공기 뒷부분에 장착된 Laser 장비와 Laser 연료탱크가 보인다.

그러므로 미국의 SBL 무기는 핵무기와 관련된 계시적 암시(비 인도적인)나 도덕적 금기를 갖지 않은, 사용하고 시험할 수 있는 무기로서 지구상의 긴급한 목표에 우선 도달할 수 있으며 비핵무기의 특성을 지닌 강력한 다목적 무기로서의 전략적 특성에 의해 전쟁 억지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5. 핵 공격에서 레이저 방어로의 전략적 전환

제1세대의 전략 레이저 무기가 우주에서 운용되면(운용 여부보다 언제 누가 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이 있지만) 핵무기의 역사적인 우월성이 사실상 감소될 수도 있다.

전략 군사력은 초 강력한 세 가지 핵무기가 지배하는 유용하지 못한 전통적 공격 형태와 새로운 우주 기지용 레이저 무기에 귀속된 비정규적인 방어형의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비록 고고도용 항공기는 항공기 고유의 레이저 광선에 대한 취약성과 장시간의 비행 때문에 레이저 무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쉬운 목표물이 될 수 있지만 제1세대 SBL 무기의 BMD 능력은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발전된 SBL 무기는 심지어 엄체화된 다량의 탄도탄에 대해서도 상당한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신뢰성 있는 BMD 체제의 수립을 전망하게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미래의 전략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대안이 도출된다.

□ 전반적인 핵의 축소 없이 핵무장 국가 간에 상대방의 핵에 자국 국민의 생명을 맡긴, 상호 인질 관계에 어떤 해결책이 없는 기술적으로 비관적인 전망.

□ 비록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성이 지배할 것이므로 핵 억지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심각한 핵전쟁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낙관.

□ 각종 군비경쟁의 압력은 공격 군사력 수준의 신중한 감축 협상과 같은 협조적 체제를 통해 처리되며, 방어적 비핵무기(최초에는 우주 레이저 무기)가 점차 지배하는 "핵 이후"의 전략 세계의 대두에 의한 기술적으로나 정치적 방법을 통한 해결.

첫 번째 전략개념의 부정적 운명론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취약성에 어떤 해결책이 없는)과 두 번째의 정치적으로 단순한 가정(심지어 긴급한 위기 및 전쟁 기간 중일지라도 이성적인 결정을 토대로 한 핵 억지력의 영원한 효과)은 핵전쟁 및 핵무기에 관한 전통적 사고방식을 견지하도록 해 왔다.

대중적인 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와 같이 여론을 형성하거나 중요한 각종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설정한 미래의 개념은 공식 결정의 세부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SBL 기술의 출현은 외관상의 무수히 많은 문제와 핵전쟁 및 핵무기의 윤리적인 곤경, 그리고 끝없는 전략무기 경쟁의 본질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 에너지 상황의 기술적, 정치적 움직임이 전적으로 OPEC 석유에 의존하던 것으로부터 석유 이후의 미래라고 칭할 수 있는 것으로 움직여 가는 것과 같이 그와 유사한 현상이 전략적인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전략무기 발전의 기술적, 정치적 움직임이 핵무기에만 의존하던 세계를 넘어서 전략 군사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핵 이후의 미래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으며 핵에서 비핵으로, 공격에서 방어로 점차 부드럽게 본질적인 변화-의미 있고 영속성 있는 무기 제한협정을 통해-를 하고 있다.

만약 도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도기의 불안점을 제거(적어도 극소화)할 수만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미국인들(그리고 소련인들)은 핵무기에 취약한 오늘날보다는 방어가 지배하는 세계를 더욱 좋아할 것이다.

SBL 무기의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가 잘 인식된 것은 정치적 유용성이 극히 제한되고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분야를 지니고 있는 핵의 세계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는 최초의 단계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혁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기에 여러 개의 핵전쟁을 수반하게 되는 불안정한 난국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핵무기에 의한 공격적 전략에서 방어적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비록 최종 목표가 탁월하게 실용적이고 바람직하더라도 "위성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어떠한 전략적 전환도 결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핵 억지력 및 보장된 상호파괴(MAD : Mutual Assured Destruction)에 근거를 둔 재래식 전략적 개념에는, BMD 체제가 도시산업 지역을 보호할 경우 그 자체에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BMD 체제가 보복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이러한 BMD 능력은 핵 선제공격의 절박한 위기 시에 더욱 자극받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BMD 체제는 공격, 방어무기의 경쟁을 더욱 자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모든 적들이 방어의 침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대규모적이고 효과적인 공격군을 보유하도록 자극을 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전략적 균형은 안정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며 이는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확전이 엄격히 통제되지 않는 한 핵 억제력의 어떤 실패라도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최초 핵 사용 후의 확전은 반자동적이며 또한 신속할 것이라고 믿는다.

합리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정치 세계에서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공포와 균형"이라는 1955년의 연설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보복 공격은 히틀러 같은 변덕스러운 정신병자나 독재자가 스스로 그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를 계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보복 공격의 맹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 군사위원회 위원인 Fred Ikle 연설이 진실을 갈파한다.

"지금까지처럼 행운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전략적인 사고는 21세기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고 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SBL 무기의 출현은, MAD를 근거로 한 핵과 관련된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도출되는 단기적

인 불안정성과 방어 우세의 균형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보다 의미 있는 안정 사이에서 그 반반씩을 취하는 이상한 형태를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공격무기의 경쟁은 공격 군사력 수준의 확실한 한계(혹은 단계적 감축)를 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평가 방법의 부재 상태에서 BMD 능력이 있는 SBL 무기의 우세에 의해 가속화되어 질 수 있다.

발전된 방어 기술의 성숙으로 공격무기의 상한선이나 단계적 감축의 협상 가능성은 아마 핵 공격으로부터 비핵 방어로의 전환 문제에서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다행히도 과거와 역사에서 협상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해답을 1970년대 SALT I 협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격과 방어무기를 동시에 취급하기 위한 미국 측 요구가 1971년 5월의 협정에서 소련에 의해 수락되어졌다.

SALT 체계에서 전략적 공격 및 방어와 관련되는 이 개념은 미국에 의해 ABM 조약으로부터의 철수라고 불리는 양측 성명에 공식적으로 구체화 되었다.

"보다 완전한 전략 공격무기의 제한을 위한 협정이 5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중요한 이익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ABM 조약으로부터의 철수를 위한 기저가 될 것이다."

만약 ABM 기술에서 미국의 우세가 1972년의 ABM 조약에 동의하도록 소련 지도자들을 설득했었다면, SBL 기술에서의 미국의 강력한 우세가 그것의 간단하고 기습적인 군사적 잠재력에 의해 소련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1980년대에 전략 공격 군사력의 급격하고도 단계적인 감축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은 미국이 장기적인 SBL 무기의 BMD 가능성을 이용하기 이전에 광범위한 소련의 비핵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중반기 SBL 무기의 단순한 군사적 능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공격 군사력의 과감한 감축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얻으려 할지라도 SBL 계획을 START(과거의 SALT) 협상에서의 흥정거리로 삼을 여유가 없다.

미국은 전략방어 군사력 분야의 발전을 위한 미·소 경쟁력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SBL 계획이 가속화되고 성숙되는 만큼 더 커지게 될 SBL과 관련된 협상 수단을 깊은 주의와 심사숙고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방어 중심의 긴 줄다리기를 향한 성공적이고 적당하게 안정된 전략적 전환을 성취하기 위한 전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SALT의 유일한 산물인 1972년의 ABM 조약은 방어 우세를 위한 어떤 중요한 전환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그 시기는 아마도 1987년과 1992년의 조약 재검토 기간 중일 것이다.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무기 제한의 부담은 과거에 협상되었던 공격 군사력 수준을 과감

히 줄이는 쪽으로 움직여 갈 것이며 그것은 다가오는 START 협상에서 토의되어 질 것이다.

우주기지 레이저 무기의 전략적 가치에는 두 단계가 있다.

중반기(대체적으로 1985~1995) 동안 제1세대 SBL 무기 체제는 소련과 상당한 시차를 두고 미국에 의해 조화된 발사대상의 대규모의 ICBM을 제외한 광범위한 목표에 대하여 가공할 만한 다양한 임무 능력을 지닌 형태로 개발되어 질 것이다.

이들 제1세대 SBL 체계가 강력한 군사적 능력을 가질 때까지 결코 우수한 BMD 체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제1세대 SBL들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적절한 자체방어 수준에 이르기 전의 우주에서의 운용기간 중에 적으로 하여금 대처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공격을 부분적인 SBL들에 가하도록 유혹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평가들은, 오히려 BMD에 응용할 경우에 초기 SBL이 안고 있는 심각한 제한 사항과 운용상의 불확실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 SBL 체제는 전략적 균형과 군비경쟁에서 세 가지 전략무기의 위협을 소멸시키고 혁명적인 전환을 이룰 만큼 강력한 전 방어체제를 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1세대의 SBL 무기는 예상외로 강력한 BMD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시제품이 될 것이다.

발전된 SBL은 ICBM의 일제 공격에 대해 신뢰성 있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고립된 BMD 체제가 아닌 탄도 미사일 비행 궤도의 중간단계나 최종단계를 방어하는 다른 여러 가지 무기의 지원을 받을수록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1995년까지 향후 10여 년간 개발, 제작될 SBL 무기의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는 핵무기를 운반하는 모든 종류의 비행체에 대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파괴에 근거를 둔 핵 억지력은 왕이나 평민 누구나가 한결같이 싫어하는 암흑시대의 책략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핵전쟁을 방지하려는 인간의 간절한 목적이 군사교리나 대학살을 목적으로 한 각종 파괴 수단에 의해서 희생된 비극적 역설이다.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이상과 핵에 근거를 둔 MAD의 오늘날 미국전략 사이에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느냐는 것은 미국에서 넓게 일어나고 있는 비핵 운동에 고무된 START라고 부르는 미·소 군비 제한 협상과 방어 우세를 향한 전환을 촉진 시킬 수 있는 SBL 및 다른 무기의 적시 개발에 달려 있는 것이다.

소련(蘇聯)의 화학전(化學戰) 능력(能力)

최 양 수 (崔良洙) 역(譯)

소련의 화학전(CW)에 대한 방어준비를 검토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된 각종 문헌을 참조로 하지 않고는 소련의 화학전 능력을 평가하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소련의 화학전 능력에 대한 문헌과 기사는, 중동전에서 노획한 각종 장비에 대한 분석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련의 공격 능력과 교리이다. 소련이 CW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심지어는 허용된 공개 자료에마저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화학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각종 소스가 결집되어 있으므로 분석자들은 각종 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소련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CW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CW 방어 문헌에 기술된 것으로, 소련의 각종 위험을 검토하여 알 수 있다.

또한, 분석자들은 소련에 알려진 각종 화학약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한 서방측의 연구를 참고로 할 수도 있으며, 소련의 CW 보유 능력에 대한 방어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뜨는 비공식적인 각종 평가를 조심성 있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종 자료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그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은 분석가들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CW 무기의 특성 및 군의 이용

이 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각종 화학약품들만을 취급할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폭동진압용 약품인 CS, CN 및 DM과 같은 화학제는 이 약품들이 주요한 전쟁에서 치명적인 약제로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았다.

또한, LSD를 기초로 한, BZ와 같은 환각 화학제도 취급하지 않았다. 이는 이와 같은 화학제들은 소련에서 전에 개발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군사 목적용으로 화학제의 효과를 전혀 예견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고사제도 인마살상의 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외에도, 주요 전쟁에서 고사제의 유용성이 희박할 것이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았다.

사실은 이외에도 현 상태로서는 약품의 종류는 다양하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주 화학약품으로 사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량으로 비축되었던 Phosgene(포스겐 독가스) 가스와 Vesicant(미란성 가스)는 적어도 옛날에 사용한 가스로 간주하여야 하며, 1945년에 소련이 독일의 생산 공장을 노획하였을 때, 발견 획득하였던 최초의 신경가스였던 Tabun 가스(신경가스)도 옛날에 사용하였던 가스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가스 중, 어느 것도 소련이 버리기를 꺼려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갖은 구형의 약품일지라도, 소련은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소련은 1945년에 Sarin(신경가스) 가스를 위한 비축 및 생산시설과, Soman 가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화학 공식을 획득하였으며, 이 두 가지 가스는 Tabun 가스보다는 더 발전된 화학약품이며, 이 두 화학약품은 소련의 표준 약품임이 거의 확실하다.

소련이 VX를 생산하도록 선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소련은 그 대신에 어떤 다른 내구성 신경 약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소련의 군 신문에는 VR-55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으며, 이 화학약품은 충분히 내구성이 보다 강한 Soman 형의 가스가 될 수도 있다.

소련의 신경가스의 해독제는 NATO군의 해독제인 Atropine보다 Soman 가스에 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는 소련이 중요한 약품으로서 Soman이나 어떤 화생물질을 주시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다.

CW 약품은 약품의 생리상의 효과나 약품의 효능 및 약품의 내구성에 의하여 유용하게 분류할 수도 있다. 후자인 효능 및 내구성에 대해서는 Table 1 및 2에 표시되어 있다.

질식 및 방혈약품과 같은 일부 약품들이 가스로 살포될 수도 있다(이와 같은 약품들은 약품을 운반하는 탄약이 충격할 때, 거의 동시에 기화하는 고도로 휘발성이 강한 액체 물질들이다).

다른 물질들은, 미란성 가스나, VX 또는 VR-55와 같은 농도가 짙은 약품일 경우에는, 작은 물방울로 살포되며 또는 에어로솔에 의하여 제조되거나, 약품이 휘발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종의 무색 안개와 같은, 액체의 형태로서 살포된다.

분명히 가스도 촉매 위험을 형성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가스는 흡수되어야 한다. 증기는 흡수될 경우 가장 위험하나, 노출된 살갗이나 눈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기는 적어도 투하 탄약의 충격지역에서는 제한된 지상 오염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Table 1 : Estimated potencies of selected CW agents

	Agent aerosolized or vaporised over target					Liquid agent sprayed on to target		
	To incapacitate		To kill					
	Respiratory, ID-50 (a) mg-min/m³	Time to effect	Respiratory LD-50 (b) mg-min/m³	Percutaneous LD-50 (b) mg-min/m³	Time to effect	Density of contamination for area denial kg/km²	Percutaneous LD-50 (b) mg/min absorbed	Time to effect
Phosgene (CG) (c)	1,600	3-12 h	3,200	NA	3-24 h	NA	NA	NA
Mustard (HD)	200 (d)	4-6 h	1,500	10,000	4-24 h	10,000	4,500	4-6h
Hydrogen Cyanide (AC)	NA	NA	5,000	NA	½-15 min	NA	NA	4-6 h
Tabun (GA)	100	1-10 min	400	40,000	10-15 min	2,000	1,000	1 h
Sarin (GB)	55	1-10 min	100	12,000	2-15 min	NA (e)	1,700	NA
Soman (GD)	25	1-10 min	70	10,000	1-15 min	1,000	1,000	½-1 h
Agent VX (f)	5	1-10 min	36	1,000	4-10 min	300	15	½-1 h

Notes : (a) Dosage estimated to incapacitate half those exposed to it.
(b) Dosage estimated to kill half those exposed to it.
(c) As gases, hydrogen cyanide and phosgene are only effective through the respiratory system. They disperse downwind and cannot contaminate ground.
(d) For eye injury.
(e) Sarin vapour disperses so rapidly that, save in very cold conditions, it is not suitable as a ground contaminant i.e. it is effectively non-persistent.
(f) The performance of agent VR-55 may be roughly similar.

Table 2 : Persistency of selected liquid CW agents (a)

Agent	Weather conditions		
	Sunny, around 20°C, light breeze	Wet and windy, around 10°C	Calm, sunny, lying snow, around −10°C
Mustard (HD)	2-7 days	1½-2 days	2-8 weeks
Tabun (GA)	1-4 days	½-6 h	1 day-2 weeks
Sarin (GB)	¼-4 h	¼-1 h	1-2 days
Soman (GD)	2½-5 days	3-36 h	1-6 weeks
Agent VX (b)	3-21 days	1-12 h	1-16 weeks

Notes : (a) The length of time for which contaminated ground/equipment may present a potential contact hazard.
(b) The persistence of VR-55 may be somewhat less.

가스와 증기는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표류할 것이며, 바람이나 증발작용에 의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하의 수준으로 가스의 농도가 감소될 때까지는 위험성을 내포할 것이다.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수준 이하로 흙 속의 화학제가 증발하여 화학약품의 농도가 감소되거나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때까지는 오염된 지상은 계속 위험할 것이다.

증발될 때에는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은 약간 위험하며, 그 위험의 범위와 정도는 투하된 화학제의 양과 증발률에 달려 있다.

화학약품이 높은 유독성을 갖고 있으면 상당한 이점이 있으며, 실제적으로 2가지의 이점이 있다.

첫째, 부대가 오염된 조사량을 깨닫고 어떤 방어적 조치를 취하려 할 때에는 이미 사상자를 낼 수 있도록 크게 오염시킬 수 있으며,

둘째, 소량의 화학약품으로도 사상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장거리를 살포 오염시킬 수 있다.

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내구성이 있는 화학제를 사용할 경우, 비교적으로 소량의 탄약의 사용과 후방지원의 노력으로도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Table 3은, 155mm 곡사포로, 내구성이 없는 Sarin 신경가스를 발사할 경우 피해를 받게 될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비하여 똑같은 155mm 포로, HE탄을 사용할 경우, 평균효과 지역은 약 6핵타아르(15에이커)가 될 것이다.

Sarin 가스 1mg은 치명적인 조사량이며, VX는 반 밀리그램 이하로도 인명 살상이 가능하다. Soman 가스는 어디서나 사이사이에 낙하한다.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약품 중에서, 수소시안화물은, 투하 시 몇 가지 문제점은 있기는 하지만 매우 신속하게 작용하고 증기보다 훨씬 가벼우며, 비내구성 화학제로서 공격 후 수 분이 지나면 공격부대가 안전하게 목표물 지역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

Table 3 : Influence of weather on the performance of Sarin
(Figures quoted are for a battery of 155-mm howitzers)

Weather conditions,	Wind strength	Mean area of effectiveness, hectares (a)			Downwind hazard km (b)
		−20°C to 0°C	0°C to 15°C	Over 15°C	
Early morning, late evening, or heavily overcast day	Light air	144	144	144	3
	Slight breeze	144	144	144	5
	Gentle breeze	72	96	144	10
Windy weather, day or night	Moderate breeze	29	48	72	25
	Fresh breeze	13	20	29	75
Sunny or slightly overcast day	Light air	48	57	57	1
	Slight breeze	29	36	48	1
	Gentle breeze	18	20	29	1
Calm night	Light air	144	144	144	45
	Slight breeze	144	144	144	75
	Gentle breeze	144	144	144	120

Notes : (a) Largest target over which 50% casualties are likely among unmasked personnel.
(b) Distance downwind of MAE over which a severe to moderate hazard may occur (a moderate hazard being one which produces mildly incapacitated casualties).

또한 수소시안화물은 방독면 Filter의 성능을 크게 감소시킨다. 따라서 다른 비내구성물질이나, 또는 더 많은 수소시안화물을 사용, 공격한 바로 직후에 유혈제 공격을 실시하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가장 알맞은 정도의 내구성이 있는 각종 화학제를 사용, 적진 깊숙하게 있는 각종 목표물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CW용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여러 가지의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미사일이나 로케트, 또는 폭탄이나 Spray Tank를 장착한 항공기는 후방 깊숙이 공격할 수 있으며, 포나 중박격포는 전방 지역에 있는 각종 목표물들을 명중시킬 수 있다.

각종 화학지뢰는 공격부대의 임무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충분한 방어 장비를 갖춘 부대에 화학적 공격을 감행할 때에는, 1분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화학제를 투하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습공격은 적의 방어조치의 채택을 지연시키는 데 매우 바람직하며, 따라서 적에게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할 수 있다.

화학적 기습공격은, 약 1,500~2,000m의 고도에서 미사일의 탄두를 폭파시켜 광범위한 지역에 VX 또는 VR-55의 화학제 빗방울을 살포시키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화학적 기습공격은 Spray Tank를 사용하는 항공기를 사용해서도 성취할 수 있다. 이는 항공기가 목표물의 상공을 비행하지 않고, 그 대신에 적을 향해 표류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서 증기(화학제)를 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중공격기나 포의 공격으로도 어느 정도의 화학적 기습공격을 성취할 수도 있으며, 화학전용 탄약은 HE 탄의 약 50%의 파편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많은 화학탄을 일시에 충격시키면, 화학제의 농도를 짙게 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바로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은 적은 어리둥절하게 되거나 혼돈하게 된다.

따라서, 다연신 로케트 발사대가 이상적인 투하체제이다(SM-21, 18문을 보유하고 있는 1개 대대는, 20초 이내에 720발을 투하할 수 있음). 그러나 보통 포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155mm 박격포 18문을 보유하고 있는 1개 대대가 2핵타아르(5에이커)에 Sarin 가스를 일제히 사격할 경우, 부대가 지쳐 있거나 Stress를 받고 있거나, 방독면을 착용하되 처음부터 착용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된 참호에 있는 부대에 대해서는 40~50%의 사상자를 낼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미국의 한 평가서에 나타나 있다.

똑같은 부대라도, 다소 능동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사상자율은 15~20%로 감소될 수 있으나 잘 휴식 되고 준비가 잘 된 부대에 대해서는 사상자율이 8%까지 감소될 수도 있다.

통풍이 잘되는 차량이나, 위에 덮개가 있는 참호에 있는, 부대에 대한 사상자율은 공개된 부대의 사상자율의 절반이 될 것이다.

CW의 제반 결점을 고려하지 않고는 CW의 잠재력을 단독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될 수도 있다. 모든 화학무기는 기상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바람의 방향은 비 내구성 화학제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분명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필요한 공격의 중량과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에 대한 위험의 범위는 바람의 강도와 영구성에 따라 결정된다. 높은 온도는 증발률을 증가시킬 것이며, 증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지역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온도의 원화율도 약품 살포의 신속성과 그 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는 공기의 흐름을 증가시켜, 증기 온도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내구성이 강한 약품을 투하하면, 기상에 약간 영향을 적게 받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내구성이 강한 약품들이 촉매위협을 시작하는 기간은, 증발률과 토양 및 강우량에 좌우될 것이다.

비는 액체 약품을 씻어 내려가게 할 수 있으며, 반면에 눈은 오염농도를 은폐시킬 수 있다. 또한, 지상도 은폐 효과를 갖고 있다. 증기는 언덕을 돌아서 계곡 아래로 이동하고 골짜기에 모이는 경향을 나타낸다.

액체오염은 빽빽한 숲속에서나, 또는 흡수되는 땅에서는 보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지휘관이 계획할 때에는 지상 및 기상의 영향으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지나치게 과장되어서도 안 된다.

Planner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큰 문제점은 적의 화학 방어 장비의 효과와 그 훈련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이 해결된다면, 적의 공격 능력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CW를 이용 방어를 제압 및 무력하게 할 수 있는 확신보다는 HE탄을 사용하여 방어를 제압 및 무력하게 할 수 있음이 더욱 확실하다. 따라서 공격부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순수히 CW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법은 논증할 수 있게 잘 구비되지 않은 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이는 후방차단 임무나, 또는 교란 임무 시에 사용된 내구성 약품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CW에 대한 군사적인 잠재력의 가능성은 분명하다. 훈련이 잘못되어 있거나, 훌륭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대에 대해서는 CW 공격은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떤 지침이 된다면 알맞은 장비를 보유하고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량의 살상자를 미연에 방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1917년의 서방 전선의 사상자 중 7.2%가 화학 가스에 의한 사상자였으며, 반면에 1918년에는 광범위한 규모로 미란성 가스가 소개됨으로써, 사상자의 비율은 15%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화학탄에 의한 퍼센티지의 절반도 훨씬 못 되는 숫자이므로, 인상적인 숫자라 하겠다.

그 이후부터 방어 장비는 크게 향상되어 온 반면에 신경 약품의 개발과 더불어 CW 약품은 더욱더 향상되어 왔다.

물론 화학무기의 효과는 발생된 사상자의 수적인 측면에서만 단독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

Table 4 : Effects of CW agents

Agent type / name	Method of attack on body	Effects	Rate of action
Nerve :			
GA (Tabun) GB (Sarin) GD (Soman) VR-55 VX	All by inhalation, ingestion or percutaneous absorbtion. G-agents most effective if inhaled.	Disruption of nervous system particularly vision, muscular co-ordination and breathing.	Inhaled or ingested 1-2 min. Percutaneously minutes to hours depending on concentration and protective clothing.
Vesicants :			
HD (Mustard) HN (Nitrogen Mustard) L (Lewisite) HL (Mustard Lewisite) CX (Phosgene Oxime)	Skin contact or ingestion-though internal damage can be caused if inhaled. (Droplets will penetrate ordinary clothing)	Burning or blistering of skin tissue. Mouth, nose, throat and lungs could be damaged permanently.	HD and HN : 12 h L, HL and CX : 1-2 h
Blood agents :			
AC (Hydrogen Cyanide) CH (Cyanogen Chloride)	Only by inhalation of vapour.	Prevents the blood from taking up oxygen. Circulatory and respiratory failure.	In high concentrations these agents act in a few minutes.
Choking agent :			
CG (Phosgene)	Only by inhalation of vapour.	Causes lung-damage leading to drowning as lungs fill with fluid.	Severe delayed effects after 2-4 h

니다.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공격하는 데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모든 부대들은 공기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적어도 방독면을 착용하여야 한다(Table 4 참조).

이는 약품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

내구성 약품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그들 자신을 발견하는 부대들은 더욱더 나쁜 상황에 있다. 이 둘은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먹거나 마셔보고, 신체상의 기능을 시험해 보고, 취침하는 일과 같은 행동은 위험하다. 일례로서, 내구성 약품에 의한 공격은, 본부나 후방지원부대 또는 일부 중요한 지역을 방어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전투부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술 상황에 따라. 목표부대가 이동하게 될 때라도, 그 부대는 오염물질을 운반할 것이다. 부대의 이동과 이동 후에 오염을 제거하는 일은 값진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화학적 공격은 부대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소모된 탄약량에 비하여,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동시에 내구성 화학약품은 후방차단과 오염된 지역을 부득이 통과하여야만 하는 부대에 오염제거 기간을 지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할 뿐 아니라 적이 어느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도

록, 또는 지역을 점령할 부대에 적어도 심한 고통을 부과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끝으로, 화학무기의 공격적 사용이 CW에 잘 숙달된 군에 대해서, 어떤 무형의 이익이 된다면 화학무기의 공격적 사용은 차기의 각종 전장에서 크게 이용될 것이며, 심리적으로나, 훈련 면에서 잘 준비되지 못한 적은 화학무기의 공격을 받게 될 때는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은 물론, 부대나 지휘관들이 주어진 임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혼동을 하게 되고, 차질을 유발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CW 무기의 종류 및 특성과 군의 이용에 대하여 언급하여 왔으나, 이후부터는 소련 화학무기의 공격적 이용과 투하수단 및 CW 전에서 화학무기의 사용 전망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하겠다.

◆ 무 제 ◆

발명왕 에디슨을 주빈으로 한 어떤 만찬회 석상에서 사회자 이하 여러 사람들이 지루하게 에디슨을 높이 찬양했다. 마지막에 일어선 에디슨은 답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명한 축음기는 듣기 싫을 때는 언제든지 끌 수가 있습니다.

미국(美國)의 미사일 개발(開發)

강 신 일 역(譯)

1. 머리말

미국(美國)의 전략공격무기(戰略攻擊武器)의 운용개념(運用槪念)은 삼각전략개념(三角戰略槪念)(TRIAD CONCEPT)이다. 즉 지상(地上), 공중(空中), 수중(水中) 중에서 핵탄두의 미사일로 공격(攻擊)하는 것으로, 지상(地上)에서는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나 Pershing Ⅱ와 같은 핵미사일로, 수중(水中)에서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1)이나 SLCM 2)로, 그리고 공중(空中)에서는 전략(戰略)폭격기에서 발사하는 ALCM 3)에 의한 공격 개념(槪念)으로 그 기조(基調)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레이건 미행정부(美行政府)는 점차적으로 현재(現在) 지상(地上) 핵전력으로 배치중(配置中)에 있는 ICBM "TITAN", "MINUTEMEN Ⅱ"를 "MINUTEMEN III", "MX 미사일"로 교체(交替)하며, 수중(水中) 전략(戰略)무기로는 "POSEIDON(UGM-73)"을 "TRIDENT I" 미사일을 탑재한 TRIDENT 핵잠수함으로 점차 대체하고, 공중(空中) 전략핵전력(戰略核戰力)도 B-52나 FB-111에서 B-1기(機)로 교체(交替)하여 80년대(年代) 말(末)까지는 전략핵전력(戰略核戰力)을 지상(地上)에서는 MX미사일, 수중(水中)에서는 SLCM, SLBM을 발사하는 「T-RIDENT」 핵잠수함 그리고 공중(空中)에서는 ALCM을 발사하는 전략폭격기 B-1의 3각체제(3角體制)로 완전(完全) 단일화(單一化)하여 대소(對蘇)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결의(決意)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미(美)의 이 삼각전략(三角戰略) 개념하(槪念下)에서 개발(開發)하고 있는 미사일인 "MX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MX미사일

그동안 미국은 ICBM으로 작전배치(作戰配置)하고 있던 ATLAS를 1962년에 폐기한 후 현재 작전배치(作戰配置)하고 있는 것은 TITAN과 MINUTEMAN Ⅱ, Ⅲ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대부분(大部分) 단일탄두(單一彈頭)이며 목표(目標) 유도방식(誘導方式)이 단순한 독립(獨立) 개별목표(個別目標)를 추적(追跡)하는 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식(式)을 취(取)하고 있어 소련의 최신에 요격체제는 취약할 뿐 아니라 대소(對蘇) 핵공격능력(核攻擊能力)의 강화(强化)를 도모하기 위해 핵탄두 수가 무려 10개나 되며, 탄두가 목표(目標)에 접근(接近)할 때 요격망을 자동회피하여 목표물(目標物)을 명중(命中) 시킬 수 있는 MaRV(Maneuverable Reentry Vehicle) 방식개념(方式槪念)에 입각하여 차기(次期) ICBM의 주력(主力) 미사일로 개발(開發), 생산(生産)에 착수(着手)하였다.

그런데 MX 미사일은 그 배치(配置)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초기엔 소련의 선제공격(先制攻擊)을 회피할 수 있도록 네바다 및 유타주(州)의 사막 계곡에 지하(地下)터널 이동식(移動式) 배치방식(配置方式)을 고려하였으나 엄청난 예산 소요와 배치예정지역(配置予定地域) 주민(住民)들의 강력(强力)한 반발(反撥) 등으로 인하여 그 대안(代案)으로 항공기(航空機)에 탑재시키는 방법(方法)과 우주위성에 탑재시키는 방법이 건의되기도 하고 함정에 적재하는 방법(方法) 등이 거론되었으나 미공군(美空軍)은 MX 미사일의 밀집(密集) 배치방식(配置方式)을 최종적으로 건의(建議)하였는데 그러한 주장의 기술적(技術的) 배경을 살펴보면 100기(基)의 미사일을 약 10mile^{2}의 좁은 지역(地域)에 밀집배치(密集配置) 해놓을 경우 이를 전부(全部) 파괴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적의 핵미사일의 탄두를 오백만 분의 일 초 간격으로 100개 이상 연속 폭발시켜야 하나 현 소련의 기술 수준(技術 水準)으로는 오백만 분의 일 초 간격으로 핵탄두를 발사 연속 폭발시킬 수 없으며. 만약 소련이 밀집 배치된 동(同) 미사일 격납고 파괴를 위해 핵 공격을 시도할 경우 공격 미사일 중 최초(最初)의 핵탄두가 공중폭발(空中爆發)하게 되면 밀집 목표를 향해 발사된 후속 핵탄두가 공중(空中)에서 파괴되어 자멸하게 되거나 방출(放出)되는 방사선(放射線) 및 중성자(中性子)와 낙진 등에 의해 방향감각(方向感覺)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MX 미사일은 최소한의 피해를 받게 되고 잔존 대부분(大部分)의 미사일로 반격이 가능(可能)하다는 이론(理論)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밀집배치(密集配置) 방식(方式)도 문제점은 있다. 그것은 만약 소련이 대형(大型)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동(同) 배치지역을 공격할 경우 충격과 고열(高熱)에 의한 격납고의 파괴 및 MX 미사일의 폭발 가능성(可能性)이 상존(尙存)하고 있어 배치문제에 대한 보완책(補完策)이 보다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세기의 이목을 끄는 위력을 가진 MX 미사일의 제원 및 성능을 알아보면 이동용 ICBM으로 MaRV화(化) 되어 관성항법장치에 의해 유도된다. 4단계의 추진체를 갖고 있어 1~3단계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4단계는 액체연료가 사용된다. 미사일의 전장은 21.6m, 체경은 2.34m이고, 탄두 형태는 10개의 MK-—12A MIRV가 있고, 1개의 탄두위력은 330KT의 위력을 갖는다. 발사 중량은 86.170kg으로, 사정거리는 6,000 NM, 속도는 마하 22이고, CEP는 30~100m로 평가되고 있다. 1986년에 작전 배치될 예정으로 되어있는 이 미사일은 1990년대의 주력 ICBM으로 활약하게 될 것이다.

3.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

순항(巡航)미사일(Cruise Missile)이란 무장(武裝)된 소형(小型) 무인비행체(無人飛行體)로서 비행(飛行)하는 대부분(大部分)의 시간에 추력(推力)을 계속 발생하면서 항공역학적(航空力學的) 양력(揚力)에 의하여 비행(飛行)할 수 있도록 추진장치를 구비한 유도미사일을 말한다. 비행 중 계속적으로 추력(推力)을 발생(發生)한다는 점에서 Booster에 의하여 궤도로 발사되는 탄도(彈道) 미사일(Ballistic Missile)과 다르며 크루즈 미사일은 항법장치에 의하여 지시된 비행 항로를 따라 비행한 후 목표물을 공격한 다음 그대로 버리는 병기운반수단이다. 사정(射程) 거리에 대해서는 특별(特別)히 언급(言及)하지 않더라도 5km나 10km 따위로는 순항(巡航)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의(定義)된 순항미사일의 원조(元祖)는 제2차대전(第二次大戰)까지 거슬러 올라가 독일 공군(空軍)이 개발(開發)한 V-1이라 할 수 있다. V-1은 1944년 6월 13일 최초로 런던을 향해 프랑스 북부(北部)로부터 발사(發射)되었는데 V-1이 수평직선비행(水平直線飛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영국공군(英國 空軍)은 곧 전투기(戰鬪機), 대공포화(對空砲火), 기구(氣球) 등으로 편성된 방공(防空) System을 구축하여 절반 이상의 V-1을 요격하였다.

대전 후(大戰 後) 미국과 소련은 크루즈 미사일의 개발을 계속하여 왔으나 미국은 1950년대 후반에 대륙간 탄도탄(ICBM)의 기술 개발(技術開發)에 성공(成功)을 거두자 크루즈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하였다.

한편 소련은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 와 현재는 지상(地上), 수중(水中) 및 공중(空中)에서 발사가 가능하며, 다양한 속도와 사정거리를 가진 작전용(作戰用) 크루즈 미사일을 생산(生産)해 왔었다.

그런데 그동안 탄도 미사일에 대한 기술 개발의 성공(成功)으로 자기도취에 빠져 있던 미국은 소련의 크루즈 미사일(STYX)로 이집트가 이스라엘 구축함을 격침을 시켰을 때 큰 충격을 받아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미 국방성(美 國防省)은 세 종류(種類)의 미사일[공중(空中), 수중(水中), 지상(地上)] 개발 계획(開發計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977년 합동(合同) 순항(巡航)미사일 개발국(開發局) (JCMPO) 4)을 설립(設立)하여 다수업체(多數業體)의 공개(公開)경쟁에 의한 개발 정책(開發 政策)을 실시(實施)하고 있다.

JCMPO에서는 세 갈래의 개발 계획(開發 計劃)을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이중 SLCM 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ALCM은 초기 생산단계에서 약간 늦게 착수하였으며 GLCM은 Pershing II 탄도 미사일과 한동안 경쟁이 되기도 하였고 중성자(中性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각(各) 종류별(種類別) 미국의 순항미사일을 알아보면,

◎ 공중발사(空中發射) 순항(巡航) 미사일(AL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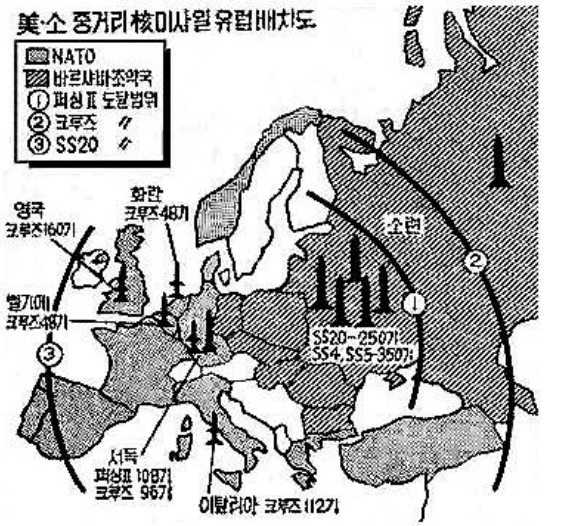
미국의 전략공군사령부(戰略空軍司令部)(SAC)가 운용하는 것으로 전략폭격기에 탑재하여 발사하게 되는데 Boeing사(社)의 AGM-86(사정거리 : 2,500km) General Dynamics 회사가 개발(開發)한 AGM-109(사정거리는 AGM-86과 동일)가 있다. 이를 운반하기 위한 전략폭격기로 그동안 B-52G가 맡아 왔고 몇몇 대형 민간항공기가 고려되어 왔으나 최근 Rockwell International사(社)의 B-1 폭격기 생산이 재개되므로 유력시되고 있다.

◎ 수중발사(水中發射) 순항미사일 (SLCM)

General Dynamics/Convair사(社)인 TOMAHAWK는 공중발사(空中發射) AGM-109와 같이 날개 길이가 2.6m, 길이가 5.6m이며 핵탄두를 장착할 때 사정거리는 2,500km이며 유도장치는 지형형태 매칭 장치를 가지는 관성항법이다.

◎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GLCM)

GLCM 역시 지상발사용 TOMAHAWK로 소련의 SS-20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Pershing II보다 저렴하며 길이는 6.4m, 유도방식은 지형형태 매칭(TERCOM)과 관성 유도방식을 쓰며 사정거리는 2,500km의 전역핵(戰域核) 미사일이다.



미국과 NATO 동맹국들은 소련의 SS-20의 실전배치에 대항하기 위하여 금년 말부터 Pershing II 탄도 미사일 108기(基)와 지상발사(地上發射) 순항미사일 464기(基) 등 도합 572기(基)의 사정이 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림 참조) 이에 소련과의 중거리 핵무기감축협상(INF)으로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설전을 펴고 있다.

◎ 지형형태(地形形態) 일치장치(一致裝置)(TERCOM)란?

TERCOM은 원하는 비행 항로(飛行航路)에 관한 사전(事前)에 입력(入力)시킨 컴퓨터 메모리와 실제(實際)의 지고(地高)를 일치(一致)시키기 위해 Radar 고도계(高度計)를 사용한다. 거의 계속적인 측정(測定)과 수정작동(修正作動)을 함으로써 목표(目標)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고도(高度)의 정확성과 방어물이나 산(山) 또는 인조물(人造物)들을 회피하기 위한 회피기동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CEP가 불과 몇 미터라고 군사기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정확성이라는 것은 물론 대조비교 모형자료의 세밀화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한편 미국은 소련에 대한 정찰과 지도 작성으로 약 40,000개의 잠재적 공격목표에 대한 충분(充分)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TERCOM의 기술을 이용한 순항미사일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미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TERCOM의 원리 그 자체에 몇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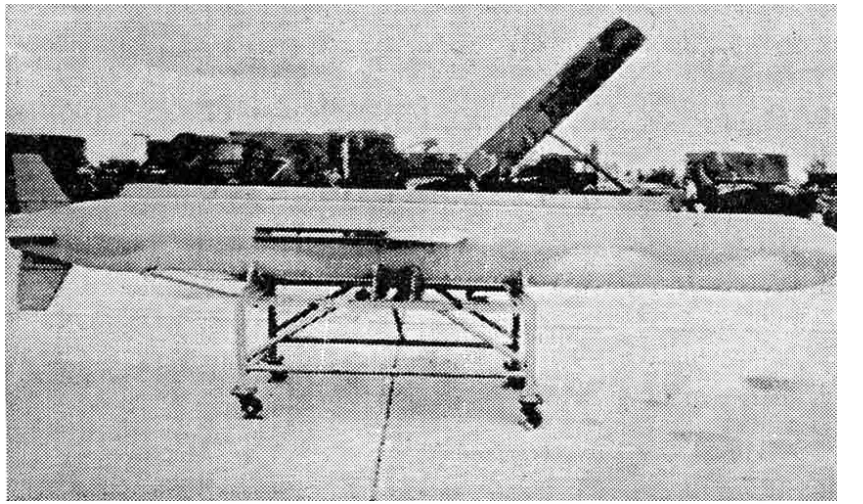
TERCOM은 수상(水上)이나 평지(平地)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계절에 따라 혹은 바람이나 물의 힘에 의해 변하는 지형(地形), 예를 들면 사막, 해안, 겨울철의 동결(凍結)지대 등에도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현재 소련이 미국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확실하나 순항미사일이 장래에도 적의 영공에 별 어려움 없이 침입할 수 있을지 어떨지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다.

미국이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이후 소련은 필사적으로 방공망을 강화하며 순항미사일의 내습을 가상한 요격훈련을 행한 적이 있다. 요격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방위선(防衛線)을 전진(前進)시켜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폭격기나 잠수함을 발사 전 혹은 제1탄(第一彈)을 발사한 후라도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方法)은 지상(地上)을 스칠 정도로 비행하는 목표물을 포착할 수 있는 Look Down 능력(能力)이 있는 AWACS기(機)와 Shook Down 능력(能力)이 좋은 요격기와의 합동(合同) 운영으로 이러한 방법을 미·소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은 목표(目標)가 될만한 주위에 Radar, 레이저, 적외선(赤外線) TV 등(等)의 탐지기로 통제되는 발사율이 높은 기관포 등을 설치하는 방법은 CEP가 극히 작은 순항미사일이 사정권 내에 날아올 경우 요격률이 높아질 것이다.

4. 맺는말

미국과 소련은 그동안 전략무기제한협정(戰略武器制限協定)(SALT) 그리고 1982년 5월 9일 미국이 소련에 제의(提議)한 전략핵무기(戰略核武器) 감축협상(減縮協商)(START :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에 이어 유럽 중거리핵전력(INF)협상과 유럽 상호균형감축교섭(MBFR) 등이 열렸지만, 더 이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양국의 핵미사일 개발 및



◊ **유럽에 배치될 크루즈 미사일** NATO(북(北)대서양조약기구) 국가에 배치될 크루즈 미사일 및 저장통의 모형이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의 이동발사대 앞에 선보이고 있다.

배치는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이미 만들어 낸 미국이나 소련의 핵미사일은 전 세계 어디든지 초토화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과 양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마침내 레이건 미 대통령(美 大統領)은 3월 23일 초강력무기개발(超强力武器開發)을 발표하였다. 이 초강력병기는 지구 외기권에서 발사하여 날아오는 ICBM이나 해상의 함정 등을 단번에 격파하는 놀라운 위력을 가진 레이저 무기다. 미국은 3백억 달러를 들여 개발하면 머지않아 지구 외기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高)에너지 무기의 시험비행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성의 고급기술 연구소가 우주에 기지를 둔 레이저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록히드사(社), TRW사(社), 이스트맨 코닥사(社) 등을 포함한 회사(會社)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한다.

미국방성(美國防省)이 추진하고 있는 화학 에너지 장치는 기습공격이 있을 때 최초 2백 50초 동안에 1천 발의 소련 미사일을 격추할 것을 목표(目標)로 하고 있는데 개발하려는 이 화학 레이저 장치는 액체수소와 불소의 화학반응을 동력(動力)으로 한 알파 레이저 장치(TRW사(社)), 레이저 광선을 목표(目標)에 집중(集中)시킬 직경 40ft의 광학 거울(이스트맨 코닥, 코닝 글라스, 록히드사(社)), 추적 및 조준장치(록히드사(社))가 포함되어 있다. 천 개의 미사일이 발사될 소련의 기습공격을 일시에 무력화시키자면 적어도 세 개의 남북궤도를 선회하는 24개의 궤도레이저 스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8개의 레이저 스테이션이 항상 소련의 주요미사일 발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사정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무기개발추세는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로부터 우주 전쟁에 대비한 초강력병기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해석(註解釋)
  (1) Submarin Launcher Ballistic MSL.
  (2) Submarin Launcher Cruise MSL.
  (3) Airborn Launcher Cruise MSL.
  (4) Joint Cruise Missile Project Office.

◎ 오해 ◎

미국의 유명한 목사 필립 브룩스가 중병에 걸려 손님의 면회를 일체 사절하였다. 그런데 법률가 잉거솔만은 병실에서 면회를 허락했다.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법률가에게 임종의 목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과는 천국에서 또 만나겠지만 당신과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인간의 존엄성

장 병 림 (張秉琳)

〈서울대학교(大學校) 교수(敎授)〉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신라의 의사(義士) 박제상(朴堤上)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다. 삼국유사에는 김제상으로 되어 있지만, 김씨(金氏)나 박씨(朴氏)나 신라 귀족이며 박제상도 신라 귀족이었던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신라 눌지왕(訥祇王)의 동생인 미해(美海)가 일본의 요청에 의하여 그곳에 인질로 간지 30여 년이 되는 데도 돌려보내지 않으므로 마침내 박지상을 사절(使節)로 보내어 데려오기로 하였다. 명(命)을 받은 박제상은 일본은 신의가 없으므로 정당한 방법으로는 데려올 수 없을 것이니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다. 박제상은 일본에 가서 자기는 본국에서 죄를 짓고 망명을 한 것이라고 속였다. 일본에서는 그의 태도가 진실하다고 보고 그를 믿게 되며 그는 마침내 미해와 사귀게 되었고 그들은 같이 어업에 종사하였다.

마침 어느 날 안개가 짙게 끼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으므로 박제상은 미해의 탈출을 권하고 자기 혼자만이 남고 그를 띄워 보냈다. 박제상은 미해가 떠나는 것을 보고 빨리 미해의 방에 들어가 이튿날까지 일어나지 아니하고 미해가 멀리 가서 추적 못 하게 되었을 때 미해의 탈출을 공개하였다.

일본왕이 박제상을 가두고 심문하기를 「네가 어째서 너의 왕자를 탈출시켰느냐?」 하니 「나는 신라의 신하이므로 나의 임금의 뜻을 받들어 행한 것뿐이다.」 라고 대답하니 「네가 벌써 나의 신하가 되었는데 어찌 신라의 신하라 하느냐? 이제라도 일본의 신하라는 것을 자인하면 상록(賞祿)을 줄 터이요, 다시 신라의 신하라고 하면 혹형(酷刑)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한즉 박제상은 엄숙한 태도로 「차라리 신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일본의 신하는 되지 않겠으며 차라리 신라의 매를 맞을지언정 일본의 벼슬은 받지 않겠다.」 하니 일본의 왕은 노하여 박제상의 발의 가죽을 벗겨내고 갈대의 밑뿌리를 뾰족뾰족하게 잘라놓은 위로 걷게 하면서 「이제는 어느 나라의 신하냐」 한 즉, 역시 「신라의 신하다」 라고 하였다. 그들은 또 벌겋게 달은 쇠 위를 걷게 하면서 또 묻기를 「어느 나라의 신하냐?」 고 하였으나 역시 「신라의 신하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가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목도(木島)에서 태워 죽였다고 한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마는 장렬한 그의 충절(忠節), 높은 기개(氣慨), 강철같은 의지는 인간의 존엄성의 제시이며, 현대를 사는 약삭빠른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인간 회복의 역사적 숙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의와 양심과 이성을 저버리고 저두굴신(低頭屈身)으로 눈치만 살피며 출세와 영달을 바라는 비굴한 삶을 경계한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사람은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일이라도 자기의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하며 그것에 당당한 자랑과 자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생산적이며 건설적이며 가장 사회적 의의를 갖는 밝고 가치 있는 생활행위일 것이다. 그리고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중심으로 의연한 생활 자세로 건전하게 스스로의 발걸음과 신념으로 증진하며 인간적 품위를 굳게 보존한다는 것에 바로 인간의 존엄과 겸허한 미덕이 존재하는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곤경(困境)에서도 정정당당한 생각, 넓고 큰 시야,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동, 누구도 범할 수 없는 높은 품위, 그리고 아무리 고단한 형세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책임하에 해결하려는 용기에 인간의 존엄과 굳은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 공익을 무시하고 비리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영달과 출세를 위하여 아첨과 추종으로 동가식(東家食) 서가숙(西家宿)하는 비굴한 사람들, 인간적 양심과 지조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시류(時流)에 편승하여 사회를 어둡게 하는 사람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망각하는 사람들, 이들이 오늘이라는 귀중한 한 역사를 정체시키고 침체시키는 것이다.

우리도 박제상의 지조와 의지를 배워 흐려진 사회를 밝게 비춰야 하지 않겠는가.

고사・일화

양자가 송나라에 가서 어떤 여관에 들었다. 그 여관 주인에게는 두 첩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미인이었고, 한 사람은 못난이였다. 그런데 그 못난이는 귀염을 받고 그 미인은 천대를 받고 있었다. 양자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저 미인은 저 스스로 미인인 체하기 때문에 나는 그 아름다움을 모르겠고, 저 못난이는 저 스스로 못난 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못남을 잘 모르노라」 하였다.

나의 공군(空軍) 시절

전 재 수 (田在洙)
〈시인(詩人)〉

만 6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내가 공군을 떠난 지도 만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만 43세까지 실시되는 공군 예비군 장교도 금년으로 전역이라니까 공군과는 또 더 멀어지는 것인가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이 앞선다.

전역할 때, 그때 정훈감실에서 감님으로부터 복무기념패를 받아드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때의 심정 그대로 공군과는 정이 들대로든 내 인생은 영원한 공군 가족으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인연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천 번 만 번 공군을 지원하게 된 일이 잘했던 것 같고, 정말 공군에서 내 청춘의 중요한 시절을 보내면서 참으로 배운 것도 많았다. 대학 시절까지 내가 쌓은 기량이 있었다면 그것은 문학(文學) 쪽이었고, 편집(編輯) 일이었고 신문(新聞) 일이었다.

군대에서의 나의 특기는 내 적성에 맞는 것이어서 내 미력이나마 공군을 위하여 일한다고 마음먹고 뛰었다. 공보업무(公報業務)에 종사하다 보니 대인(對人) 관계도 많았고 윗분들을 상대할 시간도 퍽 많았다. 공군에서 내가 만난 상관들은 모두가 다정한 형님 같으신 어른들이었다. 어느 군대(軍隊)보다 인화(人和)한 가운데 후배와 후진을 사랑하는 어진 분들이었다. 기라성같은 그분들은 지금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노상 그리울 뿐이다.

이즈음에는 그 흔한 양주와 깡맥주들이지만 그때에는 정말 임관 후에야 처음 조니 워커의 맛도 보게 되었고. 미 공군 클럽에서 깡맥주도 즐기게 되었다. 공군에 입대하기 전(前)에는 그야말로 창경원의 장난감 비행기나 탔을 뿐인데 임관 후 타 보는 비행기의 맛이란 참으로 사내가 즐겨야 하는 가장 큰 보람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C-46, C-54 수송기는 정기 스케줄이 있어서 서울로, 부산으로, 제주도로 아니 다닌 데가 없이 많이 탔고, C-120기도 타 보았으며, UH-1H, CH43, 0-1A, L-19, L-20 등(等)은 업무상 수없이 탔었다. 뿐만 아니라 시험비행하는 제트기(機) T-33, F-5B, F-4D 등(等) 업무상 필요 있을 때는 많이도 탔다. 아마 각종 장교치고 나만큼 비행시간이 많은 사람도 드물 것이다.

제대 후에도 2차에 걸친 해외여행으로 점보기(機)를 비롯해 Boing 747, 737, 727, 707 등(等) 지금까지 비행시간이 400시간에는 능히 달할 것이다. 지금도 1년(年)에 한두 번 뜨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견디지 못하여 KAL을 타고 정처 없이 날아가 본다.

이 모두 공군이 내게다 안겨 준 선물이요 공군이 내게다 길러 준 버릇인 셈이고, 그러고 보면 나는 마땅히 공군인(空軍人)이어야 했을, 천성적(天性的)으로 공군(空軍)에 걸맞은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지금 어디에서들 어떤 폼으로 살고 있을는지 궁금한 동기들, 후보생 때 앨범편집장을 맡았다고 해서 내가 특별훈련을 자초(自招)하는 줄 알고 나를 원망했던 그 동기생들의 모습이 또한 궁금하기도 하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또 공군에 갈 것이고 또 정훈장교를 하겠다는 나의 평시의 소신은 늘 변함이 없다. 이러한 내 소신은 만 2년간 국방부에서 타군(他軍)과 근무해본 나로서는 타군(他軍)과 공군(空軍)이 비교되기 때문에 더욱 공군(空軍)이 좋다는 쪽으로 기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영원한 공군 가족, 비록 몸은 군을 떠나와 사회(社會)의 다른 측면(側面)에서 생활하고는 있어도 공군은 나의 영원한 향수(鄕愁)의 대상(對象)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파란 제복을 보아도 곧 친근미가 가게 되는 소이(所以)라 아니 할 수 없다.

지금 미력한 힘으로 내가 공군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마는 문학(文學)의 관심을 그쪽으로 기울여 오늘의 공군을 위하여서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졸업한 학교(學校)를 모교(母校)라고 한다면 공군(空軍)은 나의 모군(母軍)이요, 변하지 않는 연인(戀人)임에 틀림이 없다.

공군(空軍)이여. 부디 막강한 현대전력(現代戰力)의 일선(一線)에서 그 주역(主役)으로의 힘찬 전진(前進)을 가속화(加速化)하여다오. 그 공군(空軍)의 믿음직한 존재(存在)가 있으므로 우리 국민(國民) 모두가 안재(安在) 하는 실감(實感)을 부디 다른 사람 모두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 다오.

공군을 만드시고 키우시던 선배들을 그저 신화적(神話的) 대상에다 올려놓고_생각할 일이 아니라, 지금 공군은 그 신화(神話)를 알차게 영글게 해나가고 있는 활력(活力)의 기전(起電)을 우렁차게 발진 중(發進 中)일 것이리라.

공군이여, 영원하여라.

시(詩

조국(祖國)이여

– 6•25초 역사의 현장에서 –

문 상 명 (文相明)
육군대령(陸軍大領) 예(豫)
현(現)•현대시인협회(現代詩人協會) 중앙위원(中央委員)

싸늘한 빗줄기
새도록 곡하며 쏟아지던
그 밤 그 새벽
우리는 수도 서울을 잃었다.

꿈은 아니다
의식을 총검으로 찔러보아도
정녕 꿈은 아니로구나.

지축도 부러졌는가
고막을 찢는 포성 틈틈이
가슴을 찢는
피난민의 울부짖음 뒤에 남기고
그 애절한 목소리 뒤에 남기고

강행된 후퇴전은
영등포서 시흥으로
또다시
수원에서 대전으로…….
발밑은 사뭇 어둡기만 하는데

새로운 방어선의 확보라기보다는
닥치는 대로 싸우고
되는 대로만 옮겨가던
우리들에겐
한 대의 탱크도 없었고
한 대의 전투기마저 없었다.

차라리
탄약 없는 소총보다는
우리들 투지의 주먹이
적의 가슴막을 꿰뚫고
우릴 조롱하던
적 탱크 배때기엔
그나마 모자란
TNT를 안고 뛰어들어
많은 젊음이
많은 함성이
많은 원한이
육중한 무쇠덩이와 함께
폭파되어가고 있던
낮과 밤

전투복은 갈래갈래 찢어져
피와 땀과
또

진흙탕에 버물려
빛과 냄새마저 분간할 수 없었던
72시간 동안
우리는 건빵 한 조각도 입에 넣지 못한 채
곤욕의 후퇴전을 거듭하였다.

말하라 하늘이여!
이 무슨 짓궂은 운명의
후손들이기에
아!
이제 또
우리는 주검보다 무겁고
굶주림보다 괴로운
후퇴전 만을 일삼아야 한단 말인가.

가는구나
가는구나
우리도
원수도
남으로만 가는구나
길게 무겁게 남으로만 가는구나
정의도
역사도
조국도
또
겨레도
뒤는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들 헐떡이며
정녕 남으로만 가는구나.

이
길이
삶의 길이라기보다는
자유가 함께 가는 길이기에
정처도 없이
자꾸만들 가고 있구나.

겨레는 뼈저리게
우리만 따라오는데
우리 소수의 군대를 방패 삼아
모두들
뒤따라만 오는데

눈 밑의 대지는 꿈틀거리고
하늘 또한
머리 위에 벅차게도 무겁구나.

오! 너무도 빨리
압축되어 가고 있는
나의 조국이여!
죽음보다 절박한
그대
비분의 눈물을
이제
소금 꽃 희게 핀
우리의 갑옷으로 닦고

마디마디 사무친
그대
치욕의 역사는
우리
마지막 한 방울의 피
남김없이 뿌려
이를 씻어보리니…….

다만
초연 속에
아득한

내 생명 조국이여!
내 사랑 민족이여!
내 비분 피 끓는 역사여!

단편문학

산중고발

하 근 찬 (河瑾燦)

눈은 산악지대에 더 자주 쏟아져 내렸다. 걸핏하면 하늘이 찌푸리듯이 무거워지며 눈 잎사귀가 휘날리곤 하였다. 눈 위에 또 눈이 내리 쌓이는 산중은 어디를 둘러 보아도 온통 싸늘하고 눈부신 빛깔로 그득하였다. 눈 속에 묻혀 있는 듯 마을이 있었다. 메안골이라고 일렀다. 지금 막 머리를 쳐드는 버섯들 형국이었다. 해질녘이 되면서부터 산머리 위에 머훌거리던 구름이 나지막하게 기울어지며 희뜩희뜩한 것이 묻어 내리기 시작하였다. 눈이 내리는 날은 땅거미도 쉬다 가는가 보지, 서쪽 산등성이 위에 나부끼고 있던 보랏빛 노을이 사라지자 어둠살이 이내 젖어 들었다.

마을에 불빛이 가물거리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하늘은 어느덧 검정빛으로 변해 있었고 산봉우리들도 빛을 잃은 몸뚱어리를 무겁게 도사렸다.

마을 뒤 언덕배기에는 성냥곽 만한 국민학교가 놓여 있었다. 짙어 오는 어둠과 쏟아지는 눈발이 휘감겨 끽소리도 없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이 눈 내리는 산골의 밤은 무섭도록 고요하였다. 이런 날이면 곧잘 오소리랄지 늑대가 마을로 뛰어 내려오는 것이었다. 한 번은 아직 초저녁인데 학교 쪽 언덕에서 호랑이 우는 소리가 들려온 적이 있었다. 집집마다 방문을 닫아걸고 숨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것들은 호랑이라는 바람에 질겁을 하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노인네들은 아직도 산에 산군(山君)이 남아 있었구나 하며,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두 눈을 휘둥그러니 해가지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가만히 귀들을 기울였다. 힘깨나 쓰는 축들은 저놈을 그만 때려 눕혀버릴까 보다고 괜히 헛주먹을 내두르며 떠들어대기도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 학교 운동장에는 호랑이의 발자국에 틀림없는 자국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 남아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눈 내리는 밤이면 사립문을 단단히 비끌어 매고 일찌감치 이불 밑으로 기어드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가 아니었다. 그런 일이사 오히려 뒷날 재미있는 얘깃거리가 되어 주어 싫지 않았다. 짐승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옛날이야기였다.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다.

먼 산을 바라보며 컹컹 개가 짖기 시작하였다. 산이 찌렁찌렁 울리자 얼른 불을 꺼버리는 집도 있었다. 메아리가 산허리를 타고 자꾸자꾸 멀어져 간 다음, 요란스럽던 사방은 도로 물속처럼 고요해졌다. 어느 먼 골짜기에서 늑대라도 내려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아무 기척도 들려오지는 않았다. 함박눈만 푸덕푸덕 실컷 쏟아져 내린다.

기름불이 지지지 소리를 내며 접시를 핥고 있었다. 불꽃이 나불거릴 때마다 매캐한 그을음이 피어올라 방안공기를 퀴퀴하게 물들여 갔다. 국민학교 숙직실이었다.

인배는 두툼한 잠바를 입은 채로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시험지를 채점하기에 여념이 없고, 달수는 휘청한 허리를 구부정해 가지고 화투장으로 열두 달 운수 보기 패를 떼고 앉아 있었다. 무슨 신명인지 달수는 그 시시한 수작을 곧잘 되풀이하였다. 이번에는 패가 2월 매조에 가서 딱 붙어버렸다. 한 번도 열두 달 전부가 시원하게 일어나 주질 않는 것이다. 운수란 놈이 아무래도 신통치가 않은가 보다.

화투장을 끌어모아 다시 또닥또닥 간추리면서 되게 한바탕 기침이었다. 곧 자지러진다. 가래가 끓어 올랐다.

"아으 죽겠다."

하면서도 또 패를 놓는다. 이번 화투장은 재물 재(財)자 형용을 근사히 이루어 갔다. 1년 운수는 그만큼 해 두고 이제 재물 운수를 보자는 것이다.

"안 순경(安 巡警) 또 노루 잡았다더라."

패를 차근차근 뒤집어 나가다가 불쑥 혼잣말처럼 뇌였다.

"하아, 언제요?"

인배는 답안지 위에 척척 내리갈기던 빨강 연필을 잠시 멈추고 달수를 돌아보았다.

"어제, 출동 나갔다 잡았는데 송아지만 하다 캐."

"송아지만 한 노루가 어딨능교?"

"와? 있니라. 구장이 면에 나갔다 봤는데 좌우간 굉장히 크다커더라."

"벌써 몇 마리 짼교, 그 사람?"

"올겨울 들고 보자 …… 두 마리짼가, 세 마리짼가?"

"순경 때리치우고 포수질이나 하지."

연필이 다시 시험지 위를 바쁘게 내닫는다. 여전히 정신은 재물 재 자 위에 놓은 채달수.

"내일은 애들 데리고 토깽이나 잡으러 갈까구마."

인배는 킥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달수의 맛 없이 큰 입도 한 판 하자는 것이다. 쇠털같이 많은 날에 뭐 그리 열심이냐는 것이다.

"자아 어서!"

"가만있으소, 인제 몇 장 안 남았구마."

인배는 아무래도 채점을 깨끗하게 마쳐버려야 놀아도 흥이 날 것 같았다. 화투장 두들기는 맛도 맛이지만, 한 아이 한 아이의 얼굴과 평소의 학습활동을 연상해 보면서 점수를 매겨나가는

재미도 실상 여간이 아닌 것이다.

"좋을 때다. 참!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니만, 아침에 일어나 세술하면 코에서 열이 다 터지고…… 그렇지만 어디 몇 해 해묵어 보지. 어으윽!"

달수는 늘어지도록 기지개를 켜고 나서 벌떡 그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마을 쪽에서 또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채점을 마치고 답안지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루룩 훑어 내려가는 인배의 얼굴에는 은근한 미소가 떠올랐다. 성적이 대체적으로 전번보다 좋아진 편이어서 여간 흡족하지가 않은 것이다. 휘파람을 가볍게 한바탕 휘날린다. 그리고 늘어져 누운 달수를 흔들면서,

"배 선생! 자아 한판 칩시다."

"잠이 온다. 어윽! 한 판 해 볼까? 술내기대여."

"그럽시다."

"한 되 내기다."

인배와 달수가 맞붙어서 토닥토닥 화투장을 두들기고 있을 때 부엌에서 군불을 지피고 난 판술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문 밖으로 밤하늘을 내다보며 인배,

"하아따 눈 많이도 온다. 이렇게 오면 토깽이 잡겠능교?"

눈가에 엷은 웃음을 흘린다.

"판술아! 주전자 어딨지?"

달수는 대뜸 주전자였다.

"또 술인교?"

"한잔해야 안 되겠나."

"으이구. 이렇게 눈이 오는데……. 좌우간 어서 결판이나 내이소."

판술이는 아랫목을 가서 여기저기 손바닥으로 짚어 본다. 이게 겨우 불기가 오르는 듯 미적지근하다. 이불을 내리깔았다.

육백은 갈수록 열이 났다. 첫판엔 달수가 70을 땄고 다음번엔 인배가 훨씬 위로 솟아올랐다. 달수는 곧장 눈알을 굴렁거렸고, 인배 또한 마음을 늦출 계제가 아니어서 화투장을 야물게 두들겨 붙였다. 달수는 새끼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후비적거리며 두 사람의 하는 수작을 번갈아 바라보곤 하였다.

밤은 하염없이 깊어갔다. 학교 쪽을 향해서 마을의 개들이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육백은 마지막 고비에 이르러 있었다. 오늘 밤 따라 개들이 극성스럽기는 했으나 저처럼 악다구니를 쓴다는 게 아무래도 수상쩍어 판술이 방문 쪽으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인배와 달수는 얼마 남지 아니한 끝장을 다투느라고 그런 일이사 도무지 아랑곳 아니었다.

"공산명월이야!"

"음! 또 송동월했구나. 문제없다. 국화 열 끝만 일어나라. 에익! 헤참."

"매조야아, 이키 매조다."

한참 신바람이 나는 판인데 그만 판술이란 놈이 깜짝 소스라치며 두 손바닥으로 화투판을 제지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서슬에 놀란 인배와 달수도 우뚝 손을 멈추고 서로 휘둥그레진 눈을 바라보았다. 순간 세 사람은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말았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달수는 저도 모르게 이불 밑으로 반신을 묻었고, 인배는 납작 벽에 붙어버렸다. 판술이는 어느결에 훌떡 뛰어 일어나 구석 켠으로 물러서 있었다. 기름불도 놀라 몸을 떨었다.

우두두 뛰어드는 인기척과 함께 '쿵' 하고 마룻장이 울렸다. 동시에 방문이 활짝 찢어지듯 열려 나가고 불쑥 다가든 것은 시꺼먼 두 자루의 총대였다.

"손 들엇!"

"손 들엇!"

나직하면서도 아귀 찬 고함 소리에 세 사람은 행여나 늦을세라 질겁을 하고 손들을 쳐들었다. 여섯 개의 손이 천장을 향해서 떨리었다. 인배는 눈앞으로 다가오는 동그란 총구멍을 바라보는 순간 어금니가 싸늘하였다.

"일어서란 말이야!"

인배가 뛰어 일어나자 달수도 따라 일어섰다. 온몸에 솜 눈을 뒤집어쓰고 있었으나 놈은 분명히 '도리우찌' 모자였다. 다른 한 치는 총을 불쑥 내민 채 문지방에 걸터 서서 곧장 대가리를 흔들어 댄다. 눈가루가 우수수 떨어지자 인민군 전투모가 드러났다. 눈썹 위까지 푹 눌러 쓴 그것은 흡사 똥색이었다.

도리우찌가 전투모를 돌아보며 눈짓을 던지자 전투모는 인배로부터 차례차례 세 사람의 몸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인배의 잠바 안주머니에서 신분증명서와 몇 장의 지폐가 나타났을 뿐, 그 외는 휴지 부스러기 아니면 코 묻은 손수건 따위이자, 전투모는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손길이 거칠어졌고 째진 눈언저리에 경멸의 빛을 흘렸다.

싸늘한 코웃음을 치고 난 도리우찌,

"모두 밖으로 나갓!"

총대를 휘익 내젓는다.

뒤에서 두 놈이 총대로 쿡쿡대고 찌르는 바람에 신을 찾아 신을 겨를도 없이 세 사람은 눈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함박눈은 어느덧 발목을 묻고 있었다. 바람이 일고 있었다.

"빨리 사무실로 갓!"

휘날리는 눈발에 젖으며 달수는 쿨룩쿨룩 되게 기침이었다. 판술이 맨 앞장을 서서 가 떨리는 손으로 짜그락 직원실의 자물쇠를 열었다. 실내에는 짙은 어둠이 가득 잠겨 있어 어디에 뭣이 놓여 있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똑딱똑딱……. 그런대로 시계 소리만이 무거운 어둠 속에서 불길하게 울리고 있었다. 세 사람을 어둠 속으로 떠밀어 넣고 나서 도리우찌는 문지방에 걸터 선 채 허리에서 후래시를 빼내어 탁 불을 켰다. 둥그런 광선이 소리 나는 쪽 벽을 가서

비추자 거기 고물스런 괘종(掛鐘)이 한 개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호오 ㅡ 좋은 게 있었군. 좋은 게 있었어."

도리우찌는 감탄하여 마지않으면서 얼른 이리 벗겨 내리라고 호령이었다.

"대장 동무께서 퍽 좋아하갔쉬다."

전투모도 한 마디 입을 열었다.

판술이의 손이 가서 닿자 시계는 그만 둔한 여음을 남기며 불알을 축 늘어뜨리고 말았다. 괘종이 벽에서 떨어지자 불빛은 서서히 그 위치를 옮기며 사방 실내를 비추어 나갔다. 반들반들한 궤짝 하나가 나타나자 불빛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추어지며 도리우찌,

"저게 뭐야?"

판술이,

"풍금입니다."

"뭐. 풍금? 음 ㅡ"

하더니 그것도 이리 들어내라는 것이다.

등사판과 종이는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인배가 등사판은 없다고 하니 학교에 등사판이 없다니 이 새끼들! 하고 떵 울렸다. 그러자 전투모가 찰그락, 방아쇠를 당겨다 놓으며,

"이 간나새끼들 맛을 봐야 알간?"

하였다.

인배와 달수는 간담이 서늘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판술이 불쑥 나서며,

"등사판은 정말 없임더. 만일 거짓말이거든 내 매가질 싹 짤라 주이소."

"정말이야?"

"정말입니더. 뒤질라고 거짓말 하겠습니꼬?"

그럼, 종이를 있는 대로 모조리 내놓으라는 것이다. 인배와 달수는 이제 살았다는 듯이 앞을 다투어 비품 상자를 가서 열어젖혔다. 불빛은 다시 이 구석 저 구석 살살이 비추어 보았으나 이제 욕심날만한 것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괘종은 달수에게, 종이 뭉치는 인배에게 그리고 베비올겐은 판술이에게 각각 떠맡기고 나서 도리우찌는 아아 동무들 수고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 짐을 우리 아지트까지 좀 운반해 주어야겠다는 것이다. 기가 딱 막혔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빨랑빨랑 움직이디 못하간?"

전투모는 다시 한번 방아쇠를 찰그락거렸다. 바깥은 눈보라였다. 산을 내리 부는 바람은 귀때기를 에이는 듯하였다. 판술이가 줄행랑을 놓은 것은 운동장 한쪽 비탈에 이르렀을 때였다. 짊어졌던 풍금을 냅다 팽개치기가 무섭게 쏜살같이 비탈을 굴러 내려갔던 것이다. 그러나 나무아미타불이었다. 따꿍! 따꿍! 총소리가 밤하늘을 바삭바삭 깨뜨려버렸다. 판술이의 몸뚱아리는 힘없이 '풀석' 꺾어지며 아윽!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눈구덩이에 곤두박혀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판술이가 내던진 풍금을 인배가 짊어져야 했고, 종이 뭉치는 시계와 함께 달수의 차지가 되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미끄러지며 길도 없는 산등성이를 타고 끌리어 가는 인배와 달수는, 마음속까지 얼어붙는 듯 그저 아득하고 멍멍하고 무섭기만 하였다. 인배는 곧장 콧물을 훌쩍거렸고 달수는 목구멍이 따갑도록 기침이었다. 발가락과 손가락이 차츰 감각을 잃어갔다. 이제 학교도 마을도 보이지 않았고 천지는 다만 무심하게 앵앵 소리를 지르기만 하였다.

내 휘날리는 눈송이가 그들의 행방을 모르게끔 발자취를 깨끗이 묻어가고 있었다.

지서(支署)의 높다란 초소(哨所)에서 지시를 하고 있던 의용경찰대원이 망원경을 눈에 붙인 채로 목줄기를 뽑아 올렸다.

"적정(敵情) 발견!"

씻은 듯 맑은 하늘에는 겨울의 아침 태양이 싱싱한 과일처럼 떠올랐고, 먼 산줄기에는 안개가 자욱이 서려 있었다. 안개의 장막 위로 연기가 한 줄기 가느다란 실오리처럼 하늘을 향해 서서히 뻗어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으나 망원경의 동그란 시야에는 옛날이야기 속에 나오는 심심 산중의 숯 굽는 연기처럼 그것은 분명히 비쳤던 것이다.

현관에 서서 입에 거품을 물고 불룩불룩 양치질을 하고 있던 안 순경은 적정 발견이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하였다. 입안의 것을 구루룩 내뱉기가 바쁘게 칫솔을 집어 던지고 초소 계단을 뛰어올랐다.

"어디, 어디?"

"저 천왕봉 옆을 보이소."

망원경을 받아 든 안 순경은 감시원이 가리키는 방향을 더듬었다. 과연 그것은 수상쩍은 연기가 아닐 수 없었다.

"보이지예?"

"음 ㅡ"

간밤에 공비들의 습격을 당한 메안골 국민학교의 정보를 받고 있는 터라, 그 연기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안개가 끼어 있는 것을 기화로 놈들 안심하고 한데서 밥을 짓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바람이 없을라치면 연기는 안개를 뚫고 위로 솟아오르는 법이거늘, 인간들 가당찮게 날뛰어도 실상 그런 조그마한 이치도 모르는가 보다.

안 순경은 감시원에게 경찰대원 전원 비상소집의 사이렌을 울리게 하고 계단을 또르르 굴러 내려 사무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때르릉 때르릉……. 본서(本署)로 이어진 경비 전화의 벨을 마구 잡아 돌렸다.

오웅오웅오웅 ㅡ 초소에서는 노리개 같은 사이렌이 아침 공기를 흔들기 시작하였다.

하룻밤 사이 보숭하게 부어오른 발을 어루만지며 인배는 동굴 바깥으로 하염없는 눈길을 보

내고 있었다. 희뿌연 안개 속으로 아침 햇빛이 송홧가루처럼 자욱하게 내려앉고 있는 바깥세상은 꼭 물 속인 것만 같았다. 밥을 짓느라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의 그림자도 어느 먼 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하였다. 가벼운 꿈결 같은 것에 젖어 들던 인배는 달수의 다시 계속되는 신음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며 암담한 중량감에 짓눌리었다. 간밤의 일을 생각하면 등뼈가 서늘하였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리고 신음소리, 틈틈이 뇌까리는 달수의 넋두리는 폐부를 찌르고도 남았다.

"김 선생! 도망가도 혼자만 도망가지 마세이. 아야야 — 나만 내버리고 혼자 가면 김 선생…… 아흐흐 —"

인배가 아니라 꼭꼭 김 선생이었고,

"어머니 환갑이 내달인데— 아야야!"

개롱개롱 곧 자지러지면서도 어머니의 환갑잔치 걱정이었다. 혹은 새끼들의 이름을 차례차례 불러 나갔고, 판술이가 불쌍하다고 목메이기도 하였다. 인배는 잠바의 깃을 치 세우며 얼굴을 돌려버렸다.

인배가 그들의 아지트 본부로 불려간 것은 해가 중천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을 무렵이었다. 간밤에 곧잘 총대를 절거덕거리던 전투모의 뒤를 따라 동굴을 나서자 눈이 부셨고 골이 핑 돌았다. 휘청거리는 발길을 가누고 본부라는 굴 안으로 들어서니 후끈하고 구리터분한 공기 속에서 삐삐 삐삐…… 풍금 소리가 나고 있었다. 아무 데나 꾹꾹 눌러대는 일종의 소음에 불과하였으나 인배는 약간 반가운 생각이 가슴 속을 흘렀다.

서서 풍금을 누르고 있는 것은 단발머리의 여자였고, 그녀의 아랫배는 아무래도 산월(産月) 가까워 있었다. 후줄그레한 군복 바지에 가랭이를 끼고 있는 꼬락서니이고 보니 꼭 개구리를 삼킨 뱀처럼 징글맞았다.

그 곁에 사내놈이 셋 있었다. 단발머리 엉덩이에 붙어서서 소리 나는 물건을 신기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치는 붉은 수건을 목에 질끈 동이고 있었고, 화롯불 앞에 앉아서 이를 잡고 있는 작자는 도리우찌였다. 인배를 힐끗 거들떠보더니 그냥 계속해서 눅눅한 속옷을 뒤적거렸다. 큰대자로 벌떡 드러누워서 담배를 뻑뻑 빨아대는 자가 아마 두목인 성싶었다.

방한모를 눌러 쓴 얼굴에는 번들번들 기름기가 흘렀고, 눈썹은 검고 코는 날카로운 독수리코였다. 독수리코가 으으윽! 일어나 앉으며 기지개를 켜자, 풍금소리도 멎고 이를 잡던 도리우찌의 손도 우뚝 멈추어 졌다. 불빛을 받아 독수리코의 얼굴은 무섭도록 이글거린다. 빨고 있던 담배꽁초를 썩 비벼 던지고 눈을 부릅뜨자 전투모는 인배의 다리를 툭 차며,

"꿇어앉으란 말이야. 쌍!"

하였다. 퍽 무릎을 꿇은 인배를 향해서 독수리코는 이제부터 인민의 이름으로 너의 심판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대뜸 묻는,

"출신성분이 뭐야?"

라는 것이다. 출신성분이라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짐작도 가지 않는 소리여서 인배는 독수리코를 멍청히 쳐다보기만 하였다.

"출신성분이 뭐냔 말이야! 귀가 먹언?"

"모르겠심다."

"흐, 이 새끼, 출신성분이 뭔 디도 몰라? 이런 치가 교원이야?"

그러자 옆에서 도리우찌가 한 마디 입을 내밀었다.

"자기의 출신성분 말이야. 뭐 하는 집에 태어났느냐 그 말이야."

그제사 인배는,

"농업입니다."

하였다.

"출신성분이 농업이라, 허허 이 새끼, 농민이믄 농민이디, 농업이 뭐야. 그럼 어드런 농민이야?"

이번엔 얼른 그 묻는 뜻을 짐작하고 재치있게 대답을 하였다. 자작농이었다. 그러나 그는,

"소작농입니다."

하였다.

"음 —— 소작농이라……."

그리고 독수리코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손에 흙을 묻힌 일이 있느냐는 둥, 학교 선생에게 반감을 가지거나 혹은 반항한 일이 있었느냐는 둥, 이런 도무지 하잘것없는 시시한 과거사를 이것저것 뒤져 묻는 것이었다. 인배는 소작농입니다 식으로 입에 침을 싹 바르고 눈치껏 대답해 나갔다. 마침내 독수리코는 인배를,

"동무!"

하고 부르며 풍금을 잘 탈 줄 아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니 그럼 어디 빨치산의 노래를 한 번 타 보라는 것이다. 출신성분이 뭣인지도 모르는 인배가 그런 따위의 노래를 알고 있을 리가 만무하였다. 듣기는 들었는데 잘 익히지 못했다고 하니, 그럼 아무것이라도 한 번 타 보라는 것이다. 인배는 일어나 조심조심 풍금 앞으로 다가갔다. 단발머리가 반질거리는 눈으로 인배의 얼굴을 바라본다.

이네들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을 노래를 멋들어지게 한바탕 들려주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무슨 영감처럼 번뜩 머리를 스치자 인배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울 밑에 선 봉선화야……. 애절한 하소연인 듯 처량하게 풍금이 울리자 모두들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단발머리는 분명 마음이 설레이고 있었다. 그러나 독수리코의 얼굴은 무감각하고 무뚝뚝하기만 하였다.

……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어두침침한 굴속에 여음을 남기며 곡이 끝나자 단발머리는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었다. 도리

우찌와 붉은 수건도 음 — 하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허나 독수리코는 못마땅한 듯,

"너무 감상덕이야. 건설덕인 걸 해 보라우!"

한다. 인배는 가슴이 설렁하였다. 총을 둘러메고 서 있는 전투모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나. 이번엔 아리랑을 택하여 보았다.

……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 신나게 휘둘러 멋들어지게 고개를 넘겼다. 절로 어깨가 우쭐거렸다. 독수리코 이번에는,

"도오타!" 는 것이다. 한 번 더 하라는 것이다.

인배는 다시 아리랑을 치고 나서 청하지도 않은 도라지타령까지 내리 뽑았다. 비굴한 느낌이 없는바 아니었으나, 목숨과의 흥정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만한 수치심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잠시 후 꼼짝없이 잠바를 벗어주고 낡아빠진 인민군 군복에 팔뚝을 꿰어야 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수치심 정도가 아니라 분함과 무서움과 혹은 절망 같은 강력한 충동이 함께 뒤범벅되어 온몸을 후둘둘 떨리게 하였다. 이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다.

인배의 두툼한 잠바를 빼앗아 입고 난 독수리코는 누우런 이빠디를 쑥 내밀며,

"그것참 뜨뜻하구 도쿤!"

하였다. 그리고 부동의 자세로 서 있는 전투모에게 다가가서 덥석 그 똥색 같은 벙거지를 벗기더니 그것을 인배의 머리 위에 갖다 푹 씌워주며,

"허허허..... 교원 동무!"

하고 불쑥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하자는 것이었다. 울상이 다된 인배, 하지만 그 무서운 손을 잡지 않을 수는 없었다. 인배의 손을 두어 번 거칠게 흔들고 난 독수리코는 한 사람마저 데려오라고 부동자세를 돌아보았다. 전투모를 벗기우고 맨대가리가 된 부동자세. 그러나 순순히,

"옛!"

하고 돌아서 나간다.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맨대가리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달수의 얼굴은 꼭 해골 같았다. 두 눈자위가 형편없이 꺼졌고 구부정하게 내뽑은 모가지에서는 곧장 거르릉거르릉 가래가 끓었다. 맨대가리가 다리를 툭 차자 휘청 꺾어지며 절로 무릎이 꿇어졌다. 인배는 어처구니없는 옷을 입은 채 등신처럼 서서 달수의 을씨년스러운 꼬락서니를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그만 외면을 해버린다.

심문은 시작되었다. 물론 출신성분부터였다. 인배가 모르는 그것을 달수가 알 까닭이 없었다. 애원의 빛이 넘치는 비굴한 눈으로 독수리 코를 우러러보다가, 그만 킥킥킥 자지러지며 으흐흐……. 앓는 소리를 하였다. 콧구멍에서 뜨끈한 열이 훅훅 내뿜는다. 잠바 포켓에 두 손을 꾹 찌르고 턱 버티어 선 독수리코, 눈꺼풀이 파르르 떨며,

"출신성분!"

꽥 소리를 질렀다. 달수의 이마에서 싸늘한 물이 한줄기 흘러내린다.

"이 새끼도 출신성분이 뭔디 모르는군. 어드런 일 해 먹는 집에 생겨났냐 말이야 쌍!"

"농사짓는 집에……. 크크윽!"

끓어 오르는 가래를 다스리느라고 말끝을 흐려버렸다.

"어드런 농사?"

어드런 농사라니 달수는 잠시 눈만 껌벅거리다가 독수리코의 충혈된 시선과 마주치자 가슴이 섬뜩하여 얼른,

"쌀과 보립니다."

해버렸다. 그러자 단발머리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킥! 하였고, 도리우찌와 붉은 수건도 허 — 웃었다.

"에잇 쌍! 개새끼."

발끈 뿔이 돋은 도리우찌는 포켓에서 손을 빼기가 무섭게 달수의 낯바닥을 냅다 후려갈겨 버린다. 모가지가 옆으로 비틀어지며 달수,

"으윽 ! 흐흐흐……."

곧 넘어가는 시늉이었다. 이어 발길이 덜덜 떨리는 턱주가리를 사정없이 내질렀다. 달수는 피거품을 물고 뒤로 벌떡 넉장거리를 쳤다.

"이런 밥통 같은 새끼가 교원이야? 없애 버렷!"

간단하였다. 무서운 선고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떨어지고 말았다. 오래간만에 한 마리 걸려들었다는 듯 맨대가리는 얼른 달려들어 달수의 옷을 홀랑 벗겨내었고 붉은 수건은 굴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손가락 두 날을 입에 물고 괴상하게 큰 휘파람을 휙! 휙! 불어 재꼈다. 인배는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애꿎은 두 눈만 깜작거렸다.

씻은 듯 안개가 걷히어간 백설의 골짜기에 눈을 뒤집어쓴 소나무가 그림처럼 드문드문 서 있었다. 해는 어느덧 중천에 와있었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퉁기면 찡! 하고 소리가 날 것 같았다.

헝겊 한 쪼가리 걸치지 아니한 달수의 몸뚱어리가 소나무에 발끈 묶이었고, 그 앞 눈밭에 지저분한 인간들이 반원을 그리며 늘어섰다. 스물은 심히 되었다. 저기 단발머리도 섞여 있었고, 인배도 나와 서 있었다. 인배는 혼이 뜬 사람처럼 먼 산봉우리 어느 한 점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터북터북 눈에 무릎을 묻으며 독수리코가 나타났다. 허리에 두른 혁대에는 단검이 매달렸고 도리우찌와 붉은 수건이 뒤를 따랐다. 잠바 포켓에 두 손을 찌른 독수리코, 달수를 등지고 버티어 서더니 우선 위압적인 시선으로 일동을 주욱 한 번 둘러보고 나서, 인민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영용한 빨치산 동무 여러분! 하고 짖기 시작하였다. 괴상한 억양의 목소리로 내배앝는 말에 의하면, 달수가 이만저만한 반동분자가 아니었다. 인배는 어처구니가 없이 절로 입이 딱 벌어졌다. 인간들은 필요 이상의 험상궂은 얼굴에 실감이 나지도 않는 노기를 띄우고, 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악질 반동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야 갔소. 어떻소?"

"옳소!"

골짜기가 찡 울렸다. 인배는 얼른 옆을 돌아보았다. 단발머리의 아가리도 분명히 짝 벌어졌다가 다물리었다. 인배는 칵 슬픈 생각이 등골을 홀렸다.

"이 영웅적인 우리들 빨치산 투쟁에 반대하는 동무는 없소? 그런 동무가 있으믄 손을 들어 보시오!"

독수리코는 무섭게 어금니를 물었다.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은 없었다. 인배는 손을 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손을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수리코의 말을 시인하는 것이 되며, 달수의 학살에 찬동을 하는 것이 되고 말지 않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손이 올라가질 않고 달달달 떨리기만 하였다.

독수리코의 쏘아보는 눈알과 마주치자 인배는 그만 시선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이 가슴 속에 있었다.

빳빳이 세워진 채 나무에 묶인 달수의 몸뚱어리는 시퍼렇게 얼어들고 있었다. 초점을 잃은 두 개의 눈망울이 허공을 향해 열리었고. 그것이 이따금 꿈적거렸다. 신음소리와 함께 사지가 꿈틀거리기도 하였다.

"그러믄 이제로부터 투쟁을 시작하갔는데 물론 총알을 사용해선 아니 되겠고, 요전보다 더 무자비한 투쟁이라야 되겠소. 그러믄 자 한 사람씩 차례차례 시작하시오."

명령이 떨어지자 맨 가의 한 놈이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잠시 사나운 눈초리로 달수의 몸뚱어리를 쏘아붙였다. 고깃덩어리를 노리는 짐승의 앞발과 흡사히 놈 두 손의 손톱을 시퍼렇게 세웠다.

"에잇"

기합술이라도 연출하는 듯 꽥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달려나가 그만 달수의 머리카락을 잡아 낚아채 버린다. 모가지가 쭉 늘어지며 달수는 찢어지는 듯 비통한 소리를 질렀다. 두 움큼의 머리카락이 뭉청 묻어 나오고 벌건 피가 번진다.

놈들 모두 예사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일쯤이사 그들의 눈에는 이미 만성이 된 지 오래였고. 또한, 그것이 그네들의 영웅적인 투쟁인 것이었다. 독수리코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고, 붉은 수건은 두 어깨를 치솟구며 씽긋 웃었다.

단발머리만은 몸을 움츠리며 외면을 하였다. 인배의 겨드랑 밑으로는 싸늘한 것이 줄 흘러내렸다. 어금니가 떨리어 견딜 수가 없었다. 두 눈을 찔끔 감아버렸다.

다음 차례는 맨대가리였다. 놈, 뚜벅뚜벅 걸어 나가더니 앞으로 떨어진 달수의 얼굴을 치켜올려서 주먹으로 팡팡 마구 두들겨 부치는 것이 아닌가. 눈, 코, 입 할 것 없이 온 낯바닥이 큭큭거릴 뿐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였다. 입이 터지고 코가 터지고 눈두덩이 깨어져서 상판대기에 온통 피가 낭자하였다.

이번에는 붉은 수건이 한 손에 칼을 번쩍이며 나섰다. 이슬이 뚝뚝 흐르는 연장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자못 흥미로운 듯 모두 숨들을 죽였다. 성큼성큼 다가간 붉은 수건, 더러운 물건에 손을 대듯 두 개의 손가락으로 달수의 한쪽 귀를 잡아 쭉 당겼다. 그리고 칼로 그것을 쌉박! 간단하게 베어버린다. 다른 쪽도 역시 쑥 잡아당겨 쌉박 베어버렸다. 손가락 끝에 대롱거리는 빨간 고깃점을 무슨 신기한 것이나 되는 듯 흔들어 보인다. 와 — 환호성이 골짜기를 흔들었다.

머리카락을 뽑히고, 얼굴이 떡이 되고, 게다가 이제 양쪽 귀까지 떼어버린 달수의 몸뚱어리는 여지없이 축 늘어져서 굳어져 갔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란 어쩌면 이렇게도 모진 것일까. 분명 아직 숨만은 끊이지 않고 이따금 한 번씩 가슴막이 부풀어 오르곤 하였다.

인배는 속에서 훅! 치밀어 오르는 불길을 감당해 낼 수가 없었다. 삶에 대한 미련 따위 치사스러운 것들은 죄다 이 불길에 훌훌 타버리고 말았다. 두 주먹에 절로 힘이 불끈 쥐어졌다.

와 — 환호성이 일어나자 붉은 수건은 흡족한 얼굴로 휙! 휙! 괴상한 휘파람을 휘날렸다.

그러자 차례도 없이 이번에는 독수리코가 훨씬 더 통쾌하고 무자비한 투쟁방법을 보일 생각으로 유유히 달수를 향해 갔다. 여유만만한 이리의 거동과도 흡사했다.

골짜기는 죽음처럼 고요하였고. 인간들은 모두 독수리 코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충혈된 눈으로 독수리 코를 쏘아보고 있는 것은 인배였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고 있었고, 숨은 목구멍에서 칵 멈추어져 있었다. 달수의 몸뚱어리 곁에 이르는 독수리코는 일동을 한 바퀴 휘 둘러보며 코언저리에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그의 손아귀가 가서 덥석 거머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달수의 사타구니에 달린 시꺼먼 그것이었다. 그것을 거머쥔 손이 꾹 당겨지자 단발머리는 그냥 아윽! 하며 뒤로 돌아서 버렸다. 시꺼먼 그것이 늘어질 대로 늘어졌을 때 독수리코는 이것 보라는 듯이 일동을 향해 또 한 번 누우런 이빠디를 대밀며 히죽 웃었다. 그리고 손이 허리의 단검에 가는 것이었다.

순간 에잌! 인배는 가슴에서 솟구친 불길이 입 밖으로 확 터져 나오고 말았다. 온몸이 그냥 그대로 불덩어리였다. 총알 같이 날아간 그는 독수리 코의 목덜미를 그만 아가각! 깨물어 뜯었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독수리코는 옆으로 퍽 쓰러지며 단검을 쑥 빼 들었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하늘이 마구 흔들렸고 와그르르 산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다. 기적과 같은 사실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이다. 삐삥! 팡팡팡팡.... 까르르 까르르 콰광 ! 삐삥! 요란한 총소리가 천지를 뒤집어 놓기 시작한 것이었다. 기습작전이었다. 양켠 산등성이에서 이 용서할 수 없는 골짜기를 향해 일제히 불을 퍼부어대기 시작한 것이다. 참으로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떼거리들은 혼비백산하여 거미 새끼 흩어지듯 죽어라 하고 뛰었다. 독수리코도 빼어든 단검을 떨어뜨리기가 무섭게 뿔뿔 기어 내려가다가 그만 궁둥이를 하늘로 불끈 쳐들며 눈구덩이에 푹 처박혀 버렸고 도리우찌도 붉은 수건도 메뚜기 못잖게 들고 튀다가 보기좋게스리 낭떠러지에 몸을 내던지고 말았다. 단발머리 역시 배때기를 하늘로 치올리며 나가떨어졌다. 맨대가리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보기 좋게 거꾸러져 갔다.

달수는 소나무에 그냥 묶인 채 온몸에 총탄의 세례를 받으며 차라리 시원하게 숨을 거두었고 인배 역시 어쩔 수 없는 목숨이었다. 산다는 생각도 죽는다는 생각도 이미 없었다. 그저 몸뚱어리가 굴러내리는 대로 힘껏 내달을 따름이었다.

퍽! 하고 옆구리를 쥐어박는 충격을 느꼈을 때는 그는 어느새 두 손을 하늘로 높이 쳐들고 있었고,

"윽!"

이빠디는 혓바닥을 물고 있었다. 한마디 뭐라는 말도 없이 눈알을 뒤집어 까며 비실 무너져 내렸다. 인민군 옷을 입고 전투모를 쓴 채 벌떡 드러누워서 그는 조용히 굳어져 가는 것이었다. 옆구리에서 터지는 피가 하이얀 눈을 딸기 물처럼 곱게 물들여 가고 있었다.

총성은 멎었다. 이제 일은 될 대로 다된 것이다. 산등성이로부터 눈 비탈을 타고 경찰대원이 까아맣게 쏟아져 내린다. 재빨리 미끄러져 내린 대원들은 동굴의 시커먼 아가리 속으로 까르르 까르르 기관총을 갈겨대기도 하였고, 여기저기 흩어진 시체를 발길로 툭툭 차고도 다녔다. 혹시 시체가 '움찔'이라도 할라치면 쾅! 대가리를 바수어버리는 것이다.

"안 순경님! 여기 김 선생님도 있심더."

안 순경은 나무에 묶인 참혹한 달수의 시체 앞에서 이맛살을 찡그리다가 부르는 소리 쪽으로 뛰었다.

"익! 이게 웬일이고?"

인민군 복색(服色)으로 누워있는 인배의 시체를 내려다보는 안 순경의 두 눈은 휘둥그레졌다.

"음--- 이거 정말...."

안 순경의 얼굴은 차츰 심각해져 갔다.

"김 선생이 정말 이런 줄은 몰랐는데…… 음 —"

놀라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안캅니꼬."

"평소에도 좀 수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았심더."

재빨리 요따위 주둥아리를 놀리는 치도 있었다.

어느결에 까아만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하늘 가에 까마귀 떼가 떠올랐다.

산골의 봄은 산새들의 울음소리로부터 오는가 본지, 비비비 뱃종뱃종 ……, 혹은 후루루 후루루 하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자, 골짜기에 쌓였던 눈들이 쫄쫄쫄 녹아내렸다. 양지바른 기슭에는 어느덧 고사리순이 돋아 올랐고 진달래가 뿌듯하게 봉오리를 맺었다.

메안골 마을에도 봄빛은 기울어져 왔다. 눈이 말끔 녹아버리자 학교 뒤 산비탈에 지난해까지는 볼 수 없던 벌건 무덤이 두 개 나란히 드러났다. 달수와 판술이의 무덤이었다. 인배는 공동묘지의 한쪽 응달에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렇게나 묻혀 있는 것이었다.

고을 군수와 서장의 발기로 전몰 군·경·민 합동 위령제가 거행된 것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겨울 동안 공비 소탕전에 혁혁한 공훈을 남기고 전사한 군인과 경찰을 비롯해서, 놈들에게 무참히 죽음을 당한 양민도 함께하여 그 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것이었다. 물론 달수와 판술이는 거기 한 몫 끼었다. 그러나 인배는 제외되었다. 김인배는 놈들과 같은 뱃속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인배가 제외된 채 위령제는 수많은 조위객들이 모인 가운데, 한마디 이의도 없이 성대히, 그리고 무사히 거행되었다.

독자에게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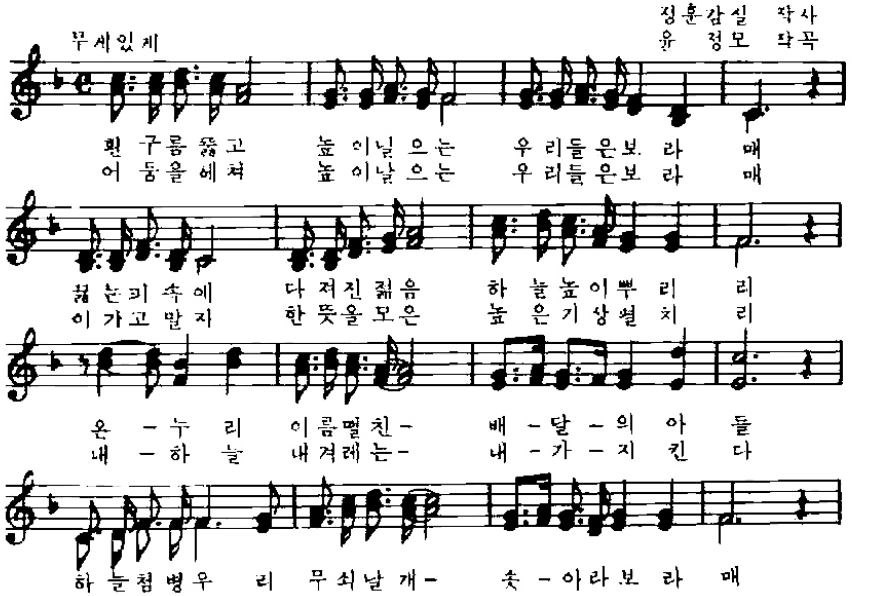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읍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3년 8월 25일 인쇄
1983년 8월 21일 발행

발행 : 공군본부
편집 : 정훈감실
인쇄 : 공군교재창

〈연락처〉 전화: 827-2961, (효)-5241

솟아라 보라매



군인(軍人)의 길

나는 영광(榮光)스런 대한민국(大韓民國)
군인(軍人)이다.

하나 : 나의 길은 충성(忠誠)에 있다.
조국(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 나의 길의 승리(勝利)에 있다.
불굴(不屈)의 투지(鬪志)와 전기(戰技)를 닦는다.

하나 : 나의 길은 통일(統一)에 있다.
기필코 공산적(共産敵)을 쳐부순다.

하나 : 나의 길의 군율(軍律)에 있다.
엄숙히 예절(禮節)과 책임(責任)을 다한다.

하나 : 나의 길은 단결(團結)에 있다.
지휘관(指揮官)을 핵심(核心)으로 생사(生死)를 같이한다.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런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